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이 홍 구

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

지도교수 황 선 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이 홍 구

이홍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

이 홍 구

본 연구는 중세 한국어의 양보문에 대한 것으로 1차적 목표는 양보 표현의 목록을 정리하고 유형을 분류해 제시하는 것이며, 2차적 목표는 개별 양보 표현의 특징을 기술하고 각각의 실현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양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개략적인 유형 분류를 제시하였다. 양보는 '기대의 부정'과 '비관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사실성을 기준으로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분류할 수 있다. 조건적 양보는 그 실현 방식에 따라 주요 유형 세 가지와 조건-의문형 양보로 재분류 할 수 있다. 사실적 양보는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도 해석되는 경우, 배경 제시나 대조 표현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 보충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조건적 양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첨가 초점사 양보, 대안 조건적 양보, 자유 선택사 양보, 조건-의문형 양보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첨가 초점사 양보의 경우 첨가 초점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 ㅭ, -어도, -고도, -ㅅ{雖}ㅓ'가 이에 속할 수 있다. 대안 조건적 양보는 대안 집합의 나열을 통해 비관여성을 얻는 것이다. 이접의 '이(거)나, -나$_1$, -ㅭ$_1$'와 연접의 '-며, -여, -ㅡ(ㅣ)'가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다. 자유 선택사 양보 경우 전제절에 있는 변항에 어떤 것이 오든 후행절이 항상 참이 됨을 표현함으로서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아모'계열 비한정사에 이접 표현이나 초점사 '도' 등이 공기하는 경우와 '현마'에 '-도, -나$_2$, -ㄴ둘' 등이 공기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조건-의문형 양보로 '-ㄴ둘'을 제시할 수 있었다. '-ㄴ둘'은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모두 쓰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주절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온다는 점을 특징

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 발달에 대해서는, 'NP+목적격 조사' 구성에서 바로 양보의 연결어미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중간 층위로 조건의 의미 기능을 거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조건문의 주절에 의문형이 온 경우를 교량으로 조건적 양보로 발달했을 가능성을 제안해 보았다.

제4장은 사실적 양보에 대한 것이다. 주로는 배경 제시와 대조 표현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배경 제시 표현의 경우 '-거늘, -ㄱㄷ, -오ᄃᆡ, -ㅎㅏㅁ/-ㅎㅣㅁ, -건마ᄅᆞᆫ, -니, -ㄱㅡ/ㅣ, -ㅏㅡ/ㅣ'가 제시될 수 있었다. 대조 표현의 경우 '-나$_2$, -ㅈ$_2$, -거니와'가 있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후기중세의 '-나$_2$'는 주로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나 일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는 점, 전기중세의 '-ㅈ$_2$'의 경우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가 모두 발견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대조 연결사가 조건적 양보까지 포괄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며, 한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아직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나$_2$'가 중세 한국어 시기에 전형적인 대조 표현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한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보충 표현과 양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충은 선행절에서는 어떤 명제를 단언하고 그 대안 집합에 속하는 명제를 후행절에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보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ㄴ뎡'류 표현과 '-디ᄇᆡ'가 있다. 이들의 의미 기능을 보충,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로 세분하고, 각각의 기능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추가로, 개별 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구결 문헌에서 발견되는 예문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었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양보, 조건적 양보, 사실적 양보, 비관여성, 초점사, 자유 선택, 대조, 배경 제시, 보충, 석독구결

학 번: 2019-27800

차 례

1. 서론 ····· 1
1. 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 1
1. 2. 선행연구 ····· 3
1. 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 7
1. 4. 인용 자료 및 약호 ····· 9

2. 기본적 논의 ····· 11
2. 1. 양보의 정의와 구조 ····· 11
2. 2.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 ····· 16
2. 2. 1. 조건적 양보의 실현 양상 ····· 20
2. 2. 2. 사실적 양보의 실현 양상 ····· 26
2. 3. 양보와 인접 범주들의 관계 ····· 33

3. 조건적 양보 ····· 37
3. 1. 첨가 초점사 양보 ····· 37
3. 1. 1. ‘도’, ‘ㄱ’ ····· 40
3. 1. 2. ‘-어도’, ‘-고도’ ····· 43
3. 1. 3. ‘-ㅅ{雖}ㅏ’ ····· 51
3. 2. 대안 조건적 양보 ····· 57
3. 2. 1. 이접 표현 ····· 59
3. 2. 2. 연접 표현 ····· 60
3. 3. 자유 선택사 양보 ····· 62

3.3.1. ‘아모(아ᄆ)’ ····· 63
3.3.2. ‘현마’ ····· 69
3.4. 조건-의문형 양보 ····· 70

4. 사실적 양보 ····· 79
4.1. 배경 제시 표현의 양보적 쓰임 ····· 79
4.1.1. ‘-거늘’, ‘-ㄱㄹ’ ····· 82
4.1.2. ‘-오ᄃᆡ’, ‘-ㅎㅏㅁ/ㅎㄱㅁ’ ····· 89
4.1.3. ‘-건마ᄅᆞᆫ’ ····· 93
4.1.4. ‘-니’ ····· 96
4.1.5. ‘-ㄱ/ㅏㅡ’, ‘-ㄱ/ㅏㅣ’ ····· 97
4.2. 대조 표현의 양보적 쓰임 ····· 100
4.2.1. ‘-나$_2$’, ‘-ㅏ$_2$’ ····· 102
4.2.2. ‘-거니와’ ····· 111

5. 보충 표현과 양보 ····· 112
5.1. 보충 표현의 의미 기능 ····· 112
5.1.1. 보충 ····· 114
5.1.2. 사실적 양보 ····· 117
5.1.3. 조건적 양보 ····· 120
5.2. 개별 표현의 실현 양상 ····· 124
5.3. 보충 표현과 구결 문헌 ····· 130

6. 결론 ····· 137
참고문헌 ····· 141
Abstract ····· 149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본고는 중세 한국어 양보문에 대한 연구로, 그 목적은 다음 (1)과 같다.

(1) ㄱ. 양보 표현의 목록 정리 및 유형 분류
ㄴ. 개별 양보 표현의 특징 기술 및 원리 규명

양보(讓步, concessive)는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과 비관여성(irrelevance)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양보 연구는 다른 범주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온 것으로 보인다.[1] 그러나 한국어에는 분명하게 양보만을 전적으로 실현하는 문법 요소('-어도', '-ㄹ지언정', '-ㄴ들' 등)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범언어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양보가 독립적인 의미 범주로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König 1985; Rudolph 1996; Haspelmath & König 1998; Xrakovski 2012).[2] 이에 양보 연구는 한국어 문법 기술을 위해서도, 비교 및 보편 언어 기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접속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장요한 2010: 10). 접속 관계의 일부인 '양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접속 관계 전체를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그 까닭으로는 다른 범주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 König(1988: 14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증 과정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인과'나 '조건' 등에 비해 절대적인 관심이 적었다는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2) 비록 여전히 대조와 양보를 양단하는 적절한 기준들이 등장한 것은 아니나, Comrie(1988)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접속 관계의 범주들은 필요충분적 조건(necessaryand-sufficient conditions)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성(prototype) 차원에서 식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한 바 있다. 본고의 경우도 이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2000년대 들어 현대 한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다수 등장했고 최근에는 외국의 논의를 적용해 양보에 대해 정밀한 설명을 시도하는 논의도 나타나 점차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신지연 2004; 박승윤 2007; 박재연 2009, 2011; 함병호 2013; 이순욱 2017; 이금희 2017 등). 그러나 양보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여전히 소수에 그쳐 문제가 된다.

어떤 범주든, 현대 언어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와 역사적 연구는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양보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그 까닭은 범언어적으로 양보 표현은 기원적으로 '복합적(complex)'이며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투명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König 1985: 263). 한국어의 양보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어도, -고도, -음에도, -더라도'와 같은 양보 연결어미에서 첨가 초점사 '도'를 분석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어 연구에서도 공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고는 지금껏 진척된 현대 한국어의 양보 연구를 바탕으로 중세 문헌의 양보 표현을 찾아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고 실현 원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대상은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양보로 해석되는 표현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어미나 보조사 등의 필수적 문법 요소로 한정한다. 수의적인 부사의 경우 우리의 연구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보문의 성격을 판단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했으며, 공기 양상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었다.

후기중세 한국어 문헌부터 다루는 것은 양보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기중세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표기 수단의 출현으로 월등히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시기다. 이에 한국어사 연구의 기점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5세기 정음 초기 문헌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 시기의 문헌은 대부분 언문청(諺文廳)이나 간경도감(刊經都監)과 같은 기관에서 편찬한 중앙의 간행물로 현저한 동질성을 담보하기(이기문 1972/1998: 121) 때문에 보다 균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3) 이들 문헌 내부에서도 구분이 필요한데, 이는 안병희(2009)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기중세 한국어의 양보 표현이다. 전기중세 한국어의 경우 양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중세 한국어를 살펴보았다. 주로 살핀 문헌은 석독구결 문헌이다. 석독구결은 한문을 한국어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토(吐)를 단 것이다. 문법 형태의 쓰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순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 당대 한국어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석독구결 문헌은 1975년 『舊譯仁王經』卷上의 발굴 이래, 자토석독구결 6종, 점토석독구결 14종이 공개된 바 있다. 이중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자토석독구결 6종이다. 필요에 따라 점토석독구결이나 음독구결, 이두 등 다른 차자표기 자료도 참고하였다.

1.2. 선행연구

한국어학계에서 70년대 이전까지는 대조와 양보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 온 듯하다. 70년대 들어 이기동(1977)에서 양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평현(1989), 이은경(2000) 등 연결어미를 총체적으로 다룬 논의들이 있었고 서정섭(1991), 신지연(2004), 박승윤(2007), 박재연(2009, 2011), 함병호(2013), 이순욱(2017), 이금희(2017) 등 양보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들을 다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대조라는 큰 범주 내부에 양보가 속한다는 주장으로 이기동(1977), 서태룡(1979), 신지연(2004) 등이 있고, 양보와 대조를 분리해 다룬 윤평현(1989), 이은경(2000) 등이 있다.[4] 이들이 중요하게 다룬 것은 '-지만, -나$_2$' 등의 연결어미와 '-어도' 등의 연결어미가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화용론적 대조와 양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이었다.[5] 다음으로 양보를 조건의 하위 부류로 간주한 논의로 장

먼저는 불경 언해가 아닌 『三綱行實圖』, 『杜詩諺解』, 『內訓』등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다시 불경 언해 내부에서는 『楞嚴經諺解』를 기준으로 구어체 산문과 문어체 산문을 구분할 수 있다.

4) 물론 후자의 논의들에서 양보와 대조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양단해 다루었다는 것은 아니다.

5) 동일한 표기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접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은 '-나$_1$',

경희(1995), 박승윤(2007), 박재연(2011), 이금희(2017)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다른 범주에서 분리하고 다시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나누는 박진호(2012), 이순욱(2017)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대조 - 사실적 양보 - 조건적 양보 - 조건'과 같은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본고는 박진호(2012), 이순욱(2017) 등과 같이 '대조 - 사실적 양보 - 조건적 양보 - 조건'이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양보를 넓은 의미의 양보로 정의하여 그 내부에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를 두는 것으로 하겠다.

후기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문법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한 부분으로 양보를 기술한 논의와 양보만을 단독으로 다룬 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허웅(1975), 이기문(1961/1998), 이숭녕(1961/1981), 안병희·이광호(1990), 고영근(1987/2010), 구본관 외(2015)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양보와 대조 연결어미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웅(1975)에서는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이음법의 하나로 불구법(양보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립·양보의 어미를 통틀어 말한 것으로 '-나$_2$, -어도, -고도, -거니와, -건마른, -ㄴ들, -디비, -란ᄃᆡ만뎡, -ㄴ뎡, -ㄹ쓴뎡'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기문(1961/1998)에서는 부동사 어미를 14가지로 분류하며 대립·양보를 나타내는 어미를 통틀어 양보로 보아 '-나$_2$, -ᄃᆡ, -ㄴ들, -거니와, -건마른, -ㄹ쓴뎡'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부정적 표현을 수반하는 어미로 '-디, -들, -ㄴ동, -드란, -디비' 등을 든 바 있다. 이숭녕(1961/1981)에서는 접속형 어미를 12가지로 분류하였고, '-거-'계 어미들은 가상법으로, '-어도'를 행동 전제법으로, 나머지 '-나$_2$, -디비, -ㄹ디언뎡, -ㄹ쓰니언뎡' 등을 기타 접속형으로 분류하였다. 안병희·이광호(1990)의 경우는 양보를 등위접속어미의 '-나$_2$, -건마른, -거나'와 종속접속어미의 '-오ᄃᆡ, -ㄴ들, -거니와, -ㄹ쓴뎡, -ㄹ션뎡'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고영근(1987/2010)에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양보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_2$, -건마른, -어도, -고도, -거니와, -디비, -건뎡'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본

'-ㄱ$_1$', 대조로 볼 수 있는 것은 '-나$_2$', '-ㄱ$_2$' 정도로 표기했다.

관 외(2015)에서는 대등접속어미로 '-나$_2$'를 제시하였고 종속접속어미 중 '-건마른, -어도, -고도, -ㄴ들, -거니와' 등을 양보로 제시한 바 있다.

양보만을 다룬 연구로는 서정섭(1986), 이상훈(2011), 장요한(2014, 2016) 이금영(2019, 2020) 등이 있다. 서정섭(1986)은 중세 한국어 양보를 대상으로 작성된 유일한 학위논문으로 보인다. 양보와 대조의 연결어미 '-나$_2$, -어도, -거니와, -건마른, -ㄴ들, -ㄴ뎡, -디비' 각각에 대해 형태, 통사, 의미론적으로 분석을 하여 양보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König(1985, 1988, 1998)와 같은 범언어적 연구가 국내에 도입되지 못했기에, 각각의 어미를 방책에 따라 구분하거나 양보로 발달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상훈(2011, 2019)의 경우 중세 한국어의 양보부사에 대한 논의다. '비록, 아ᄆᆞ리, 현마, 가ᄉᆞ·가셜, 아마커나'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형태·통사·의미적인 부분을 기술하였다. 우리의 연구는 부사는 다루지 않으나 양보문을 판별할 때 이들 부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장요한(2014, 2016)은 '-ㄴ뎡'류 접속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로 아직까지 내부 구조와 의미 기능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ㄴ뎡'류 표현의 의미 기능을 검토한 논의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담화 내용을 근거로 선행절은 어떤 명제를 '단정'하고 후행절은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기술하였으며 일부 양보나 조건의 의미 기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금영(2019)은 연결어미 '-ㄴ들'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로 '-ㄴ들'이 '-ᄃᆞ' 명사구 보문 구성에서 문법화된 것이며 이러한 용법은 17세기 이후 사라졌고 '양보', '대립', '가정 혹은 조건'으로 사용되어왔음을 제시하였다. 이금영(2020)의 경우 근대 한국어 '-도' 통합형 양보 관계 연결어미 '-고도, -어도, -ㄹ지라도, -더라도' 각각의 통사·의미적인 특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때, König(1985, 1988, 1998)에서 제시한 척도적 양보 방책이 '추가'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기원적으로 보조사 '도'를 포함한 연결어미의 척도적 의미와 양보 의미를 설명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König(1985, 1988, 1998) 및 기타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전기중세와 후기중세 한국어의 양보문에 적용해 설명할 것이다.

추가로 양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논의

로 이현희(1995)가 있다. 이현희(1995)는 ‘ㅅ’에 대한 논의로, ‘도’에 역동과 양보의 기능이 확인되며 명사구는 물론 용언 어간에도 이것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일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결 문헌의 양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양보만을 단독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건식(2017)이 유일하며 이외에는 대부분 연결어미나 보조사를 총체적으로 다룬 논의들에서 일부로 언급된 것뿐이었다. 그러한 논의로는 황선엽(2002), 하귀녀(2005), 김지오(2019)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황선엽(2002)에서는 양보와 관련된 몇 가지 연결어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구결문헌의 ‘-ㄱ$_2$’의 경우 역접이나 나열의 의미를 지니며 많은 경우 ‘雖’와 공기하여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더하여 ‘-ㅅ’와 ‘-ㅅ{雖}ㅓ’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전자는 원망의 표현으로 후기 중세국어에 ‘-고져, -과뎌’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후자는 ‘雖’를 사이에 두고 현토되었고 보조사 ‘도’가 따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진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언급을 특기할 만하다.

하귀녀(2005)에서는 15세기 보조사 ‘도’ 및 그 선대형인 ‘置, 都, 刀, ㄱ’ 등을 다루었다. 이들에 역동과 양보의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양보로 실현되는 경우를 척도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만뎡’에 대해서도 양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 ‘이나’, ‘마른’의 특징에 대해서도 기술하였으나 양보와 관련짓지는 않은 듯하다.

김지오(2019)에서는 대조와 양보를 나타내는 어미로 ‘-ㄱ$_2$’, ‘-ㅅ{雖}ㅓ’가 있다는 점 정도만 언급되었다.

이건식(2017)에서는 ‘若ㄷ’과 ‘設ㅭㅅ’ 등을 ‘비록’으로 읽을 수 있으며 양보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과 석독구결의 ‘-ㅅㅓ’는 양보부사 없이 양보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ㅅ’는 원망의 연결어미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더하여 양보문의 발달을 고려 향가의 ‘NP도 VP나’에서 석독구결의 ‘NP VP도’를 거쳐 후기중세의 ‘비록 NP VP도’로 정리하였다.[6)]

---

6) 그러나 부사는 필수요소가 될 수 없으며, ‘비록’ 등의 양보 부사는 석독구결 및 후기중세 모두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하여 고려 향가의 경우 예가 극히 적으며 ‘NP도 VP나’가 아닌 유형도 발견된다. 본고는 15세기 언해 자료와 자토석독구결만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요컨대 통시적 연구를 통틀어 양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제는 현대 한국어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바,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양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본고는 양보 표현의 목록을 정리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문헌 자료를 검토해 양보 표현을 추출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신뢰성 있는 문헌(『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釋譜』 등)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가능한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추출한 뒤, 다시 15세기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Uniconc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문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토석독구결의 경우 문헌의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으므로 문헌을 검토하여 양보로 해석되는 요소를 추출하는 방식만을 취했다.

본고의 2차적 목표는 개별 양보 표현의 특징 기술과 실현 원리 규명이다. 이에 앞선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 양보 표현의 예문을 검토하여 특징을 기술하였고, 유형론을 참조하여 양보로 실현되는 원리를 규명하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보 요소들을 분류하고 그 특징들을 기술한 König(1985, 1986, 2006)와 Haspalmath & König(1998), König & Siemund(2000) 등의 논의를 참고하였다.[7]

이때,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대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조건적 양보의 경우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분류될 수 있었다. 사실적 양보의 경우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되는 표현은 범주별로 분류가 가능했다. 이외에 보충 표현의 경우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모두 사용 가

생략하도록 한다.

7) 추가로, 접속 관계의 원형성에 대한 논의인 Comrie(1986), 기존 학계의 논의들을 정리한 논의인 Rudolph(1996), 통사론적 논의인 Azar(1997), 여러 언어의 참조 문법을 망라한 Xrakovski(2012) 등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능하나, 그 구문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따로 묶어 기술하는 방법을 택했다.

구체적인 기술 방식을 제시하자면, 유형별로 양보로 해석되는 원리는 유사하므로, 각 절의 첫머리에 총론의 성격을 지니는 글을 제시하였다. 개별 항에서는 그 의미 기능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술하였다. 더하여 내부 구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양보로 해석되는 원리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항의 끝머리에 설명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의 기본적 논의에서 양보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정리한다. 먼저는 양보를 기대 부정과 비관여성으로 정의하고 그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정의하고 유형론에 비추어 각각의 하위 유형을 나누어 본다. 이후 인접한 범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동일한 표현이 양보에도 사용되고 다른 범주에도 사용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조건적 양보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첨가 초점사 양보, 대안 조건적 양보, 자유 선택사 양보, 조건-의문형 양보로 나누어 각각의 실현 원리와 구체적인 예문, 특기할 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사실적 양보를 살펴본다. 먼저는 배경 제시 표현이 양보로도 해석될 수 있는 까닭에 대해 다루고 개별 표현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조와 양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대조로 기술되어 왔던 표현들 중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보충 표현과 양보에 대해 살펴본다. 중세 한국어의 보충 표현으로 '-ㄴ뎡'류 표현과 '-디비'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들은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른 의미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부족했던 점과 추후에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1.4 인용 자료 및 약호

다음은 인용 자료들로 문헌명, 약호, 시기의 순으로 배열하였다.[8)]

[표 1] 인용 자료 1: 차자표기 자료 목록

	문헌명	약호	시기
점토구결	晉本華嚴經 卷20	진본화엄	10세기
자토구결	華嚴經敎分記圓通鈔 卷3	석교분기	10세기 중엽
	大方廣佛華嚴經疏 卷 35	화소	11세기 말 내지 12세기 초
	大方廣佛華嚴經 卷14	화엄	12세기 중엽
	舊譯仁王經 卷上	구인	13세기 중엽
	合部金光明經 卷3	금광	13세기 중엽
	瑜伽師地論 卷20	유가	13세기 후반
	慈悲道場懺法 卷14	자비	13세기 중엽
음독구결	楞嚴經 남풍현본	소곡능엄	12세기 말 내지 13세기 초
	楞嚴經 원각사본	원각능엄	15세기 중엽
	楞嚴經 호림박물관본	호림능엄	15세기 후반

[표 2] 인용 자료 2: 한글 자료 목록

	문헌명	약호	시기
15세기	龍飛御天歌	용가	1447
	釋譜詳節	석상	1447
	月印千江之曲	월곡	1447
	訓民正音諺解	훈언	1447년경
	月印釋譜	월석	1459
	楞嚴經諺解	능엄	1461
	法華經諺解	법화	1463
	禪宗永嘉集諺解	선종	1464
	金剛經諺解	금강	1464
	圓覺經諺解	원각	1465
	救急方諺解	구급방	1466
	蒙山法語	몽산	1467
	內訓	내훈	1481년경
	杜詩諺解 初刊本	두시초	1481

8) 구결 문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남풍현(1998, 1999), 남경란(2001), 남권희·남경란(2016)을 따른다. 다만, 점토구결에 대해서는 정재영(2001, 2006)을, 『華嚴經敎分記圓通鈔』에 대해서는 안병희(1992)를 따랐다.

	南明集諺解	남명	1482
	救急簡易方	구간	1489
	三綱行實圖 成宗版	삼강	15세기
16세기	飜譯朴通事	번박	1517
	飜譯老乞大	번노	1517
	警民編	경민편	1519
17세기	朴通事諺解	박통사	1677
18세기	伍倫全備諺解	오륜	1721
	老乞大新釋諺解	노신	1763

2. 기본적 논의

제2장에서는 양보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리한다. 2.1절에서는 양보를 정의하고 양보의 구조에 대해 살핀다. 2.2절에서는 양보의 하위 부류인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에 대해 정의하고 각각의 실현 유형에 대해 살핀다. 2.3절에서는 양보와 인접한 범주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2.1. 양보의 정의와 구조

양보(concessive)는 어떤 지식이나 사태가 다른 지식이나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denial of expectation)하여 두 지식이나 사태가 비관여적임(irrelevance)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ㄱ. 밥을 먹어도(A) 배가 부르지 않다(not-B).
ㄴ. (기대) 밥을 먹으면(A) 배가 부르다(B).

(2) ㄱ. 내일 비가 와도(A) 소풍을 갈 것이다(not-B).
ㄴ. (기대) 비가 오면(A) 소풍을 가지 않는다(B).[1)]

(1ㄱ)의 경우 '밥을 먹는 사태'와 '배가 부른 사태'가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두 사태 또한 관여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1ㄴ)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ㄱ)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여 두 사태가 비관여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2ㄱ)의 경우 '비가 오는 사태'와 '소풍을 가는 사태'가 나타나 있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야외 활동을 취소하는 것은

1) "Even though it is raining(p), Fred is going out for a walk(~q)."과 같은 문장의 기대 표상 방식으로 "If it is raining(p), one normally does not go out for a walk(q)."(König 1988)와 "The more it rains, the less people go out for a walk."(Azar 1997)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우리는 조건 연결사 '-면'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하므로, 이 두 사태 또한 관여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2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2ㄱ)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두 사태가 비관여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장들을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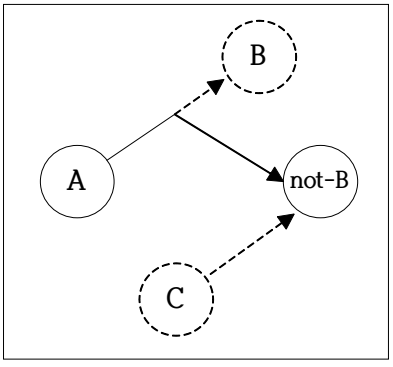
기대는 화용론적 개념으로, 전제되었거나 전제된 것에서 추론된 일반 명제에 해당한다. 이에 보편적인 지식과 관련하여 추론되거나 맥락을 통해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2)의 기대는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보편적인 지식에서 추론된 것이었다. (3)의 기대는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3) ㄱ. 철수가 붙잡아도(A) 영희는 떠났다(not-B).
ㄴ. (기대) 철수가 붙잡으면(A) 영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B).

(3ㄴ)과 같은 기대는 철수와 영희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대는 화용론적인 것이며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여 두 지식이나 사태 사이의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것을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양보의 구조와 그것이 언어화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양보문을 판별하고 그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후의 3장과 4장의 양보문 분석에 활용될 것이다.

일반적인 양보문을 “A어도 not-B”라고 할 때, 표면에 나타난 것은 A와 not-B이나 이면에는 두 가지 연쇄가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Rudolph(1996: 394)에서 제시한 아래 <그림 1>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양보의 두 가지 연쇄

<그림 1>은 일반적인 양보문을 단순화한 것이다. ‘A, B, C’ 각각은 지식이나 사태에 해당하고, 실선은 실제로 언어화된 두 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1ㄱ)의 경우 ‘밥을 먹는 사태’는 A에, ‘배가 부르지 않는 사태’는 not-B에 해당한다. 이때, 언어화된 두 항 외에 점선으로 표현된 두 가지 연쇄 <A이면 B>, <C이면 not-B>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A이면 B>는 A 사태가 B 사태의 실현에 관여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1ㄱ)으로 예를 들면, ‘밥을 먹는 사태’(A)는 ‘배가 부른 사태’(B)에 관여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A와 not-B가 비관여적으로 참임이 표현될 수 있다.

두 번째로, A가 not-B의 실현에 비관여적이라면 not-B의 실현에 관여하는 다른 지식이나 사태(C)가 존재 전제될 것이다. 이에 <C이면 not-B>에 해당하는 연쇄를 상정할 수 있다. 가령, (1ㄱ)에서 ‘배가 고픈 사태’의 원인에 해당하는 C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앞서 제시한 (1-3)의 예에 이러한 연쇄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ㄱ. 밥을 먹어도(A) 배가 부르지 않다(not-B).
ㄴ. (기대) 밥을 먹으면(A) 배가 부르다(B).

밥을 먹으면 (A)	→	배가 부르다(B)
? (C)	→	**배가 부르지 않다(not-B)**

(2') ㄱ. 내일 비가 와도(A) 소풍을 갈 것이다(not-B).
ㄴ. (기대) 비가 오면(A) 소풍을 가지 않는다(B).

비가 오면 (A)	→	소풍을 가지 않는다(B)
? (C)	→	**소풍을 간다(not-B)**

(3') ㄱ. 철수가 붙잡아도(A) 영희는 떠났다(not-B).
ㄴ. (기대) 철수가 붙잡으면(A) 영희는 떠나지 않는다(B).

철수가 붙잡으면 (A)	→	영희는 떠나지 않는다(B)
? (C)	→	**영희는 떠난다(not-B)**

이처럼 양보에는 <A이면 B>와 <C이면 not-B>의 두 가지 연쇄가 존재하며 <A이면 B>가 부정됨으로서 양보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C이면 not-B>의 경우 부정되지 않는 것이나 언어화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하게 다룰 만하다.

언어화 방식에 대해서는 Azar(1997)에서 제시한 직접 부정(direct rejection)과 간접 부정(indirect rejection)을 참고할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4) ㄱ. True, his car had broken down(A), but since there is always public transportation(C), he could have gone to work(not-B). [Azar(1997: 312)의 예]

차가 고장나면	**(A)**	→	늦지 않을 수 없다(B)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C)**	→	**늦지 않을 수 있다(not-B)**

ㄴ. True, his car has broken down(A), but there is always public transportation(C). [Azar(1997: 310)의 예]

차가 고장나면	**(A)**	→	늦지 않을 수 없다(B)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C)**	→	늦지 않을 수 있다(not-B)

먼저 (4ㄱ)은 직접 부정(direct rejection)의 예이다. A와 not-B가 언어화된 것으로 기대를 직접 부정하고 있다. (4ㄴ)은 간접 부정(indirect rejection)의 예이다. 직접적으로 not-B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not-B에 관여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C가 언어화되어 간접적으로 B가 부정되고 있다. Azar(1997: 312)는 (4ㄴ)과 같은 간접 부정을 (4ㄱ)과 같은 직접 부정으로 다시쓰기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C이면 not-B>와 같은 연쇄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Azar(1997)와 같이 언어화 여부로 이들을 나눈다면 직접 부정으로 분류된 것들은 C절이 언어화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ㄷ)을 보자.

(4) ㄷ. True, his car had broken down(A), but he could have gone to work(not-B).

차가 고장나면	**(A)**	→	늦지 않을 수 없다(B)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C)	→	**늦지 않을 수 있다(not-B)**

(4ㄱ)과 (4ㄷ)은 모두 직접 부정에 해당하나, (4ㄱ)은 C가 언어화된 경우이고 (4ㄷ)은 C가 언어화되지 않은 경우다. (4ㄷ)과 같은 경우를 두고 완전 명세 직접 부정 정도로 구분하여 명명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양보의 구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언어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일한 언어화 양상을 한국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는 아래와 같다.

(5) ㄱ. 차가 고장났더라도(A) 너는 늦지 않을 수 있었다(not-B).

차가 고장나면	**(A)**	→	늦지 않을 수 없다(B)
?	(C)	→	**늦지 않을 수 있다(not-B)**

ㄴ. 차가 고장났더라도(A) 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C).

차가 고장나면	**(A)**	→	늦지 않을 수 없다(B)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C)**	→	늦지 않을 수 있다(not-B)

ㄷ. 차가 고장났더라도(A) 대중교통을 이용하면(C) 너는 늦지 않을 수 있었다(not-B).

차가 고장나면	**(A)**	→	늦지 않을 수 없다(B)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C)**	→	**늦지 않을 수 있다(not-B)**

(5)의 세 문장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언어화된 요소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5ㄱ)은 '늦지 않을 수 있는 것(not-B)'에 관여적인 C가 명세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직접 부정이다. 이때의 C는 문맥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것이거나 불특정한 것이다. (5ㄴ)은 '늦지 않을 수 있는 것'(not-B)은 언어화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 관여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C)이 명세되어 간접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5ㄷ)의 경우 C와 not-B가 모두 명세된 것으로 완전 명세 직접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양보는 일반적으로 절과 절 사이의 접속 관계의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나 단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6) ㄱ. <u>원숭이도</u>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박진호(2015: 406)의 예]

ㄴ. 이 문제는 <u>아인슈타인도</u> 풀 수 없다. [박진호(2015: 406)의 예]

(6ㄱ)의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물에, (6ㄴ)은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를 일종의 기대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부정하여 원숭이와 아인슈타인이 후행 사태의 성립과 비관여적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단문의 경우에도 양보의 정의에 알맞는 예들이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척도적) 첨가 초점사 '도, 조차, 마저' 등이 이러한 문장을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논의에서는 주로 두 절의 접속에서 나타나는 양보 표현을 주로 다루나, 일부 단문에서의 양보 표현도 포괄하여 다루도록 한다.

지금까지 양보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2.2절에서는 양보의 하위 부류인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설명하고 그 실현 유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2.2.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보'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조건적 양보'[2]와 '사실적 양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실적 양보는 사태가 사실인 것이며 조건적 양보는 사실인지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ㄱ. 어제 비가 {왔지만/왔는데도/왔음에도} 소풍을 갔다.
ㄴ. 내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올지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 [박진호(2012: 487)의 예]

2) '조건적 양보'로 지칭한 이 범주는 그동안 'concessive conditionals', 'irrelevance conditionals', 'hypothetical concessives'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 왔다. 한국어의 학계에서도 '양보적 조건'과 '조건적 양보'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자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자는 이 범주를 조건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는 입장을 후자는 이 범주가 양보의 내부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두 견해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접속 범주들은 다소 원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경계를 단절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보의 하위부류이면서 동시에 조건의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박진호(2012: 486)의 "[양보적 조건]은 조건과 양보의 교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언급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양보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조건적 양보'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ㄷ. (기대)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먼저 (7ㄱ)과 (7ㄴ)은 모두 선행절에서 발생하는 기대인 (7ㄷ)을 부정해 선·후행절의 사태가 비관여적임을 표현하고 있어 양보라 할 수 있다. 이때, (7ㄱ)의 '비가 오는 사건'과 '소풍을 간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사실적 양보에 해당한다. 반면 (7ㄴ)의 경우 '비가 오는 사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두 범주의 구분이 유용한 까닭은 각각에 사용되는 표현이 다르다는 데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조건적 양보에 주로 사용되는 요소로 '-더라도', '-ㄹ지라도' 등이 존재하고 사실적 양보에만 사용되는 요소인 '-지만, -고도'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서정섭 1991, 박진희 2011, 이순욱 2017 등).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도 확인되는데 단적인 예로, 영어의 경우 조건적 양보는 'even if'에 의해 주로 표현되며 사실적 양보는 'although', 'even though' 등의 접속사, 'in spite of' 등의 전치사, 'nevertheless', 'even so' 등의 접속부사 등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Haspelmath & König 1998: 566).

다만,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가 중화(neutralization)되는 맥락이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조건적 양보 표지가 사실적 양보 표지로 발달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첫 번째 중화의 맥락은 양보문이 나타내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이다.

(8) It was the loneliness of the neighbourhood, they supposed, that kept the

3) König(1986), Haspelmath & König(1998) 등에서 König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의 공통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우리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대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실성에 관련된 것이다. 즉, 조건적 양보의 주절은 항상 사실이며(semi-factual), 사실적 양보는 두 절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아, 주절이 사실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조건적 양보의 주절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Even if you drink just a little, your boss will fire you).

house next to theirs empty ... The house stood two hundred yards from the Bartlebys' and A. liked looking out of the window now and then and seeing it, <u>even if</u> it was empty. (Highsmith 1978: 6) [König(1986: 240)의 예]

(8)의 경우 조건적 양보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 'even if'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선 맥락을 통해 이미 빈집임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양보절과 주절은 모두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조건적 양보의 두 절은 맥락에 의해 모두 사실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조건적 양보 요소나 사실적 양보 요소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König(1986: 240)에서는 이러한 중화의 맥락을 통해 조건적 양보 표지가 사실적 양보 표지로 발달한 경우가 범언어적으로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9) English: *even though, even so*; German: *ob-wohl, ob-gleich, ob-schon, wenn-gleich, wenn auch*; French: *quand même*; Latin: *et-si*; Finnish: *joskin* ; Serbo-Croatian: *iako*; Malayalam: *-enkil-um*; Iranian: *(a)gartscheh*; Sotho(Bantu): *te ha*; Bahasa Indonesian: *wa-lau-pun*; etc.[4)]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 시기 '-어도, -고도'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모두 사용되나 현대 한국어에서 '-어도'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고도'는 주로 사실적 양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가 중화되는 맥락이 있는데, 임동훈(2009: 107-108)을 참고하면 형용사 뒤에서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가 중화되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한다.

---

4) 다만, 반대로 사실적 양보에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Haspelmath & König(1998)에 따르면 사실적 양보에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하는 언어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아울러, 조건적 양보는 거의 대부분 첨가 초점사와 조건과 관련된 표현의 복합으로 이루어지나 사실적 양보는 다른 어원을 가진 표현에 의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실적 양보에서 조건적 양보로의 발달보다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로의 발달을 상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

(10) ㄱ. 철수는 키가 **작지만** 힘이 세다.
ㄴ. 철수는 키가 **작아도** 힘이 세다.

(10)의 경우 동일한 두 절이 각각 사실적 양보 요소인 '-지만', 조건적 양보 요소인 '-어도'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는 맥락으로 보이나 조건적 양보 요소도 사용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형용사는 주어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건적 양보 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중세 한국어에 대해서는 사실적 양보인지 조건적 양보인지 판단하기가 특히 어렵다. 기준이 되는 '중립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모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예문을 사실적 양보 혹은 조건적 양보로 변별하는 것은 어려우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정도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12)을 보자.

(11) ㄱ. 비록 허러도(A) 내 일후믈 드르면(C) 도로 淸淨을 得ᄒᆞ야 모딘 길헤 아니 뻐러디게 호리라(not-B)(設有毁犯 聞我名已還得淸淨 不墮惡趣) <월석 9:17a-17b>
ㄴ. 王裒ㅣ 슬허 그위실 아니ᄒᆞ고 ᄂᆞᆷ 글 ᄀᆞᄅᆞ치고 이셔 님그미 세 번 브르시며 宰相이 닐굽 번 **블러도(A)** 다 아니 오고(not-B) 죽ᄃᆞ록 西ㅅ녁 向ᄒᆞ야 앉디 아니ᄒᆞ니라 (哀痛父非命 隱居敎授 三徵七辟皆不就 終身未嘗西向而坐) <삼강 孝15>

(12ㄱ)의 경우 비방하는 상황은 사실로 보기 어려워 조건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2ㄴ)의 경우 실제로 왕부가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사실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표현이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지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지를 엄밀하게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래 두

항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의 실현 양상을 범언어적 현상에 비추어 논의해 보도록 한다.

2.2.1. 조건적 양보의 실현 양상

먼저 조건적 양보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조건적 양보는 귀결절(apodosis)에 대응하는 다수의 전제절(protasis)을 상정하는 방식을 취해 두 사태나 지식이 비관여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Haspelmath & König 1998: 565).

If {a or b or c or d ...} then q

즉, a인 상황에도 후행절이 참이고 b, c, d 등인 상황(혹은 not-a인 상황)에도 q가 참임을 표현함으로써 a인 것과 관계없이 q가 성립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전제절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König(1986),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범언어적 주요 하위 유형(major subtype)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현대 한국어와 중세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실현 유형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중세 한국어에는 연결어미 '-ㄴ들', 대조나 양보로 기술되어 온 '-나$_2$', 아직 연구가 미진한 '-ㄴ뎡'류 표현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중 '-ㄴ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삼아 3.4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외에 '-나$_2$'의 경우 4.2절에서 다루며, '-ㄴ뎡'류 표현은 제5장에서 다룬다. 먼저 (12)를 통해 주요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ㄱ. <u>Even if you drink (only) a little,</u> your boss will fire you. [König(1986: 231)의 예]

ㄴ. <u>Whether he is right or not,</u> we must support him. [König(1986: 231)의 예]

ㄷ. <u>However much advice you give him,</u> he does exactly what he wants to do. [König(1986: 231)의 예]

(12ㄱ)은 'even'을 제외하면 '네가 (술을) 조금 마신다면 너의 상사가 너를 자를 것이다' 정도의 단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나 첨가 초점사(additive focus paticle)에 의해 양보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5] 이때 사용된 첨가 초점사는 'even'으로 초점화된 표현과 동일한 성질을 지닌 대안 집합이 존재하며, 동시에 초점화된 표현이 가장 극단적인 값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Karttunen & Peters 1979). (12ㄱ)에 이를 적용하면, 'even'의 초점은 'a little' 정도에 해당하는 듯하다. 이에 조금 마시는 상황은 가장 극단적인 값에 해당해 그런 상황에도 상사가 그를 자른다면, 그보다 낮은 정도의 상황인 '어느 정도 마신 상황', '많이 마신 상황' 등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척도 함축한다. 결국 얼마나 마시는지와는 비관여적으로 (마시기만 하면) 후행절은 항상 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첨가 초점사는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13)과 같이 첨가 초점사 'even'이 더 넓은 초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13) The match will be on, <u>even if it is raining</u>. [König(1986: 240)의 예]

(13)의 경우 전제절 전체를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처럼 이접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표면에 이접지가 나타나지 않아 첨가 초점사 양보로 포괄하여 다루도록 한다.[6]

---

5) 이러한 양보 유형은 첨가 초점사나 강조 초첨사 단독 혹은 첨가 초점사나 강조 초첨사와 조건/시간 연결사의 복합(Focus particle/emphatic particle and/or conditional/temporal conjunction)에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범언어적으로는 영어의 'even if, even though', 'even so', 독일어의 'ob-gleich', 'ob-wohl', 라틴어의 'et-si', 그리스어의 'ei-kai', 프랑스어의 'quand même, lorsque même', 일본어의 'keredomo', 말레이어의 '-enkil-um', 터키어의 'cond de' 등이 있다.

6) König는 조건적 양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절의 명제가 함의(entail)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존재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예외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두 가지 초점사 양보를 구분하는 것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르면, 'even'의 영향권이 넓은 경우와 좁은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항상 주절의 명제가 사실이나 후자는 아닌 경우가 존재하며 그것은 내용 층위(content level)인 경우가 그렇다고 한다. 본 논의에서는 주절의 사실성 및 그 예외에 대한 논의가 유용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깊게 다루지 않고 초점사

(12ㄴ)은 대안 조건(alternative condtionals)에 관계된 것이다. 이 유형은 둘 이상의 대안적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된 상황에서 모두 후행절 사태가 성립함을 표현함으로서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7] 구체적으로 (12ㄴ)에서는 '그가 옳음'과 '옳지 않음' 두 대안 조건을 나열하였고 두 경우 모두 그를 도울 것임이 표현되었다. 즉, A와 not-A인 상황 모두에서 후행절이 참임이 표현된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A와 not-A가 아닌 A의 열거로 이루어진 경우도 찾을 수 있다.

(14) ㄱ. [아인슈타인]이든(A1), [닐스 보어]든(A2)[8]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
ㄴ. [아인슈타인]이든(A1), [동네 바보]든(A2)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

(14ㄱ)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들의 대푯값인 '아인슈타인'(A1)과 비슷한 가능성을 가진 '닐스 보어'(A2)가 나열되었다. (14ㄴ)의 경우는 가장 문제를 풀 확률이 높은 대상인 '아인슈타인'(A1)과 가장 낮은 대상인 '동네 바보'(A2)가 나열되었다. 이러한 대푯값들의 나열을 통해 모든 사태를 총망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떤 사람이건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2ㄷ)은 자유 선택사(universal/free choice quantifier)와 관계된 것이다.[9] 이러한 양보는 전제절에 있는 변항에 어떤 것이 오든 후행절이 항상 참이 됨을 표현함으로서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Haspelmath & König(1998: 570)에서는 이러한 자유 선택사는 일반적인 보편 양화사와는 다르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표현(ever ..)과 비한정사(wh- ..)가 결합

양보로 포괄한다.

7) 이 유형의 경우도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된다. 조건 표현에 기초한 레즈기어의 '... V-t'a-ni ... V-t'a-ni', 라틴어의 'sive ... sive', 내포 의문절을 이용하는 영어의 'whether ... or ... ', 가정이나 기원 표현에 기초한 아르메니아의 'V_{SUBJ} t'e V_{SUBJ}' 등이 있다.

8) 닐스 보어: Niels Bohr. 덴마크의 물리학자. 1922년 원자구조론 연구 업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9) 이러한 유형은 범언어적으로 영어의 'although', 'albeit', 'however'와 독일어의 'bei all', 'allerdings', 라틴어의 'quamquam', 프랑스어의 'toutefois', 'tout ... que', 'bienque', 헝가리어의 'habär' 등에서 발견된다.

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12ㄷ)의 경우 그에게 주는 조언의 양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다. 이에 조언을 얼마나 해주든 후행절은 명제가 항상 성립함이 표현되었다.

본고에서는 (12ㄱ)과 같은 유형을 첨가 초점사 양보, (12ㄴ)과 같은 유형을 대안 조건적 양보, (12ㄷ)과 같은 유형을 자유 선택사 양보라 부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15) ㄱ. <u>아인슈타인이 풀어도(A)</u> 이 문제는 풀 수 없다(not-B). [윤평현(1989: 45)의 예]
(기대) 아인슈타인이 풀면(A) 이 문제는 풀린다(B).
ㄴ. <u>당신이 먹었든지(A) 안 먹었든지(not-A)</u> (간에) 음식값은 당신이 치러야 한다(not-B). [윤평현(1989: 57)의 예]
(기대) 음식을 먹으면(A) 음식값을 치러야 한다(B).
ㄷ. <u>무슨 일을 맡겨도(A)</u> 철수는 항상 훌륭하게 해낸다(not-B).
(기대) 일을 맡기면(A) 항상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B).

(15ㄱ)은 첨가 초점사 양보에 해당한다. 이때의 첨가 초점사는 연결어미 '-어도'의 일부인 '도'에 해당한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풀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으로, 그가 못 푼다면 그보다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15ㄴ)은 대안 조건적 양보다. 서로 반대되는 두 상황이 이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상황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값을 치러야 한다'는 후행절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15ㄷ)은 자유 선택사 양보다. 비한정 대명사 '무슨'과 초점사 '도'의 복합으로 인해 선행절은 철수에게 맡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망라하게 된다. 그런 상황들의 사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철수가 그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것'(not-B)은 항상 참이 된다.

이는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 (16)과 같다.

(16) ㄱ. <u>믜리 보ᄉᆞ바도(A)</u> <u>깃ᄉᆞ바ᄒᆞ리어니(not-B)</u> ᄒᆞᆯ며 내 恭敬 아니ᄒᆞᄉᆞ보리여ᄒᆞ고(怨見尚歡喜 況我當不敬) <월석 4:34b-35a>
(기대) 미워하는 이가 보면(A) 기뻐하지 않는다(B).

ㄴ. 舍利弗아 善男子ㅣ어나(A1) 善女人이어나(A2) 이 經 듣고 바다 디니ᄂᆞᆫ 사ᄅᆞᆷ과 諸佛ㅅ 일훔 듣ᄌᆞᄫᆞᆫ 사ᄅᆞᄆᆞᆫ 다 一切 諸佛이 護持ᄒᆞ야 닛디 아니ᄒᆞ샤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예 므르디 아니ᄒᆞ리라(not-B)(舍利弗 若有善男子 善女人 聞是經受持者 及聞諸佛名者 是諸善男子 善女人 皆爲一切諸佛共所護念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월석 7:75a-75b>

(기대) 모든 사람이(A) 불퇴전을 얻지는 못한다(not-B).

ㄷ. 아못 일도(A) 잘 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not-B) 師ㅣ라 ᄒᆞᄂᆞ니 相師ᄂᆞᆫ 相 잘 보ᄂᆞᆫ 사ᄅᆞ미라 <월석 2:46a>

(기대) 일을 맡기면(A) 항상 잘 해낼 수 없다(B).

(16ㄱ)의 경우 첨가 초점사 양보다. 먼저 '미워하는 이'가 보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 선행절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워하는 이'는 기뻐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상이다. 이에 '미워하는 이'가 기뻐한다면 다른 대안 집합의 대상들은 모두 기뻐하게 될 것이다. (16ㄴ)는 대안 조건적 양보다. 대안 조건으로 선여인과 선남자를 제시했다. 이들은 대푯값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들을 이접으로 연결함으로써 총망라성을 얻을 수 있는 듯하다. 이에 누구인지 관계없이 후행절은 참이 된다. 마지막으로 (16ㄷ)은 자유 선택사 양보다. (16ㄷ)과 동일하게 비한정 대명사와 초점사 '도'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는 경우 '師'라는 것이 표현되었다.

본고에서는 첨가 초점사 양보로 '도, ㅋ, -어도, -고도, -ㅅ{雖}ㅐ'를, 대안 조건적 양보로 이접 표현 '-나$_1$, -ㅋ$_1$, 이나'과 연접 표현 '-여, --ㅜ(ㅣ), -며'를, 자유 선택사 양보로 '아모' 계열 비한정사와 '나, 도'의 복합 구성, '현마, 현' 등과 '-어도, -고도, -ㄴ들'의 복합 구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외에 현대 한국어의 '-ㄴ들', 중세 한국어의 '-ㄴ들'과 같이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포함하기 어려운 조건적 양보 표현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는 이 표현들이 기원적으로 조건에서 발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3.4절에서 논증할 것이다). 이때, 조건과 조건적 양보는 인접한 범주로 동일한 형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중 조건문의 주절이 의문문의 형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ucrot 1972: 171; König 1986: 238). 예를 보도록 한다.

(17) Will you take the car if the roads are icy? [Ducrot(1972: 171)의 예]

(17)은 단순 조건문의 형식을 보이나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문이다. 단순 조건문이라면 '도로가 얼어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런 경우에 '차를 탈 것인지' 묻는 문장이 된다. '도로가 얼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차를 타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혹은 Atlas & Levinson(1981)의 정보성의 원칙(principle of informativeness)을 고려한다면, 화청자가 이미 아는 정보를 묻고 답할 이유가 없다. 더 정보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도로가 얼어있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들을 상정하여 그런 경우들과 관계없이 차를 탈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 조건문의 주절에 의문문이 온다면 조건적 양보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의문형 종결을 요구하는 '-ㄴ들, -ㄴ둘'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조건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주절에 의문절이 오는 경우를 교량으로 조건적 양보로 의미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3.4절에서 상술한다). 따라서 절을 분리하여 3.4절에서 조건에서 발달한 유형으로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3] 중세 한국어 조건적 양보 표현

	후기 중세	전기 중세
첨가 초점사 양보	-어도, -고도, 도	-ㅅ{雖}ㅐ, ㄱ
대안 조건적 양보	이나, -나$_1$, -며, -여	-ㄱ$_1$, -ㅡ(ㆍ)
보편 양화사 양보	'아모' 계열 + '도', 이접 표현 '현마, 현' + '-어도, -고도, ㄴ둘'	-
조건-의문형 양보	-ㄴ둘	-

2.2.2. 사실적 양보의 실현 양상

조건적 양보의 경우 세 가지 주된 실현 방식이 있었다면, 사실적 양보의 주된 실현 방식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양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A와 not-B가 모두 사실임을 단언함으로써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기술 및 분류하고 기원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 온 듯하다. 우리의 경우도 중세 한국어에서 어떤 요소가 이러한 사실적 양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범언어적인 사실적 양보 표현을 조사, 분류한 König(1985, 1988, 2006)를 참고한다.

(18) ㄱ. 자유 선택사(universal/free choice quantifier)[10]
ㄴ. 첨가초점사/강조사와 조건적/시간 연결사(Focus particle/emphatic particle and/or conditional/temporal conjunction)[11]
ㄷ. 공존,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표현(Remarkable co-occurrence/co-existence)[12]
ㄹ. 인간 행위주나 경험주에 적용되는 개념을 가진 표현(notions such as 'obstinacy,' 'contempt,' and 'spite,' that is, from notions originally applicable only to human agents or experiencers)[13]

---

10) 영어의 'although, albeit, for all, all the same, however', 독일어의 'bei all, allerdings, wiewohl', 라틴어의 'quamquam', 프랑스어의 'toutefois, tout ... que, (com)bienque', 핀란드어 'vaikka', 헝가리어의 'habär' 등
11) 영어의 'even though, even so' 독일어의 'ob-gleich, ob-wohl, ob-schon, wenn-gleich, wenn ... auch', 라틴어의 'et-si', 그리스어의 'ei-kai' 프랑스어의 'quand même, lorsque meme' 핀란드어의 'jos-kin, sitten-kin', 일본어의 'keredomo', 말레이어의 '-enkil-um', 터키어의 'cond + de' 등
12) 영어의 'nevertheless, notwithstanding, just the same, regardless, still, yet', 독일어의 'dennoch', 라틴어의 'nihilominus', 프랑스어의 'cependant, n'empêche que' 스페인어의 'aunque', 터키어의 'iken, bununla beraber', 헝가리어의 'mégis' 등

ㅁ. 기원적으로 '사실' 등의 의미를 가진 강조적 단언 표현(expressions originally used for emphatic affirmation, Expressions with the original meaning 'true', 'indeed', 'fact,' or 'well')[14]

이러한 5가지 유형 중 (18ㄱ), (18ㄴ) 두 유형은 조건적 양보에서 발달한 것이다. 앞서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가 중화되는 맥락을 제시한 바 있다. (18ㄷ)은 함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8ㄹ), (18ㅁ)은 의미 탈색(bleaching)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의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표현을 분류해 보도록 한다. 중세 한국어에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는 (18ㄴ)과 같은 '-어도, -고도' 등의 조건적 양보 표현이다. 이들은 조건적 양보 표현이나 일부 맥락에서 중화되어 사실적 양보로도 사용되는 것이며 사실적 양보로 완전한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적 양보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두 번째로, 현대 한국어의 '-ㄹ지언정', 중세 한국어의 '-ㄴ뎡', '-디빙'와 같은 표현들도 사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중세 한국어의 '-ㄴ뎡'류 표현과 '-디빙'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분류가 어렵다. 이에 따로 제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배경 제시 연결어미와 대조 연결어미가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배경 제시 연결어미다. 배경 제시는 의미 범주 중 하나로, '화자가 선행절에서 후행절의 사태를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은경 1996: 206)이라 할 수 있다. 박진희(2011: 77)에서는 이에 대해 후행절에서 설명할 개념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과 후행절에 나타난 행위 내용이나 판단의 토대인 '전제'로 나눌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예는 아래와 같다.

---

13) 영어의 'in spite of, despite', 프랑스어의 'en dépit de, au mépris de', 독일어의 'trotz, trotzdem', 스페인어의 'a pesar de', 네덜란드어의 'ondanks', 아랍어의 'ragman', 터키어의 'rağmen' 등

14) 영어의 'true', 독일어의 'zwar', 라틴어의 'quiden', 프랑스어의 'certes, avoir beau', 헝가리어의 'ugyan', 일본어의 'no ni', 캄보디아어의 'dbyt, dbyt-tae', 나와틀어(Nahuatl)의 'in-tlá-nel, im-ma-nel' 등

(19) ㄱ. 또 건단(乾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물에 넣지 않은 것으로 곧 냉도의 종류이다. (세종) [박진희(2011: 78)의 예]

ㄴ. 향교와 서원의 건축은 의식을 중요시하는 공간구성을 보이는바, 그 둘을 비교하여 서술하라. (세종) [박진희(2011: 78)의 예]

(19ㄱ)은 '제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19ㄴ)은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다.[15]

배경 제시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다른 범주들에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의미론적, 화용론적 인과, 추론 관계가 있는 반면, 배경 제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이은경(1996)에서는 배경 제시를 '부가·독립적 의미 관계'라는 범주로 묶은 바 있다.[16]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배경 제시를 직접 경험이나 지각의 증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술한 박진희(1996: 83-88)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제시의 두 특성은 현저한 공존이나 동시 발생 유형(18ㄷ)과 유사해 보인다. 이 유형은 동시성, 동반성 정도의 의미를 보이는 요소가 특정 맥락에서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교량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이때의 특정 맥락이란 두 절이 모두 사실이고 두 절이 양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유사한 표현인 등위접속사 'and'가 양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17]

---

15) 배경 제시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원인, 이유, 목적, 조건 등 선·후행절의 관계가 전경과 후경의 관계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배경 제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명제에 대한 문맥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로 좁은 의미의 것이다(박진희 1996: 77 참고).

16) 이은경(1996)의 부가·독립적 의미 관계의 내부에는 '나열, 대조, 선택, 배경'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형론적 연구인 Sohn(2009)과 유사한데, 그는 'addition'의 내부에 'unordered addition'(-고, -으며), 'same-event addition'(-거니와, -고, -느라고 등), 'elaboration'(-ㄴ데, ㄴ즉), 'contrast'(-건만, -마는, -으나, -어도)를 포함시킨다.

17) König(1985: 274)에서는 등위 접속사(coordinating conjunction) 'and'와 'Adj as NP be' 구성, 접속사 'when, while', 부사 'at the same time', 프랑스 구문 'tout en V-ant' 및 러시아어/이탈리아어의 부사적 분사 등을 제시하였다.

(20) ㄱ. I have to do all this work **and** you are watching TV. [König(1985: 278)의 예]
ㄴ. Fred is reading **and** Mary is watching TV. [König(1985: 278)의 예]
ㄷ. 처음 **만나고(/도)**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니? [임동훈(2009: 110)의 예]
ㄹ. 財寶 업소ᄆᆞᆯ 가난타 니ᄅᆞ고 **빅호고** 行티 몯ᄒᆞ릴 病이라 니ᄅᆞᄂᆞ니 <남명 上:30b>

(20ㄱ), (20ㄴ)의 'and'는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다. (20ㄷ)은 한국어의 예로 '-고'가 문맥이 갖춰질 때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예인 (20ㄹ)의 '-고'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어의 배경 제시 관계의 경우도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저한 공존이나 동시 발생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배경 제시에서는 두 사태가 사실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서로 양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사태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올 경우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21) ㄱ. 고개를 넘으면 길가에 폐가가 하나 **나오는데**, 훔친 물건들을 그 집 헛간에 다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ㄴ.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도)(A)** 운이 따라주었는지 시험에 붙었어요(not-B).
(기대)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A) 시험에 붙지 못한다(B).

(22) ㄱ. 그저긔 夫人이 나모 아래 **잇거시ᄂᆞᆯ** 네 우므리 나니 <월석 2:42>
ㄴ. **말이숩거늘(A)** 가샤(~B) 깊 ᄀᆞ새 軍馬 두시고 네 사ᄅᆞᆷ ᄃᆞ리샤 셕슬 치자ᄇᆞ시니(止之亦進 路畔留兵 逐率四人 按轡而行) <용가 58上>
(기대) (가지 말라고) 말리면(A) 가지 않는다(B).

(21)은 현대 한국어의 '-ㄴ데'의 예이고, (22)은 중세 한국어 '-거늘'의 예이다. (21ㄱ)과 (22ㄱ)은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ㄴ)과 (22ㄴ)은 넓은 의미의 배경 제시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기대의 부정이 발견되어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양상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연결어미 '-거늘'은 15세기에 주로 배경 제시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한국어 사전 기술에서는 대조나 역접으로만 기술되곤 한다. 아래의 '-거늘'은 <고려대한국어사전>의 기술이다.

-거늘 「어미」

「1」 용언이나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옛 말투로 쓰인다.

밖엔 봄빛이 완연하거늘 집안은 여전히 싸늘하다.

「2」 용언이나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두 대응되는 사실을 대립시켜 앞의 사실로 미루어 뒤의 사실이 마땅함을 나타내는 말. 주로 수사 의문문에서 옛 말투로 쓰인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하거늘 어찌 고향 산천인들 변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거늘'의 경우 앞서 제시한 맥락에서 자주 쓰이다가 양보 혹은 대조로 의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18]

관련하여 기원적으로 사실의 의미를 지닌 강조 단언 표현 유형(18ㅁ)도 한국어의 양보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는 '-거늘'과 같이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거-'를 포함하는 것이 많은데, 이 '-거-'를 확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서법 범주 '확인법'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실적 양보를 이해하는 데에 (18ㄷ)과 (18ㅁ)과 같은 유형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대조의 연결어미다. 대조는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윤평현 1989: 59) 접속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대조 표현도 사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Lakoff(1971: 129)에 따르면, 영어의 'but'은 대조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기대의 부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

18) 추가로 석독구결의 연구인 김지오(2012)에서도 '-ㅣㅡ'가 ①배경 상황 제시, ②설명·부연, ③대립 또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며 배경 제시가 다른 의미 관계에 비해 느슨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 다른 의미로 쉽게 전이되어 쓰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23) ㄱ. John is tall <u>but</u> Bill is short.

ㄴ. John is tall <u>but</u> he is no good at basketball. [Lakoff(1971: 129)의 예]

(23ㄱ)의 경우 'tall-short' 사이의 의미론적인 반의관계를 찾을 수 있다. 반면, (23ㄴ)은 반의관계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기대의 부정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 이러한 대조도 (19ㄷ)의 현저한 동시발생 유형과 관계될 수 있다.[19]

한국어의 경우도 '-나$_2$, -지만' 등 대조의 연결어미가 양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하여 이은경(1996: 203-204)의 경우 '주어가 다르고 서술어가 반의관계인 경우', '주어가 다르고 다른 요소가 대조되며 서술어는 동일한 경우', '주어는 동일하나 다른 요소가 대조되며 서술어가 반의관계인 경우' 세 가지를 의미론적 대조로, 맥락의 도움을 받아 기대의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화용론적 대조로 구분한 바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24) ㄱ. 철수는 <u>크지만</u> 영희는 작다.

ㄴ. 철수는 <u>가난하지만</u> 꿋꿋하다. [이은경(1996: 203-204)의 예]

ㄷ. (기대) 가난하면 꿋꿋하지 못하다.

(24ㄱ)에는 '크다-작다'의 명시적인 반의관계가 보인다. 이런 경우를 의미론적 대조라 할 수 있다. 반면, (24ㄴ)의 '가난하다-꿋꿋하다'의 관계는 의미론적 반의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용론적 해석에 의존하여 (24ㄷ)과 같은 기대를 상정해 설명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 이처럼 대조의 연결어미가 기대의 부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겠다.

현대 한국어의 '-나$_2$'는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고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나$_2$'가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된 경우가 있다(박진호 2012: 487).

---

19) 제2장 각주 16)에서 다룬 바와 같이 '나열'과 '대조'는 '부가'(addition)로 묶어서 설명될 수 있다.

(25) ㄱ. 이런ᄃᆞ로 네 이제 비록 해 드로ᄆᆞᆯ **得ᄒᆞ나** 聖果ᄅᆞᆯ 일우디 몯ᄒᆞ니라(是故로 汝ㅣ 今에 雖得多聞ᄒᆞ나 不成聖果ᄒᆞ니라) <능엄 1:91b>

ㄴ. 天子ㅣ 간ᄒᆞᄂᆞᆫ 신하 닐굽 사ᄅᆞᆷ을 두면 비록 道ㅣ **업스나** 그 天下를 일티 아니ᄒᆞ고(天子ㅣ 有爭臣七人이면 雖無道ㅣ나 不失其天下ᄒᆞ고) <소학 2:71a> [박진호(2012: 487)의 예]

(25ㄱ)의 경우 부사 '이제', 원문의 '今'을 고려할 때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것이다. (25ㄴ)의 경우 '천자가 간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면'은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현대 한국어로 (25ㄴ)을 환언하면 '-나$_2$'가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의 '-나$_2$'의 기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5') ㄴ. ?천자가 간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면 비록 도가 없으나 그 천하를 잃지 않고[20]

그러나 이러한 예문을 후기중세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두 문헌인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빈도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것은 '-나$_2$' 때문이 아니라 조건문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잠정적으로 사실적 양보 '-나$_2$'의 특수한 예로 다루도록 한다.[21]

지금까지 중세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사실적 양보를 유형론에 비추어 분류해 보았다. 배경 제시에서 발달한 유형을 배경 제시의 양보적 쓰임, 대조와 관계된 요소를 대조의 양보적 쓰임 정도로 부를 것이다. 전자의 경우 '-거늘, -건마ᄅᆞᆫ, -니, -오ᄃᆡ, -ㄱㄹ, -ㄱ/ㅁㅡ, -ㄱ/ㅁㅣ, -ㅎㅁㅡ'를, 후자의 경우 '-나$_2$, -ㅎ$_2$, -거니와'를

20) 다만, 현대 한국어의 사실적 양보 표현 '-고도'도 조건적 양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도 '-나$_2$' 대신 '-고도'가 들어가면 적격문이 되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4.2절에서 상술한다.

21) 전기 중세 한국어의 '-ㅎ$_2$'의 경우도 조건적 양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석독구결 문헌에서 대조와 양보로 기술되는 '-ㅎ$_2$' 자체의 용례가 매우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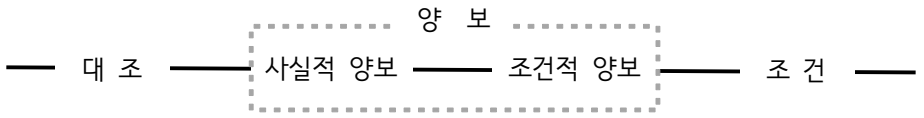
다루었다.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 중세 한국어 사실적 양보 표현

	후기 중세	전기 중세
배경 제시의 양보적 해석	-거늘, -건마ᄅᆞᆫ, -니, -오ᄃᆡ	-ㄱㄹ, -ㄱ/ᄀᆞᆫ, -ㄱ/ᄀᆞᆷ, -ㅭᄀᆞᆷ
대조의 양보적 해석	-나$_2$, -거니와	-ㅿ$_2$

2.3. 양보와 인접 범주의 관계

지금까지 양보의 정의, 기대 부정의 구조,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양보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범언어적인 '양보' 범주의 존재 자체는 세계언어학계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König 1985; Rudolph 1996; Haspelmath & König 1998; Xrakovski 2012). 그러나 다른 범주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개념 공간에서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듯하다. 더 나아가 2.2절에서 살펴보았듯 양보 표현은 다른 범주에 쓰이던 표현들이 의미 변화를 겪어 만들어지거나, 다른 요소와의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접 범주와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리는 박진호(2012: 486)와 같이 개념 공간을 "[대조]-[양보]-[양보적 조건]-[조건]"과 같은 사슬 구조(chain structure)로 되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바이다. 본고의 용어로 수정해 단순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문장 접속의 개념 공간 (일부)

Comrie(1986)에서는 조건과 기타 인접 범주들의 식별에 대해 필요충분조건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이 아닌 원형(prototype)의 관점에서 구성을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2] 인접한 범주의 경우 개념적으로 공통점을 보이며 동일한 표현이 두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23] 양보의 경우 조건적 양보와 조건이 공통점을 공유하고, 대조와 사실적 양보가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실적 양보와 대조의 유사성은 2.2.2항에서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본고의 논의를 펴나가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메타언어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대조는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윤평현 1989: 59) 접속 관계로 정의된다고 했다. 이때, 이은경(1996)과 같이 대조를 의미론적 반의관계에 기초한 의미론적 대조와 기대의 부정으로 해석되는 화용론적 대조로 양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이러한 분리 자체는 동일하지만, 화용론적 대조를 대조에서 분리해 양보라는 큰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만, 원형의 관점에서는 의미론적 대조는 대조의 중심적 부분에,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는 주변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에 해당하는 것은 대조에도 속할 수 있고 양보로 떼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는 양보를 다루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화용론적 대조를 사실적 양보라고 부르고 의미론적 대조는 대조라고 부르도록 한다.[24]

다음으로는 조건적 양보와 조건의 관계에 대해 부연하도록 한다. 조건적 양보와 조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형태론적 유사성과 의미적 유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형태적 유사성은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 표현이 대부분 조건 표현을 포

---

22) 인간의 언어가 단선(單線)적이지 않고, 인접한 요소가 서로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보인다는 점은 Rosch(1975)의 원형성(原型性) 실험에서 밝혀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3) 특히 '양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해 König(2006)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어린아이가 가장 늦게 배우는 범주', '문어 형식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양보가 다른 접속 관계보다 후천적으로 생겨났고 문법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다른 문법 요소로부터 발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대조, 조건 등의 문법 요소를 내부에 포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4) 다만, 일부 맥락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의미론적 대조라는 메타언어도 사용할 것이다.

함하고 있으며 조건에서 의미 변화를 겪어 만들어진 조건적 양보 표현이 발견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 각주 5)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단적으로 영어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양보 연결어미 'even if'와 'even though'는 조건에서 발달한 것이며 기원적으로 첨가 초점사 'even'과 조건/시간 연결사 'if', 'though'로 구성되었다.

의미적 유사성의 경우 먼저는 조건적 양보를 조건문의 복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26)을 통해 알 수 있다.

(26) ㄱ. Even if we do not get any financial support, we will go ahead with our projects. [Haspelmath & König(1998: 563)의 예]

ㄴ. If we get some financial support we will go ahead with our project and if we do not get any financial support we will (still) go ahead with our project. [Haspelmath & König(1998: 565)의 예]

Haspelmath & König(1998: 563)에 의하면 (26ㄱ)과 같은 조건적 양보는 (26ㄴ)과 같은 조건문의 연접으로 다시쓰기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조건적 양보와 조건이 중화되는 맥락이 적어도 세 가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조건과 조건적 양보의 유사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앞서 2.2.1항에서 주절에 의문문이 오는 경우를 살펴본 바 있다. 아래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보도록 한다.

(27) ㄱ. If you drink (but/only just/so much as/even) a drop of alcohol, your boss will fire you. [König(1986: 236)의 예]

ㄴ. If Calvin was still holding her hand, she could not feel it. [König(1986: 239)의 예]

(27ㄱ)은 단순 조건문처럼 보이나, 척도적 극단값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이 등장해 양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다. (27ㄴ)은 주절에 if절에 있는 대상에 대한 조응적 지시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흔히 조건적 양보로 해석된다고 한다.

이처럼 조건적 양보와 조건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두

가지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윤평현(198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건이 하나의 상황만을 제시하는 폐쇄적 가정에 해당한다면 조건적 양보는 복수의 상황을 제시하는 개방적 가정이라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기대의 부정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있다. 아래 한국어의 예를 보도록 한다.

(28) ㄱ. 비가 오면, 떠나겠다(조건).
ㄴ. 비가 와도, 떠나겠다(양보). [윤평현(1989: 44)의 예]

(28ㄱ)은 단순 조건문으로 비가 오는 상황을 가정해 그 경우 떠날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 (28ㄴ)은 조건적 양보로 비가 오는 상황 외에 다른 상황에도 떠날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28ㄱ)에서는 기대가 부정되지 않으나 (28ㄴ)에서는 기대의 부정이 발견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제2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양보의 핵심 개념은 기대의 부정과 비관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양보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실현 방법이나 어떤 표현이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사실적 양보는 대조와 조건적 양보는 조건과 개념공간 상에서 맞닿아 있으며 구분이 어렵거나 중화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양보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조건적 양보

본 장에서는 조건적 양보 표현을 살펴본다. 중세 한국어에서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는 첨가 초점사, 대안 조건의 나열, 비한정 대명사와 첨가 초점사의 복합, 의문형의 조건문 등이 있다.[1] 이들은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 연구 목적이 양보문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었다.[2] 우리는 이들을 묶어 조건적 양보라는 표찰(label)을 추가하는 한편, 보편 언어에 비추어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내부 구조가 해명되지 않았던 요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제안한다.

3.1. 첨가 초점사 양보

첨가 초점사 양보는 첨가 초점사를 이용해 두 지식이나 사태가 비관여적임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먼저 초점사(focus particle)는 어떤 표현을 초점화하여 다른 선택 후보들(alternatives)과 일정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요소다. 첨가 초점사(additive focus particle)는 초점이 된 표현과 대안 집합이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3] 이때의 'additive'는 상정된 대안 집합에 초점화된 표현을 추가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첨가 초점사는 '도'이며 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먼저 기본적인 기능은 (1)과 같은 단순 첨가의 기능이다.

---

1) 이외에 대조로 기술되어 온 '-나$_2$'와 보충 표현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각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룬다.

2) '도'의 "역동"과 "양보"의 기능이 현대는 물론 중세 한국어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은 이현희(1995: 528), 하귀녀(2005: 69) 등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하귀녀(2005: 254)의 보조사 '이나'를 다루는 부분에서 대안 조건적 양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다루어진 바 있다. 박진호(2007: 141)에서 비한정 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자유 선택사 양보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다룬 바 있다.

3) 영어의 'even, also', 네덜란드어의 'zelfs', 츄바시어의 'ta', 일본어의 'mo'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된다. 한국어에는 '도, 마저, 까지, 조차' 및 '심지어, 역시' 등이 있다.

(1) ㄱ. (다른 학생들뿐 아니라) **철수도** 시험에 합격했다. [박진호(2015: 378)의 예]
ㄴ. (전제) 철수 외의 사람 중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

(1ㄱ)은 (1ㄴ)과 같이 철수 외에 '시험에 합격한' 속성을 공유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전제한다.[4] 이런 경우 단순 첨가라 할 수 있으며 기대의 부정이나 비관여성이 발견되지는 않으므로 양보문이라 할 수는 없다.[5]

다른 하나는 (2)의 척도적 기능이다.

(2) ㄱ.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박진호(2015: 406)의 예]
ㄴ. (전제) 원숭이 외의 생물 중에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생물이 있다.
ㄷ. (척도 함축) 누구든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ㄹ. (기대) 원숭이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2ㄱ)에서도 원숭이 외에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속성을 공유하는 대상이 있음을 전제한다. 다만, (2ㄱ)은 척도 함축을 추가로 보인다. 원숭이는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척도상의 마지막 항이 된다. 이에 성립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사태가 성립함을 나타내고 있다(박진호 2015: 406). 이와 같이 척도성이 확보되는 경우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더하여 현대 한국어의 경우 기원적으로 첨가 초점사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어미('-어도, -고도' 등)들도 존재한다.[6] 첨가 초점사와 평행하게 이들의 경우도 단순 첨가

---

4) 물론 '철수'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적은 아이라는 맥락이 주어지면 끝값으로 볼 수도 있다.
5) 다만, 본고에서는 접속문에서 첨가 초점사가 단순 첨가나 척도적 기능을 보이는 경우 모두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사구에 결합하는 첨가 초점사가 비척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평행하게 양보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본고는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도 아니며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그러한 용례를 발견하지는 못한바 판단을 유보한다.
6) 관련하여 Haspelmath & König(1998: 584)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첨가 초점사가 양보 연결사의 발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even if, even though', 프랑스어의 'quand meme', 일본어 'fut-te-mo' 등이 있다.

와 척도적 기능을 보인다. '-어도'의 예를 들면 다음 (3), (4)와 같다.

(3) ㄱ. 비가 **와도(A)** 소풍을 갈 것이다(not-B).
ㄴ. (전제) 비가 오는 상황 이외에 소풍을 가는 상황이 있다.
ㄷ. (기대)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3ㄱ)의 경우 첨가 초점사가 단순 첨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3ㄴ)과 같이 첨가 초점사는 선행절 전체를 초점으로 하여 '비가 오는 것'에 대한 대안 조건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이때 상정되는 대안 조건은 비척도적인 것으로 보인다.[7] 이에 '비가 오거나(A), 오지 않거나(not-A)'와 같이 대등한 대안 조건의 나열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상정된 대안 조건들에 관계없이 후행절 명제가 성립하므로, 양보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척도적 기능이다.

(4) ㄱ. 아인슈타인이 **풀어도(A)**, 이 문제는 풀 수 없다(not-B). [윤평현(1989: 45)의 예]
ㄴ. (전제) 아인슈타인 이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이 있다.
ㄷ. (척도 함축)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ㄹ. 아인슈타인이 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4ㄱ)의 경우 먼저는 (4ㄴ)과 같은 전제를 보인다. 이때, 선행절 명제의 일부인 '아인슈타인'은 척도적 극단값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풀 수 없는 가능성이 가장 적은 척도상의 마지막 항에 해당한다. 이에 그보다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경우를 모두 망라하게 되어 문제를 푸는 것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문제를

7) 다만, 이 경우 '비가 오는 경우'를 맥락상 극단값으로 파악하는 직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4ㄱ)과 동일하게 이해될 것이다. König는 이러한 용례가 대안 조건적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그런 경우에도 척도적 극단값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비척도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풀 수 없다는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현대 한국어에서 첨가 초점사는 단독으로 혹은 연결어미의 구성요소로서 양보 실현에 관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의 경우도 첨가 초점사가 존재하며 동일하게 양보 실현에 관여한다. 먼저 첨가 초점사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후기중세의 '도'와 전기중세의 'ㅏ'(와 'ㅓ')[8]가 있다. 이에 하나의 항으로 묶어 다룰 것이다. 또한 후기중세에도 '-어도', '-고도'와 같은 구성이 발견되어 하나의 항으로 다룰 것이다. 다만, 현대 한국어의 '-어도'와 '-고도'는 하나의 연결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현희(1995: 528)에 의하면 15세기의 '어도'와 '고도'는 엄밀하게는 어미로 파악되기 어렵다. 어간에 '도'가 바로 결합해 '양보'와 '역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이 법이 뵈도 몯ᄒᆞ며 니르도 몯ᄒᆞ리니 <석상 13:41>). 그러나 이들 구성이 15세기에 양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 추후에 양보의 연결어미로 발달한다는 점에서 국어사 기술의 연속성을 고려해 하나의 항으로 다룬다. 아울러 전기중세 한국어에는 양보의 연결어미로 볼 수 있는 '-ㅅ{雖}ㅓ'도 발견되어 하나의 항으로 다룬다.

3.1.1. '도', 'ㅏ'

후기중세 한국어 첨가 초점사 '도'는 단순 첨가 및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지며 명사, 조사는 물론 어간 뒤에도 바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현희(1995: 528), 하귀녀(2005: 210) 등에서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NP에 결합한 예만 살펴보도록 한다.

(5) ㄱ. 이 法도 또 綠이라(此法도 亦綠이라) <능엄 2:22b>

---

8) 각각의 본자는 '刀'과 '斗'로 추정된다. 이때, 흥미롭게도 'ㅓ'는 『瑜伽師地論卷20』에서만 첨가 초점사로 추정되는 용례가 등장한다(『慈悲道場懺法』의 경우, '初ㅌㅎㅓ'가 한 예 등장하나 자형상 'ㅓ'가 아닌 'ㅋㅓ'로 판독된다는 견해도 있어 일단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연결어미의 일부(-ㅅ{雖}ㅓ)로 등장하기 때문에 첨가 초점사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듯하다. 'ㅓ'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술하도록 한다.

ㄴ. 받 님자히 무로ᄃᆡ 눌 爲ᄒᆞ야 가져간다 對答호ᄃᆡ 눈먼 어ᄉᆡ를 이받노라 받 님자히 과ᄒᆞ야 **즁싱도** 孝道ᄒᆞᆯ쎠 <월석 2:13b>

ㄷ. 믈읫 ᄒᆞ마 **주그니도** 오히려 누니 이실ᄊᆡ 반ᄃᆞ기 다 物을 보리로다(則諸已死도 尙有眼存ᄒᆞᆯᄉᆡ 應皆見物이로다) <능엄 1:66b>

(5ㄱ)의 경우 단순 첨가로 척도 함축을 보이지 않는 경우다. 반면 (5ㄴ)의 경우 짐승은 효도할 것의 끝점으로 척도 함축을 보이고, (5ㄷ)의 '이미 죽은 이'도 物을 볼 가능성이 가장 낮은 끝점으로 척도 함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각각 '짐승이면 효도하지 않을 것', '죽은 사람이면 物을 볼 수 없을 것'과 같은 기대를 부정한 양보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5ㄷ)의 경우 '여전히 눈이 있으므로'를 앞서 설명한 'C' 요소 즉, '다 物을 보는 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보조사 '만', '마'에 결합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 '마'는 '한정'보다는 '정도'의 의미인 듯하다.

(6) ㄱ. ᄒᆞ다가 어즈러이 ᄒᆞ면 **ᄆᆞ쇼만도** ᄀᆞᆮ디 몯ᄒᆞ니라(若是紛紜이면 馬牛不如ㅣ니라) <내훈 2:3b>

ㄴ. 使臣이 님긊 命令을 가져쇼ᄃᆡ 엇뎨 **도ᄌᆞᆨ마도** ᄀᆞᆮ디 몯ᄒᆞ니오(使臣將王命 豈不如賊焉) <두시초 25:39b>

(6)의 경우 명사에 보조사 '만'과 '마'가 결합한 뒤, 다시 '도'가 결합한 어형으로 보인다. (6ㄱ)의 'ᄆᆞ쇼'는 인간보다 못한 짐승을 의미하고 (6ㄴ)의 '도ᄌᆞᆨ'은 악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간이면 짐승, 도적보다는 낫다는 기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해 '짐승, 도적' 만큼보다 못하다는 것이 표현되었다.

다음으로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첨가 초점사 'ㅋ'와 'ㅐ'를 찾을 수 있다. 'ㅋ'는 NP 및 NP+조사에 결합해 '단순 첨가'와 '양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후기중세 한국어와 같이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경우나 어미에 결합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9] 먼저 (7)은 '단순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다.

9) 물론 하귀녀(2005: 105)에서는 음독구결에는 'ㅇ, ㅁ'등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두 문헌에는 어간에 바로 결합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7) ㄱ. 惟ㅅ 願ㅁㅏㅅㄱ 大王ㅣㅁㄱㅅㄱ 之ㄷ 捨ㅅㅇㅎ 我ㄹㅓ 與ㅅㅁㅅㅁㅎ 并ㅠ 及ㅌ **王ㄹ 身ㅋ** 我ㄹ 臣僕ㅣㅏ{爲}ㅅㄷㅅㅁㅅㅁㅗㅎㄱㅣㅓ(惟願大王 捨之與我 并及王身 爲我臣僕) [오직 원컨대 大王께서는 그것을 버려서 나에게 주시며 아울러 王의 몸도 나의 臣僕이 되소서." 했을 때에] <화소 11:20>[10]

ㄴ. 我ㄹ 身ㅌ 中ㅇㅓ 八萬戶蟲ㅣ 有ㅌㅇ {於}我ㄷ 依ㅇㅎ 住ㅅㄱㅣㅁ 我ㄹ 身ㅎ[弋] 充樂ㅅㅇ **彼ㅋ 亦ㅅㄱ** 充樂ㅅㅎㅇㅌㅎ 我ㄹ 身ㅎ[弋] 飢苦ㅅㄱㅣㅓㄱ 彼ㅋ 亦ㅅㄱ 飢苦ㅅㅎㅇㅌㅣ(我身中有八萬戶蟲 依於我住我身充樂 彼亦充樂 我身飢苦彼亦飢苦) ['내 몸 가운데에 八萬 戶蟲이 있어 나를 의지하여서 住한 것이라서 내 몸이 充樂하여야 그들도 또한 充樂할 것이며 내 몸이 飢苦한다면 그들도 또한 飢苦할 것이다.] <화소 09:13-15>

(7ㄱ)은 '그것'과 '왕의 몸'을 나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두 요소 사이에 '나에게 줄 것'이라는 동질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5ㄴ)의 경우 '내 몸'과 '그들'이 '충악(充樂)하는 것'에서 동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ㅋ'가 척도 함축을 보여 양보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8) ㄱ. 假使ㅠㅅ {此}ㅣㄷ 由[三]ㅇㅅ 阿僧祇ㅌ 劫ㄷ 經ㅇ 諸ㄱ 根 不具ㅇㅏㅊㅗㅁ 亦ㅅㄱ 心ㅇㅓ **一ㄱ 念ㅌ 悔惜ㅇㅏㅋㅋ** 生ㅣㅏ 不ㅅㅏㅇ(假使由此經 阿僧祇劫 諸根不具 亦不心生 一念悔惜) [가령 이로 말미암아 아승기의 겁을 지내어 모든 根이 구족하지 못하거나 또한 마음에 한 念의 悔惜함도 내지 아니하여] <화소 16:02-03>

ㄴ. (기대) 아승기 겁을 지내면 회석함을 낸다.

(8ㄱ)의 경우 '한 념의 회석하는 것만큼(一ㄱ 念ㅌ 悔惜ㅇㅏㅋ)'에 'ㅋ'가 결합하였다. '한 념'은 최솟값에 해당하여 회석함을 전혀 내지 않을 것을 척도 함축한다. (8

외에 'ㄷㅇㅋ', 'ㄷㅁㅋ'가 존재하기는 하나 'ㅇ, ㅁ'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다.

10) 구결의 예에는 <sktot>의 번역을 병기해 두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별도의 표기를 해두었다.

ㄴ)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해 양보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ㅐ'의 경우 첨가 초점사로 추정되는 것으로, 『慈悲道場懺法』에서만 1건 발견된다.

(9) ㄱ. 而ㄱ 此 罪人ㄱ 初ㅌㅋㅐ 改悔ㄱ 無ㄱㅅㅡ 今日ㅋㅓ 得ㅋㅎ 出ㅊㅎㅇ 俄ㅌㅅㅌ 頃ㅋㅓ 復ㄱ 還ㅊ 展轉輪迴ㅅㅋㅎ 痛苦ㅂㄱㅅㄷ 知ㄱ 不ㅅㅅㅁㄱ 而 此罪人 初無改悔 今日得出 俄頃復還 展轉輪迴 不知痛苦)[이 죄인은 애초부터(>처음에도) 회개함이 없는 까닭으로 오늘에 능히 나가게 된 이가 잠깐 사이에 다시 도로 거듭 윤회하여서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니] <자비 21:12-14>

ㄴ. 有ㅌㄴㅣ 一ㄱ 主ㅂㄴㄱ 牛頭阿傍ㅇ 其 性ㅂ 兇虐ㅅㅋ 一ㄱ 慈忍ㅋㅋ 無ㅁㄱ(有一主 牛頭阿傍 其性兇虐無一慈忍)[있다, 한 옥주(獄主)인 우두(牛頭) 아방(阿傍)이. 그 성질이 흉학하여 한 자비심이나 인욕만큼도 없으니] <자비 20:21-21:01>

(9ㄱ)의 경우는 유일례로 첨가 초점사로 보이나 '단순 첨가'인지 '양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먼저 다른 때에도 회개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단순 첨가 용법이라 할 수 있다. 혹은 '처음(에)' 자체를 최솟값으로 보아 총망라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인은 언제든 회개함이 없다' 정도의 양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ㅐ'를 초점사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먼저는 자형상 'ㅐ'가 아닌 'ㅋㅓ'로 판독된다는 견해가 있다. 더 나아가 동일 문헌 내에서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기했을 가능성은 적은데, (9ㄴ)과 같이 첨가 초점사로 'ㅋ'가 사용된 예도 발견된다. 이에 'ㅐ'를 적극적으로 양보 요소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9ㄴ)의 경우는 양보로 최솟값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비와 인욕만큼(一ㄱ 慈忍ㅋ)'에 'ㅋ'가 결합하여 척도 함축을 보인다. 이는 앞선 (8ㄱ)의 'ㅋㅋ'와 평행하다. 후기중세 한국어와 평행하게 'ㅋ, ㅐ'는 보조사로 보이는 'ㅋ'에 통합할 수 있었던 듯하다.

3. 1. 2. '-어도', '-고도'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2.2절 참고). 후기중세 한국어의 '-어도'와 '-고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이들은 조건적 양보의 의미 기능을 지니며 동시에 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먼저 '-어도'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10) ㄱ. 忠臣이 님금 셤기ᄉᆞ보ᄃᆡ **주거도(A)** 두 ᄠᅳᆮ 업스니(not-B) 내 ᄂᆞ외 집 아니도라보리라(若水叱曰 忠臣事君 有死無二 吾不復顧家矣) <삼강 忠18>

ㄴ. (기대) 죽을 상황이면(A) 두 뜻을 둔다(B).

ㄷ. 舅姑의 尊호미 그 노포미 하ᄂᆞᆯ ᄀᆞᆮᄒᆞ니 모로매 恭敬ᄒᆞ며 모로매 溫恭ᄒᆞ야 제 몸 어디론가 믿디 말오 ᄒᆞ다가 티며 **구지저도(A)** 깃거 바ᄃᆞ라(not-B) 이 眞實로 날 ᄉᆞ랑호미니 말ᄉᆞᄆᆞᆯ 잢간이나 이베 내야리여(舅姑之尊이 其高ㅣ 猶天ᄒᆞ니 必敬必恭ᄒᆞ야 母倚已賢이오 倘有笞詈라도 悅豫而受ᄒᆞ라 此實我愛니 言敢出口아 彼東隣婦에 曾不施之오) <내훈 1:48ㄱ>

ㄹ. (기대) 치며 꾸짖으면(A) 기뻐 받지 않는다(B)

(10ㄱ)은 이약수(李若水)가 금나라 병영에 잡혀 순종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10ㄴ)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해 죽을 상황과 다른 뜻을 품는 것이 비관여적임을 표현되었다. 이때의 죽는 상황은 사실이라 할 수 없어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겠다. (10ㄷ)의 경우 시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훈육하는 내용으로 (10ㄹ)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치며 꾸짖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 보기는 어려워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기뻐 받을 수 있는 까닭은 후행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 부정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언어화된 것이다.

치며 꾸짖으면 (A)	→	기뻐 받지 않는다(B)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C)	→	**기뻐 받는다(not-B)**

다음 (11)은 사실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예문이다.

(11) ㄱ. 王裒ㅣ 슬허 그위실 아니ᄒᆞ고 ᄂᆞᆷ 글 ᄀᆞᄅᆞ치고 이셔 님그미 세 번 브르시며 宰相이 닐굽 번 **블러도(A)** 다 아니 오고(not-B) 죽ᄃᆞ록 西ㅅ녁 向ᄒᆞ야 앉디 아니ᄒᆞ니라(裒痛父非命 隱居敎授 三徵七辟皆不就 終身未嘗西向而坐) <삼강孝15>

ㄴ. (기대) 임금과 재상이 부르면(A) 온다(B).

(11ㄱ)은 왕부(王裒)의 효행을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분이다. 이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 직관이 부재해, 중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어도'가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외에, 소수이나 조건적 양보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ㄹ디라도'가 있다. 이는 동명사형 어미가 형식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에 계사와 '-어도'(엄밀히는 '-어'와 '도')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11]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ㄱ. 천랴ᄋᆞᆯ 만히 뫼호아 두고 受苦ᄅᆞ비 딕희여 이셔 빌리 잇거든 츠기 너겨 모지마라 **줋디라도(A)** 제 모맷 고기ᄅᆞᆯ 바혀 내논 ᄃᆞ시 너겨ᄒᆞ며(not-B)(多聚財寶 勤加守護 見乞者來 其心不喜 設不獲已 而行施時 如割身肉 深生痛惜) <석상 9:12a>

ㄴ. (기대) 측은히 여겨 비는 이에게 돈을 주면(A), 아까워하지 않는다(B).

(12ㄱ)의 경우 부처님이 문수사리(文殊師利)에게 어떤 경우를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조건적 양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고도'의 경우다. 현대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 기능을 보이는 '-어도'와 달리, '-고도'는 현대 한국어와 15세기 한국어의 쓰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현대 한국어의 '-고도'의 의미 기능을 예를 통해 살

11) '-ㄹ디라도'의 경우 '옳디언뎡'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펴본 후에 15세기 '-고도'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 한국어에서 '-고도'는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서정섭 1991, 박진희 2011, 이순욱 2017 등).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ㄱ. 졸**고도** 졸지 않은 체하다.
ㄴ. 오시**고도** 연락을 안 하셨다니 섭섭합니다.

(13)의 예들은 모두 실제 일어난 일들로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도'가 사용되었으나, 조건 표현이 공기하는 경우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14) ㄱ. 만약 徭役의 이중 부담이 문제였다면, 그것은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도/않아도/*않으나/*않지만**}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 [이순욱(2017: 33)의 예]
ㄴ. 면접에 가지 않는다면, 철수는 시험을 잘 {**보고도/봤는데도/봤음에도**} 떨어질 것이다. [이순욱(2017: 33)의 예]

(14ㄱ)의 경우 사실적 양보 표현인 '-지만, -나$_2$'는 올 수 없고 '-어도'와 '-고도'는 오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상황을 가정해 말하는 것으로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4ㄴ)의 경우 사실적 양보 표현인 '-는데도', '-음에도'가 왔을 때는 사실적으로 해석되나 '-고도'의 경우 조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도' 외의 사실적 양보 표현들은 조건 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나 '-고도'만은 조건적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예는 비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된 기능은 사실적 양보라 할 수 있겠다.

15세기에도 '-고도'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釋譜詳節』, 『月印釋譜』 두 문헌에서는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가 더 우세해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먼저 조건적 양보의 예를 살펴보겠

다.

(15) ㄱ. 救脫菩薩이 니ᄅᆞ샤ᄃᆡ 有情ᄃᆞᆯ히 病을 어더 비록 그 病이 **가ᄇᆡ얍고도(A1)** 醫와 藥과 病 간슈ᄒᆞ리 업거나(C1) **醫를 맛나고도(A2)** 왼 藥을 머겨(C2) 아니 주긇 저긔 곧 橫死ᄒᆞ며(~B)(救脫菩薩言 有諸有情得病雖輕 然無醫藥及看病者 設復遇醫授以非藥 實不應死而便橫死) <석상 9:35b-36a>[12]

ㄴ. (기대) 병이 가벼우면(A1) 죽지 않을 때에 횡사하지 않는다(B).
(기대) 의사를 만나면(A2) 죽지 않을 때에 횡사하지 않는다(B).

ㄷ. 千萬 사ᄅᆞ미 **가고도(A)** ᄉᆞᄆᆞᄎᆞ리 ᄒᆞᆫ둘힌 거시라(~B) 내 네 말 듣디 아니호리라(往者千萬 達者一二 吾不聽汝) <월석 22:33a>

ㄹ. (기대) 천만 사람이 가면(A) 다다를 이가 한둘보다 많을 것이다(B).

(15ㄱ)은 아홉 가지 횡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병에 걸렸을 때, 병이 가벼운 경우와 의원을 만나는 경우에는 횡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병이 가볍고 의원을 만나는 경우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하기는 어렵고 가정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횡사의 원인(C)이 명세되었는데, 하나는 의원과 병과 약을 간수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약을 먹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를 만나면(A2)	→	죽지 않을 때에 횡사하지 않는다(B)
잘못된 약을 먹이면(C2)	→	**죽지 않을 때에 횡사한다(not-B)**

(15ㄷ)에 나타난 '천만 사람'은 절대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13] 이에 많은 사람이 갔다면 한둘보다는 더 도달할 것이 기

12) 동일 내용에 대해 "救脫菩薩이 니ᄅᆞ샤ᄃᆡ 有情ᄃᆞᆯ히 가ᄇᆡ야ᄫᆞᆫ 病을 어더도 醫와 藥과 病 간슈ᄒᆞ리 업거나 醫를 맛나고도 왼 藥을 머겨 아니 주긇 저긔 곧 橫死ᄒᆞ며" <월석9:57a>로 언해된 경우가 있었다. 즉, '-고도'가 '-어도'로 다르게 언해된 것이다.

13) 다만, 실제로 천만 사람이 갔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후행절의 'ᄉᆞᄆᆞᄎᆞ리'의 경우 '-ㄹ'을 미래 시제 혹은 총칭성(최준호 2019)으로 파악할 수 있어 단서가

대되나 이를 부정해 양보문으로 볼 수 있겠다. 천만 사람이 가는 경우를 가정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다.

천만 사람이 가면 (A)	→	다다를 이가 한둘이 아니다(B)
사나운 귀신이며 독한 용이 있어 ... (C)[14]	→	**다다를 이가 한둘이다(not-B)**

다음으로 사실적 양보의 예를 살펴보겠다.

(16) ㄱ. 앗이 **모딜오도(A)** 無相猶矣실씨(C) 二百年 基業을 여르시니이다(not-B) (弟雖傲矣 無相猶矣 維二百年 基業啓止) <용가 103上>

ㄴ. (기대) 아우가 모질면(A) 이백년 기업을 열지 못한다(B).

(16ㄱ)은 요(遼) 태조와 다섯 아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요 태조는 반란을 일으킨 아우들의 죄를 모두 용서했고 실제로 요나라의 치세도 200여 년 지속되었다. 이에 사실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에는 '-고도'가 조건적 양보는 물론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예문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고도'가 대부분 사실적 양보로 쓰이되 극히 일부분에서 조건적 양보로도 쓰일 수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는 '-어도'와 '-고도'의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첨가 초점사 양보 표현은 첨가 초점사와 조건, 시간 연결사의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aspelmath & König 1998). 그러나 한국어의 '-어도', '-고도'는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먼저 이현희(1995: 528)에 의하면 '-어도, -고도'는 '-어', '-고'와 '도'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도'는 첨가 초점사로 '추가'나 '양보'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와 '-고'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도달할 사람'으로 보내는 상황을 가정해서 도달할 사람이 한둘이라고 볼 수 있겠고 후자의 경우 '도달하는 사람'이라고 보아 일반적으로 천만 사람이 가면 한둘의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예문을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14) 앞선 내용인 "모딘 귓거시며 毒ᄒᆞᆫ 龍이며 ᄲᅡᆯᄅᆞᆫ 믈결이며 ᄆᆡᄒᆞᆯ ᄇᆞᄅᆞ미며 휫도ᄂᆞᆫ 믈결이며 솟ᄂᆞᆫ ᄆᆞ리며 스ᄆᆡᄂᆞᆫ ᄆᆞ리며 믈더품 뫼히며 摩竭大魚ㅣ 이셔" <월석 22:32a>를 통해 C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의 경우 조건이나 시간 연결사가 아닌, 순접 연결의 의미 기능을 지니는 연결어미로 보여 다르다.[15]

이러한 '-어, -고'가 조건적 양보 표현의 구성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함축에 의해 동시성 정도의 느슨한 의미를 지니는 연결사[16]가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참조할 수도 있다(König 1985, 임동훈 2009).

(17) ㄱ. I have to do all this work **and** you are watching TV. [König(1985: 278)의 예)
ㄴ. Fred is reading **and** Mary is watching TV. [König(1985: 278)의 예]
ㄷ. 처음 **만나고(/도)**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니? [임동훈(2009: 110)의 예]
ㄹ. 財寶 업소ᄆᆞᆯ 가난타 니ᄅᆞ고 **빅호고** 行티 몯ᄒᆞ릴 病이라 니ᄅᆞᄂᆞ니 <남명上:30b>

(17ㄱ), (17ㄴ)의 'and'는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다. (17ㄷ)은 한국어의 예로 '-고'가 문맥이 갖춰질 때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예인 (17ㄹ)의 '-고'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조건적 양보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단순 병렬 표현인 '-고, -어'가 조건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범언어적 현상은 아니나 영어에는 대등접속 구성(coordinate structure)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König 1986: 234-238).

---

15) 남윤진(1989)에서는 15세기 '-어'의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것이고, '-고'는 선행절을 완결하여 후행절에 연결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고'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열], [계기], [동시]를, '-어'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이유], [수단], [배경 제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의 장요한(2010)에서는 '-어'는 [계기], [동시], [원인] 등으로, '-고'는 [계기], [동시], [나열] 등으로 그 의미 기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어'와 '-고'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은 두 절의 동시 발생이나 공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임동훈(2009)과 같이 둘 다 [나열]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다.

16) König(1985: 274)에서는 영어 등위 접속사(coordinating conjunction) 'and'와 'Adj as NP be' 구성, 접속사 'when, while', 부사구 'at the same time'과 프랑스어 'tout en V-ant' 구문, 러시아어·이탈리아어의 부사 분사(adverbial participle or gerund) 등을 제시하였다.

(18) ㄱ. We can give him the VIP treatment, <u>and</u> he is not content.

ㄴ. I can drink a bottle of alcohol, <u>and</u> my boss won't fire me.

(18ㄱ), (18ㄴ)은 두 절이 'and'로 이어진 <S1 (and) S2> 구성이나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허용하는 표현들로는 척도적 초점사, 극단값에 해당하는 표현, 최상급 표현, 자유 선택사 등이 있다고 한다.[17] 한국어의 '-어도, -고도'의 경우도 '-어, -고'에 첨가 초점사 '도'가 결합한 것이다. 이에 첨가 초점사 '도'의 척도적 해석을 기점으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두나 음독 구결 등 이전 시기의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고도'보다 '-어도'의 용례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황선엽(2002)에서 제시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국어에서 가장 오랜 연원을 가진 연결어미 '-아'와 '-고'는, '-아'는 구 연결에, '-고'는 절 연결에 쓰이는 연결어미로 기능이 양분되어 있던 것이 점차 사용역이 확대되면서 구 연결과 절 연결에 모두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5세기 이후로는 연결어미 '-아'의 기능을 '-고'가 점차 잠식해 들어가고 절 연결의 '-아'는 '-아서(아셔)'에 그 기능을 많이 넘겨주게 되었는바 전체적으로는 '-고'의 기능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황선엽 2002: 37) 실제로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문헌에서는 'ㅁ'의 출현이 'ㅈ' 출현보다 월등히 적다. 이러한 점에서 '-고'와 '도'로 분석되는 15세기 '-고도'의 용례가 더 적다는 점도 설명될 수 있겠다.[18]

흥미로운 것은 근대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어도'에서 파생된 어미들은 현저하게 늘어났으나, '-고도'에서 파생된 어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현대의 '-고도'는 '-어도'에 비해 빈도도 낮을뿐더러 의미 기능도 사실적 양보에 한정

---

17)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점은 대안 집합의 상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국어의 '도'의 경우도 첨가 초점사로서 대안집합을 상정하는 것이다. 대안집합 자체는 사실에 반하는 사태를 가정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조건적 양보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18) 흥미로운 점은 이두 문헌에는 '-어도'에 해당하는 '-良置'가 등장하는데, '-고도'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두는 실용문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유사한 의미의 두 요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되어 사용될 뿐이다. 본고는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추후에 그 양상을 살펴보고 적절한 기술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3.1.3. '-ㅅ{雖}ㅐ'

『瑜伽師地論 卷 20』에서만 나타나는 전기중세 한국어 어미 구조체 '-ㅅ{雖}ㅐ'는 절과 절을 잇는 연결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며 조건적 양보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

(19) ㄱ. 又 根門ㄹ 守 能 不ㅎㅇㅣㅅㄹ 由ㅣㅣㅅㅁ 故ㅣ 空閑ㅇㅣㄱㅓㅐ **處ㅇㅓㅐㅅㅅ {雖}ㅐ(A)** 猶ㅣㅣ 種種ㅌ 染汙尋思 {有}ㅐㅇ(C) 其 心ㄹ 擾亂ㅣㅍㅅ(not-B) (又由不能守根門故 雖處空閑 猶有種種染汙尋思 擾亂其心) [또한 근문을 지킴을 능히 못하는 것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비록 한적한 곳[空閑]에 처하더라도 여전히 갖가지 오염된 심사를 지녀 그 마음을 요란시키는 것과] <유가 10:06-08>

ㄴ. (기대) 한적한 곳에 처하면(A) 마음이 요란하지 않다(B).

(19ㄱ)은 일곱 소대치(所對治)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한적한 곳에 처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19ㄴ)가 상정되나 그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마음이 요란한 까닭으로는 갖가지 오염된 심사를 지님(C)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19]

한적한 곳에 처하면	**(A)**	→	마음이 요란하지 않다(B).
갖가지 오염된 심사를 지니면(C)		→	**마음이 요란하다(not-B).**

더하여 이때의 '한적한 곳'은 척도적으로 해석되는 듯하다. 이에 어떤 곳에서든 마

19) 물론 이때, '근문을 지킴을 능히 못하는 것'을 C로 볼 수도 있겠다.

음이 요란하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말하고 있는 듯해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겠다.

구결은 한문에 토를 단 것이기 때문에 원문의 구조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문에서 양보 구문은 '雖', '縱' 등과 전환(轉換) 관계를 표현하는 후행 요소가 함께 실현된다(최원직 1999, 최금란 2010). 이를 참고해, 자토석독구결 '-ㅅ{雖}ㅐ'가 나타난 구문으로만 한정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표 5] 어미구조체 '-ㅅ{雖}ㅐ'가 등장한 구문의 구조

	선행절	후행절
한문 원문	雖 A	[{而, 然, Ø} (C) not-B]
석독 구결	Aㅅ雖ㅐ	[{而ㄱ, 然ㅇㄱ, Ø} (C)[20] not-B]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 ㄱ. 正行不滅圓滿ㅣㅣㅇㄱㅅㄱ{者} 謂ㄱ [佛世尊ㄱ 般涅槃ㅇㄴㅎㅌㅅ{雖}ㅐ(A)] [而ㄱ 俗正法ㅣ [猶ㅣ 住ㅇㅋㅎ(C)] 未滅ㅇㄹ(not-B1)] [勝義正法ㅣ 未隱未斷ㅇㄹㅇㅁㅊㅣ(not-B2)]](正行不滅圓滿者 謂佛世尊 雖般涅槃 而俗正法 猶住未滅 勝義正法 未隱未斷)[정행불멸원만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세존은 반열반하시더라도 세속의 정법이 여전히 머물러서 멸하지 않고, 승의의 정법이 가려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다.] <유가 03:11-13>

ㄴ. (기대) 불세존이 반열반하시면(A) 승의의 정법이 가리지거나 끊어진다(B).

(21) ㄱ. 又 根門ㄷ 守 能 不ㅎㅇㄱㅅㄷ 由ㅋㄱㅅㅡ 故ㅇ [空閑ㅇㄱㅋㅓ 處ㅇㅎㅌㅅ{雖}ㅐ(A)] [Ø [猶ㅣ 種種ㅌ 染汙尋思 {有}ㅐㅋ(C)] [其 心ㄷ 擾亂ㅇㅁㅅ(not-B)]](又由不能守根門故 雖處空閑 猶有種種染汙尋思 擾亂其心)[또한 근문을 지킴을 능히 못하는 것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비록 한적한 곳[空閑]에 처하더라도 여전히 갖가지 오염된 심사를 지녀, 그 마음을 요란시키는 것과] <유가 10:06-08>

ㄴ. (기대) 한적한 곳에 처하면(A) 마음이 요란하지 않다(B).

20) 'C'에 나타난 어미들은 '-ㄱㅅㅡ, -ㅁ, -ㅇㅋㅎ, -ㅋ' 등이 있었다.

(22) ㄱ. 四 [其 能聽者ㅣ 樂欲 {有}ㅐㄱㅎ 屬耳ㅅㄱ 而ㅡ **聽ㅅㅋㅌㅅ{雖}ㅐ(A)]** [**然ㅅㅁ** [闇鈍ㅅㄱㅅㅡ{故}ㅎ 覺慧 劣ㅅㄱㅅㅡ 故ㅣ(C)] [領受 能 不ㅅㅣㅎㅌ 過失ㅣㅎ(not-B)]](四 其能聽者 雖有樂欲 屬耳而聽 然闇鈍故 覺慧劣故 不能領受過失)[넷째는 그 능히 들을 자[能聽者]가 비록 즐기려는 욕구[樂欲]를 지녀서 귀 기울여 열심히 들어도, 그러나 머리가 아둔한 까닭에서이며 각혜가 보잘것없는 까닭으로 받아들이기를 능히 못하는 잘못이며] <유가 13:13-15>

ㄴ. (기대) 능청자가 열심히 들으면(A)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B).

ㄷ. 九 [此 失ㄱ **無ㅌㅅ{雖}ㅐ(A)]** [**然ㅅㅁ** 他 種種ㅌ 障导ㅣ 生起ㅣㅇㅅㄴ 爲ㅅㅣㅎㅌ 過失 {有}ㅐㅎ(not-B)](九 雖無此失 然有爲 他種種障导 生起過失)[아홉째는 비록 이러한 잘못은 없어도, 그러나 다른 갖가지 장애가 생겨나는 것을 입게 되는 잘못을 지니며] <유가 13:19-20>

ㄹ. (기대) 앞과 같은 잘못이 없으면(A) 다른 장애가 생기는 잘못을 지니지 않는다(B).

(20)은 '而ㄱ'가 나타난 경우이다. (20ㄱ)은 정행불멸원만(正行不滅圓滿)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기대로 (20ㄴ)이 상정되며 이를 부정해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而ㄱ'은 후행절 전체를 묶어주는 듯하다. '住ㅅ-'에는 원인의 '-ㄱㅎ'이 결합되어 '(속정법이) 여전히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후행절 성립에 관여적인 C절로 상정할 수 있겠다.

(21)은 'Ø'의 경우이다. (21ㄱ)에서는 (21ㄴ)이 기대로 상정된다. 이 두 명제 사이의 관여성을 부정해(not-B), 한적한 곳에 처하는 것과 관계없이 마음이 요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갖가지 염오심사가 있기 때문'을 후행절에 관여적인 'C'절로 제시할 수 있겠다.

(22)는 '然ㅅㅁ'가 나타난 경우이다.[21] (22)은 20종의 소대치(所代置)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 (22ㄱ)은 (22ㄴ)을 기대로 가진다. 이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능청자가 열심히 듣는 것과 관계없이(비관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표현되었다. 이때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으로 '머리가 아둔하고

21) 이 유형은 동일한 구문 17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였다.

각혜가 보잘 것 없기 때문(C)'임이 제시되었다. (22ㄷ)은 'C'가 명세되지 않은 유형으로 (22ㄹ)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는 양보문이다.

요컨대 세 가지 유형은 'Aㅅ雖ㅐ [{而ㄱ, 然ㅅㄱ, Ø} (C) not-B]'와 같이 나타났다. 그 차이점은 전환 관계를 담당하는 요소였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축자역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2)]

다음으로는 '-ㅅ{雖}ㅐ'의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ㅅ{雖}ㅐ'는 공시

---

22) 그 까닭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로는 비슷한 시기 한국어의 실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이두에서는 비슷한 연결어미 '-良置'가 사용되었을 때는 이런 요소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이는 (1)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1) ㄱ. 今年已後 無戶口爲在 兩班乙良 受職爲良置 不許出謝齊 (금년 이후 호구가 없는 양반은 수직하여도 朝謝를 내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和寧府戶籍臺帳 斷片>

ㄴ. 右如 因事 罷任降等爲良置 謝貼 收取 不冬爲在隱 現任以同 ((우와) 같은 것과 비록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 강등한 자라도 사령장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현임과 같이 처리 한다.) (雖爲事解任降等 不追誥命者 並與現任同) <大明律直解 1:14b>

둘째로는 구결문의 일반적인 현토 양상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문의 특정 어사는 우리말의 특정 문법형태와 호응관계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특정 어사가 출현할 경우 특정 문법 형태소가 표기되곤 한다. 또한 직역문헌의 경우 한문의 어사를 가능한 한 모두 언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언해문에는 이러한 두 가지 언해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윤용선 2005).

(2) ㄱ. 是 如ㅊㅅㄱ 三法ㄱ 一切 對治修ㄷ 隨逐ㅅㄱㅅㅡ 故ㅣ 名ㅜ 多所作ㅡㅣㅎㅣ (如是三法 隨逐一切對治修故 名多所作) <유가 12:22-23>

ㄴ. 이 道敎ㅣ 비록 이 中國의 法이나 그러나 聖人의 道ㅣ 아니오 別로 一端이 되엿ᄂᆞᆫ디라(這道敎雖是中國之法 然非聖人之道而別爲一端) <오륜 1:9ㄱ>

(2ㄱ)은 '-ㄱㅅㅡ'에 중복해 '故ㅣ'가 들어간 모습을 보이며 후대의 문헌인 (2ㄴ)에서도 '-나$_2$'에 '그러나'가 중복해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축자역의 일환으로 '而ㄱ'가 들어간 것이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적으로 하나의 연결어미로 취급된다. 그러나 기원적으로는 황선엽(2002: 2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雖'를 사이에 두고 현토(懸吐)되었고 보조사 '도'가 다른 문맥에 'ㅅ'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진 어미로 볼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알기 어렵다. 이에 'ㅓ'와 'ㅅ'가 어떤 요소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ㅓ'[斗, 두]에 대해 살핀다. 'ㅓ'가 NP에 결합해 첨가 초점사처럼 사용된 경우가 있다는 점과 현대나 후기중세 한국어의 '도'가 NP에 결합해서 첨가 초점사로 사용되는 동시에 양보의 연결어미의 구성요소로 나타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양보의 '-ㅅ{雖}ㅓ'의 일부로 등장한 'ㅓ'도 첨가 초점사 '도'와 관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때의 'ㅓ'의 음상도 '도'와 유사하게 파악될 수 있는 듯하다.

다만, 이때의 'ㅓ'를 후기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도'로 직결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는 3.1.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P에 직접 결합해 '단순 첨가'와 '양보'의 의미를 보이는 첨가 초점사로는 이미 'ㅏ'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ㅓ'의 경우 일부 문헌에서만 '단순 첨가'의 의미 기능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예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점토석독구결 『晉本華嚴經 卷 20』에서 'ㅏ'로 해독되는 35(·.)와 'ㅓ'로 해독되는 35(|·)를 동일 위치로 볼 수 있다는 점(문현수 2020: 55)을 참고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문제는 자토석독구결 문헌에서 NP에 결합해 첨가 초점사로 기능하는 'ㅏ'와 양보의 어미구조체의 구성요소인 첨가 초점사 'ㅓ'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구결 자료 내에서 동일한 요소가 다르게 표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요소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ㅅ{雖}ㅓ'가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져 첨가 초점사의 음도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끝으로는 음가가 동일했어도 그 의미 기능 혹은 분포에 따라 다른 표기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König(2006)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영어의 'also'나 'even'과 같은 '첨가 초점사'가 '양보' 요소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유사한 음상과 의미 기능을 가지는 'ㅓ'와 'ㅏ'를 동일 기원의 첨가 초점사로 이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ㅓ'를 첨가 초점사로 파악한다면, 연결어미 '-ㅅ{雖}

ㅏ'가 가진 양보의 의미는 첨가 초점사의 대안집합을 만드는 기능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구성요소 'ㅅ'의 경우, 무엇인지 밝히기 더 어렵다. 양보로 기능할 때는 'ㅅ'와 'ㅏ'가 항상 공기하므로 통합·계열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23] 다만, 'ㅅ'로 표기되는 요소는 자토석독구결 문헌에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공동격 조사와 '원망', '소망',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다.[24] 이건식(2017)에서는 '-ㅅ{雖}ㅏ'의 'ㅅ'를 후자로 본 바 있다. 일반적으로 어간에 결합하여 다른 절과 의미, 통사적인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연결어미에 해당하므로 공동격 조사보다는 연결어미로 보는 편이 더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대국어 양보문의 몇 가지 예문과 Haspelmath & König(1988)에서 찾을 수 있었다. Haspelmath & König(1988)에서는 기원법(optative mood) 혹은 가능 양태(potential)에서 양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let it rain', 'it may rain', 'let it be that it rains'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23)을 보자.

(23) ㄱ. She <u>may be</u> the world's leading Etruscololgist, but I doubt that she knows what concessive conditonals looked like in Etruscan.

ㄴ. Latin(*licet* 'it is allowed, it is possible')

<u>Licet</u> omnes mihi minae impendeant, ...

possible all me threats hang.over:PRS:3PL

'Even if all threats hang over me, ...'

(23)은 Haspelmath & König(1998)에서 제시한 영어와 라틴어의 예이다. 양보에서의 'ㅅ'의 사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25]

---

23) '-ㅅ{雖}ㅏ' 전체가 이미 문법화되어 어휘 고도 제약 때문에 'ㅅ'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4) 'ㅅ'가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 등 복합적인 요소일 가능성도 있다.

25) '-ㅅ{雖}ㅏ'에는 선어말어미 '-ㅎㅌ-'가 결합한 경우가 많았다. '-ㅎㅌ-'는 박진호(1998)에서 당위 내지 의무, 가능성 내지 능력 등의 양태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된

3.2. 대안 조건적 양보

본 절에서는 대안 조건적 양보(alternative concessive conditionals)를 살펴본다. 앞서 살핀 첨가 초점사 양보는 '도'의 대안 집합을 상정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었다. 대안 조건적 양보의 경우는 대안 집합의 나열을 통해 표현해 비관여성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면 (24)와 같다.

(24) ㄱ. [철수의 말이 거짓이든](A) [거짓이 아니든](not-A) 지금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ㄴ. [아인슈타인]이든(A1), [닐스 보어]든(A2)[26]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
ㄷ. [아인슈타인]이든(A1), [동네 바보]든(A2)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

(24ㄱ)에서는 철수의 말이 거짓인 상황과 그 반대 상황인 거짓이 아닌 상황이 모두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둘 중 어느 상황이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실현된다. (24ㄴ)의 경우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들의 대푯값인 '아인슈타인'(A1)과 비슷한 가능성을 가진 '닐스 보어'(A2)가 나열되었다. (24ㄷ)의 경우는 가장 문제를 풀 확률이 높은 대상인 '아인슈타인'(A1)과 가장 낮은 대상인 '동네 바보'(A2)가 나열되었다. 이러한 대푯값들의 나열을 통해 총망라성을 얻어, 누구든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안 조건적 양보는 영어의 'or'과 같은 이접(disjunctive) 표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윤평현(1989: 57)에 의하면 현대 한국어의 경우도 '-든지', '-거나', '-나$_1$'와 같은 이접 표현이 양보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이외에 첨가 초점

바 있다. 결합하는 어미에 제약이 있는데 '-ㅅ{雖}ㅓ'를 제외하면 항상 평서형의 '-ㅣ'에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ㅅ{雖}ㅓ'에 결합한 '-ㅎㅡㅌ-'는 항상 동사 어간에 결합한 것으로 보이며 의미 기능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6) 닐스 보어: Niels Bohr. 덴마크의 물리학자. 1922년 원자구조론 연구 업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사 표현인 '도', '-어도'의 경우도 대안 조건의 나열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27] 이들은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ㄱ. 당신이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음식값은 당신이 치러야 한다. [윤평현(1989: 57)의 예]
ㄴ. 밉**거나** 곱**거나** (간에) 네 아내가 아니냐? [윤평현(1989: 57)의 예]
ㄷ. 그는 오**나** 가**나** (간에) 말썽이다. [윤평현(1989: 57)의 예]
ㄹ. 공부를 **해도**, 하지 않**아도**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25ㄱ)은 '-든지', (25ㄴ)은 '-거나', (25ㄷ)은 '-나$_1$', (25ㄹ)은 '-어도'가 대안 조건적 양보를 실현하고 있다. 이때, (25ㄱ, ㄹ)처럼 부정의 형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25ㄴ, ㄷ)처럼 어휘의 반의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현대 한국어의 이접 표지는 명사와 조사구에 결합하는 '(이)나, (이)든지'와 용언 어간이나 절 전체에 결합하는 '-나$_1$, -든지'로 나뉜다. 중세 한국어의 경우도 안병희·이광호(1990)의 기술을 참조하면 접속 조사 '(이)나'와 어미 '-나$_1$'를 구분할 수 있겠다.[28]

이외에 일부 연접 표현의 경우도 대안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제시할 만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29]

(26) ㄱ. 낮**이나** 밤**이나** (관계없이) 공부를 한다.
ㄴ. 낮**이며** 밤**이며** (관계없이) 공부를 한다.

---

27) '도'나 '-어도'는 첨가 초점사 양보로도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3ㄹ)과 같은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안 조건의 나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안 조건적 양보로 다루었다. 관련하여 Haspelmath & König(1998: 595)에서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대안 조건이 나열된 경우도 대안 조건적 양보로 다룬 바 있다.
28) 물론 두 이접 표지의 기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29) 류병률(2013)에 의하면 이접 표현의 경우 '이접, 연접, 임의선택(자유선택)'과 같이 여러 의미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때의 '임의선택'은 양보의 비관여성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평행하게, 연접 표현도 단순히 연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선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ㄱ)은 이접 표현을 이용한 대안 조건적 양보문이다. 이 경우 낮인지 밤인지는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비관여적이라 할 수 있다. (26ㄴ)은 연접 표현이 나타난 예문으로 기본적으로는 낮과 밤에 공부를 한다는 연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낮과 밤 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관계없이'가 공기하면 후자의 해석만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보문의 핵심 의미인 비관여성이 직접적인 표현(관계없이 등)이나 맥락에 의해 충족될 경우, 연접 표현도 양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안 조건적 양보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세 한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 조건적 양보 표현으로는 이접의 '(이)나, -나$_1$, -ㅋ$_1$'를 제시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와 달리 첨가 초점사가 포함된 표현이 대안 조건적 양보로 나타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 연접 표현의 경우도 대안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쓰임을 보이는 예는 '-며', '-여', '-ㅭ(ㅣ)'에서 발견되었다. 각각의 예를 살펴보겠다.

3.2.1. 이접 표현

먼저 이접의 '이(거)나, -나$_1$, -ㅋ$_1$'을 살펴보도록 한다. (27)은 후기중세 한국어 '이(거)나'와 '-나$_1$'의 예이다.

(27) ㄱ. 舍利弗아 善男子ㅣ**어나**(A1) 善女人**이어나**(A2) 이 經 듣고 바다 디니ᄂᆞᆫ 사ᄅᆞᆷ과 諸佛ㅅ 일훔 듣ᄌᆞᄫᆞᆫ 사ᄅᆞᄆᆞᆫ 다 一切 諸佛이 護持ᄒᆞ야 닛디 아니ᄒᆞ샤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예 므르디 아니ᄒᆞ리라(利弗 若有善男子 善女人 聞是經受持者 及聞諸佛名者 是諸善男子 善女人 皆爲一切諸佛共所護念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월석 7:75a-75b>

ㄴ. 世尊하 이ᄀᆞ티 ᄆᆞᅀᆞᆷ 닷가 正定 求ᄒᆞᆯ 싸ᄅᆞ미 ᄒᆞ다가 道場애 잇**거나**(A1) 녀나ᄆᆞᆫ ᄃᆡ 디나 ᄒᆞ니**거나**(A2) 散亂 ᄆᆞᅀᆞᄆᆞ로 聚落애 노뇨매 니르**러도**(A3) 우리ᄃᆞᆯ 무리 샹녜 반ᄃᆞ기 조차 이 사ᄅᆞᄆᆞᆯ 侍衛ᄒᆞ야(世尊하 如是修心ᄒᆞ야 求正定人이 若在道場커나 及餘經行커나 乃至散心ᄋᆞ로 遊戲聚落ᄒᆞ야도 我等徒衆이

常當隨從ᄒᆞ야 侍衛此人ᄒᆞ야) <능엄 7:65b>

ㄷ. 시혹 吐**커나**(A) 시혹 吐티 아니**커나**(~A) 즉재 便安ᄒᆞᄂᆞ니라(或不吐卽安) <구급방상42b>

(27ㄱ)은 '이(거)나'에 (27ㄴ, ㄷ)은 '-나$_1$'에 해당하는 것이다. (27ㄱ)과 (27ㄴ)에는 대안 집합이 되는 A들이 이접 연결되었고 (27ㄷ)은 A와 부정의 형식을 취하는 not-A가 이접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비관여성을 얻어 (27ㄱ)은 '누구든', (27ㄴ)은 '대상이 어디에 있든', (27ㄷ)은 '토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후행절이 항상 성립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세 예문을 모두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27ㄴ)에서는 '-나$_1$'의 이접과 더불어 '-어도'가 공기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석독구결 문헌의 '-ㄱ$_1$'도 대안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는 예를 찾을 수 있다.

(28) 又 彼ㄱ {於}晝夜ㅋㅓ 若 行ㅅㄱ(A1) 若 住ㅅㄱ(A2) 衣服ㅜ 飮食ㅜ 命緣ㅜㅇㄹㄷ 習近ㅇㄱㅅㄷ 如ㅎ(又 彼如於晝夜若行若住, 習近衣服飮食命緣) [또 그는 밤낮으로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간에, 의복이니 음식이니 명연이니 하는 것을 가까이 익히는 것과 같이] <유가 27:21-22>

(28)은 전형적인 대안 조건적 양보로 두 조건문의 연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밤낮으로 다니는 것'(A1)과 '밤낮으로 머무르는 것'(A2)에 관계없이 '언제나 의복, 음식, 명연을 가까이 익힌다는 것'으로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3. 2. 2. 연접 표현

중세 한국어의 연접 표현에서도 대안 조건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예문들이 발견된다. 우리는 '-며', '-여', '-ㅜ(ㅣ)'에서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며'가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대안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를 보도록 한다.

(29) ㄱ. 太子ㅣ 뫼히며(A1) 므리며(A2) **골히디 아니ᄒᆞ야** ᄃᆞᆫ니실씨 다ᄉᆞᆺ 사ᄅᆞ미 몯

믿ᄌᆞ바 그에셔 사더라 <석상 3:35b>

ㄴ. 여듧 히를 시러 묻갊디 몯ᄒᆞ야 나지**며**(A1) 바미**며**(A2) 블러 우로ᄃᆡ 샹녜 袒括날 ᄀᆞ티 ᄒᆞ야 겨스레 소옴 둔 오ᄉᆞᆯ 닙디 아니ᄒᆞ고(八年을 下得營葬ᄒᆞ야 晝夜애 號哭호ᄃᆡ 常如袒括之日ᄒᆞ야 冬不衣絮ᄒᆞ고) <내훈 1:72b>

(29ㄱ)은 장소 정보에 해당하는 A들이 나열되었고 동시에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표현 'ᄀᆞᆯ히디 아니ᄒᆞ야'가 등장하였다. 이에 비관여성을 얻어, 장소 정보에 관계없이 항상 후행절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9ㄴ)에서는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A들이 나열되었다. 시간 정보에 대해 비관여적으로 후행절이 항상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세 예문 모두 대안 조건적 양보의 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선대형이라 할 수 있을 석독구결의 '-ㅎ'가 대안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예는 찾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여'가 대안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후기중세 한국어의 예이다.

(30) ㄱ. 太子ㅣ ᄒᆞᄅᆞ ᄒᆞᆫ 낟곰 닐웨예 ᄒᆞᆫ 낟곰 좌시고 여슷 히를 히즛도 아니ᄒᆞ샤 한비도 오며 울에도 ᄒᆞ며 녀르미**여**(A1) 겨스리**여**(A2) ᄒᆞᆫ 말도 아니코 안잿거시든 <석상 3:38b>

ㄴ. ᄒᆞ온삿 ᄆᆞᅀᆞ미 煢煢ᄒᆞ야 울워롤 고디 업순디라 나지**여**(A1) 바미**여**(A2) 기리 ᄉᆞ랑ᄒᆞ야 셜우미 ᄆᆞᅀᆞ매 나ᄂᆞᆺ다(不獲福祐ᄒᆞ야 先帝早棄天下ᄒᆞ시니 孤心煢煢ᄒᆞ야 靡所瞻仰이라 夙夜永懷ᄒᆞ야 感愴이 發中이로다) <내훈 2:17b>

(30)은 모두 시간 명사에 'ㅣ여'가 통합되었다. (30ㄱ)은 '여름'과 '겨울', (30ㄴ)은 '낮'과 '밤'이 시간의 대표항으로 나열되었다. 이에 시간 정보에 대해 비관여적으로 후행절이 성립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석독구결의 '-ㅗ(ㅇ)'의 예이다.

(31) ㄱ. 愚人ㅗ(A1) 智人ㅗ(A2)ㅅㅏㄷ (皆 悉 攝)受ㅅㅏㅊ 是 波羅蜜義ㅣㅎ (愚人

智人 (皆悉 攝)受 是 波羅蜜義)[愚人이니 智人이니 하는 이를 다 攝受하는 것, 이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금광 05:11-12>

ㄴ. 左邊ㅜ(A1) 右邊ㅜ(A2)ㅣㅎㅓ 師子ㅢ 臆ㅇㅓ 長毫ㅅㅣㄱ 獸ㅇㅡ 王ㅢ ㅁㅣ 一切 衆獸ㄹ 悉ㅇ 皆 怖畏ㅅㅢㅌㅣㄴㄱㅡㄹ 菩薩ㄱ 悉ㅇ 見ㅏㅋㅡㅣ(左邊右邊 師子臆長毫獸王 一切衆獸 悉皆怖畏 菩薩悉見)[左邊이니 右邊이니 하는 곳에서 師子가 가슴에 長毫한 獸의 王이라서 一切 衆獸를 다 怖畏하게 하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금광 06:15-06:17>

(31ㄱ)에는 인간의 대표항이라 할 수 있을 '우인(愚人)'과 '지인(智人)'이 등장하였다. 이에 어떤 대상이든 섭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1ㄴ)은 위치 정보에 대한 대푯값이라 할 수 있을 '좌변(左邊)'과 '우변(右邊)'이 등장하였다. 이에 어느 장소에서든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중세 한국어에서도 대안 조건적 양보가 확인된다. 이는 이접 표현인 '이나', '-나$_1$', '-ㅋ$_1$'와 첨가 초점사를 포함한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일부 연접 표현의 경우도 대안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30]

3.3. 자유 선택사 양보

기본적 논의에서 자유 선택사 양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본절에서는 이에 대해 상술하도록 한다. 첨가 초점사 양보에서는 첨가 초점사의 대안 집합을 상정하는 기능을 통해, 대안 조건 양보에서는 대안적 조건을 나열하는 것을 통해 양보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자유 선택사 양보는 자유 선택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Haspelmath & König(1998: 570)에서는 이러한 자유 선택사 양보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무관함을 나타내는 표현(ever ..)과 비한정사(wh- ..)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절의 미명세된

30) 본고의 3.2절에서는 중세 한국어에 존재하는 연접, 이접 표현이 양보로 사용된 경우의 일부만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앞으로 연접, 이접 표현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중세 한국어의 대안 조건적 양보를 더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에 어떤 대상이 와도 언제나 후행절이 성립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도 비한정적 표현과 첨가 초점사와 결합해 자유 선택사 양보가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32)와 같다.

(32) ㄱ. **무슨** 일을 맡**겨도**(A) 철수는 항상 훌륭하게 해낸다(not-B).
ㄴ. **아무리** 물어**봐도**(A)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not-B).
ㄷ. **누구도**(A)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not-B).

(32ㄱ)에서는 비한정사 '무슨'과 '-어도'가 나타났다. 이때 '맡기는 일'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ㄴ)의 경우는 부사 '아무리'와 '-어도'가 나타났다. 이때는 물어봄의 횟수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32ㄷ)은 문제를 풀 사람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된다.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도 자유 선택사 양보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모(아ᄆᆞ)' 및 '아모(아ᄆᆞ)' 계열 비한정사 혹은 부사 '현마' 등과 첨가 초점사 등의 복합으로 양보가 실현된 경우들을 찾을 수 있었다.

3.3.1. '아모(아ᄆᆞ)'

먼저 '아모(아ᄆᆞ)' 및 '아모(아ᄆᆞ)' 계열 비한정사의 경우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개별 용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진호(2007), 이상훈(2019)에서는 '아모(아ᄆᆞ)'의 용법을 부정극성, 자유 선택, 자리채우미, 내포 의문절 내에서의 의문사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자유 선택 양화 양보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유 선택과 부정 극성의 용법이다. 자유 선택의 경우 초점화된 표현에 어떤 것이 들어가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아무나). 부정 극성은 항상 부정어가 공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아무도).[31] 다만, 이 두 기능은 모두 부정(不定)의 의미를 지니는 '아무'와 '이나, 도'의 복합에 의한 것으로 포괄하여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

31) 이는 다시 직접 부정(direct negation)에 해당한다.

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아무도'가 거의 반례를 허용하지 않고 항상 부정극어로 쓰이므로 두 의미 기능을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기중세 한국어 단계에서는 "아모 (NP)도"가 부정극어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하귀녀(2005: 212), 이상훈(2019: 191)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아래는 두 논의에서 제시된 예들이다.

(33) ㄱ. **아못 것도** 至極ᄒᆞᆫ 거시 精이라 <월석 서18b>
ㄴ. **아모 거긔도** 제 무레 위두ᄒᆞᆫ 거슬 王이라 ᄒᆞᄂᆞ니라 <월석 1:24a>
ㄷ. 師ᄂᆞᆫ 스스이니 **아못 일도** 잘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 師ㅣ라 ᄒᆞᄂᆞ니 <월석 2:46a>
ㄹ. **아모 ᄃᆡ도** 됴ᄒᆞ니라 <月釋20:74a>

(34) ㄱ. 입시우렛 터리 ᄒᆞ나히 나마 잇거시ᄂᆞᆯ **아모도** 가지디 몯ᄒᆞ얫더니 <석상 23:56>
ㄴ. 解脫은 버슬씨니 **아모 ᄃᆡ도** 마ᄀᆞᆫ ᄃᆡ 업서 듣글 ᄡᅵ 걸위디 몯ᄒᆞᆯ 씨라 <월석 서8>
ㄷ. 三昧ᄂᆞᆫ 正ᄒᆞᆫ 고대 一定ᄒᆞ다 ᄒᆞᆫ 마리니 **아못 일도** ᄆᆞᅀᆞ매 업서 正ᄲᅮ니니 <월석 4:12>
ㄹ. 그ᄢᅵ 冊앳 두 字ㅣ ᄒᆞ야디여 **아모도** 모ᄅᆞ더니 密多羅도 모ᄅᆞ거ᄂᆞᆯ 太子ㅣ ᅀᅡᄀᆞᄅᆞ치시더라 <석상 3:10>

(33)은 부정어와 공기를 하지 않으며 자유 선택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로 제시된 것이다. (34)은 부정어와 공기해 현대 한국어의 '아모 (NP)도'와 동일하게 사용된 용례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15세기 나타나는 '아모 (NP)도'의 용례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부정극어'는 '부정 문맥에서만 쓰일 수 있는 부정 자질을 가진 극성어'이기 때문에 반례가 다수 등장한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다. 그동안은 현대 한국어와의 연관성 하에서 관용적으로 적용해온 듯하다. 그러나 '아모 (NP)도'의 용례 자체가 10여건 남짓하며 약 절반가량이 반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15세기 한국어만을 기술한다면 이들을 부정극성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에 15세기에 "아모 (NP)도"는 아직 부정극어로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공시적으로는 자유 선택으로 포괄하여 다룰 수 있겠다.[32] 본고에서는 15세기 한국어만을 살피고 있으므로 이들을 자유 선택사 양보로 포괄해 다루는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이제 개별 예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35)는 '아모(아ᄆᆞ)'에 '도'나 '이나'가 결합된 경우다.

(35) ㄱ. 즘게 남ᄀᆞᆯ 樹王이라 ᄒᆞᄃᆞᆺ ᄒᆞ야 **아모 거긔도** 제 무레 위두ᄒᆞᆫ 거슬 王이라 ᄒᆞᄂᆞ니라 <월석 1:24a>

ㄴ. **아모 사ᄅᆞ미나** 이 藥王菩薩ㅅ 本事品을 듣고 能히 隨喜ᄒᆞ야 讚歎ᄒᆞ면 이 사ᄅᆞ미 現ᄒᆞᆫ 뉘예 이베셔 샹녜 靑蓮華 香내 나며 몸 터럭 굼긔셔 샹녜 牛頭栴檀 香내 나며 得ᄒᆞᆫ 功德이 우희 니ᄅᆞᄃᆞᆺ ᄒᆞ리라(若有人聞是藥王菩薩本事品 能隨喜讚善者 是人現世口中常出靑蓮華香 身毛孔中常出牛頭栴檀之香 所得功

32)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어휘사를 참고할 수 있다(마원걸 2021: 7). 이 논의는 본래 부정량(不定量)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약간'이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점차 소량(小量)으로 의미 변화를 겪는 과정에 대해 살핀 것이다. 이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도'가 포함된 '약간도' 구성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의 '약간도'는 부정극어이자 첨가 초점사 양보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시기의 '약간'의 의미는 '부정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약간도'가 후기중세 한국어의 '아모 (NP)도'처럼 부정량에 '도'가 결합하여 자유 선택의 의미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예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ᄯᅩ 셔방 가기 어렵다 니르지 마시소 약간 념불ᄒᆞ야도 다 가리라 ᄒᆞ시고 극낙셰계 간 사ᄅᆞᆷ은 다 부톄 되니다 ᄒᆞ시며 <염불보권문 20b>

제시한 예문에서의 '약간'은 소량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부정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소량으로 본다면 첨가초점사 양보로 볼 수 있다. 즉, 가장 조금 염불하는 경우를 최솟값으로 삼아 그런 경우에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 총망라성을 획득한 것이다. 부정량으로 본다면 자유 선택사 양보로 볼 수 있다. 염불의 횟수에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 결과적으로는 두 경우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흥미롭다. 현대의 약간은 부정량이 아닌, 소량으로 의미가 굳어진 바, 이러한 양보의 두 가지 용법의 중의성을 '약간'의 의미 변화의 교량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무도'와 같은 '비한정사 (NP)도' 구성이 부정극어화된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德 如上所說) <석상 20:29b-30a>

ㄷ. **아뫼나** 이 藥師瑠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ᄫᆞ면 뎌런 모딘 이리 害티 몯ᄒᆞ며 서르 慈悲心을 내야 믜븐 ᄆᆞᅀᆞ미 업고 各各 깃거 서르 有益긔 ᄒᆞ리라(是諸有情若得聞此藥師琉璃光如來名號 彼諸惡事悉不能害 一切展轉皆起慈心利益安樂無損惱意及嫌恨心 各各歡悅於自所受生於喜足 不相侵淩互爲饒益) <석상 9:17b>

(35ㄱ)은 '도'가 나타난 것으로 대상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5ㄴ)은 '이나'가 나타난 것으로 사람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38ㄷ)의 '아뫼나'는 '아모'에 '이나'가 결합한 어형으로 이 경우도 사람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36)은 '아ᄆᆞ란, 아ᄆᆞ례나' 등 '아모(아ᄆᆞ)'에서 기원한 어형들이다.[33]

(36) ㄱ. 毗多ㅣ 닐오ᄃᆡ 네 현마 梵天이며 釋提桓因이며 毗沙門天이며 **아ᄆᆞ란** 諸天ᄃᆞᆯ 힌그에 가**도** 몯 그르리라(優波毗多語魔言 汝向梵天釋提桓因毘沙門天 向魔醯首羅天婆樓那天 乃至入於大火不能令燒 入於大水不能爛 彼諸天等欲解汝縛永不能得) <월석 4:23a>

ㄴ. **아ᄆᆞ란** ᄆᆞᅀᆞᆯ**히어나** 자시**어나** ᄀᆞ올히**어나** 나라히**어나** 뷘 수프리**어나** 이 經을 너비 펴며 藥師瑠璃光如來ㅅ 일후믈 디니ᅀᆞ바 恭敬 供養ᄒᆞᅀᆞᄫᆞ리옷 잇거든 우리ᄃᆞᆯ히 이 사ᄅᆞ믈 衛護ᄒᆞ야 一切 苦難을 버서나고 願ᄒᆞ논 이ᄅᆞᆯ 다 일의 호리이다(隨於何等村城國邑空閑林中 若有流布此經或復受持藥師琉璃光如來名號 恭敬供養者 我等眷屬衛護是人 皆使解脫一切苦難 諸有願求悉令滿足) <월석 9:61b>

ㄷ. 目連이 노ᄒᆞᆫ대 그 어미 몰여 드러가며 블러 닐오ᄃᆡ 아가 아가 하 셜버ᄒᆞ노니 **아ᄆᆞ례나** 救ᄒᆞ야 내오라(目連放 却阿孃被獄主驅入獄中 喚言我兒 嬌子嬌子 苦痛難忍 百方作計 救取阿孃) <월석 23:87b>

33) '아ᄆᆞ리, 아ᄆᆞ라나, 아ᄆᆞ라니, 아ᄆᆞ려' 등은 우리가 살핀 15세기 후기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문증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들은 16세기 및 언간 자료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상훈(2011, 2019)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6ㄱ)의 '아ᄆᆞ란'은 '아ᄆᆞ'에 접미사 '-라'가 통합되고 다시 '아ᄆᆞ라ᄒᆞ-'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34] 제천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36ㄴ)에도 동일한 '아ᄆᆞ란'이 발견되나 자유 선택의 대상으로 장소명사인 'ᄆᆞ슬(A1), 잣(A2), ᄀᆞ올(A3), 나라ㅎ(A4), 뷘 수플(A5)' 등이 나열되었다. 이에 자유 선택사 양보와 대안 조건적 양보와 공모하는 예로 볼 수 있을 듯하다. (36ㄷ)의 '아ᄆᆞ례나'의 경우 '어떻게든'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35] 비한정 대명사 '아ᄆᆞ'에 방법의 접미사 '-례'(혹은 '-려')가 결합한 형태에 이접 표현인 '이나'가 결합해 방법에 대해 자유 선택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다.[36]

마지막으로 15세기 '아마도'가 한 건 문증되는데, 의미 기능이 관계가 있는 듯해 살펴봄 직하다. 형태적으로는 '아마'가 문증되므로 '아마'와 '도'로 쪼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때의 '아마'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음 (37)을 보도록 한다.

(37) (迦葉佛 위ᄒᆞᅀᆞ바 이 ᄯᅡ해 精舍 이르ᅀ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사더니 처섬 이에셔 사던 저그로 오ᄂᆞᆳᆱ ᄀᆞ장 혜면 아ᄒᆞᆫᆞᆫ 劫이로소니 제 ᄒᆞᆫ 가짓 모ᄆᆞᆯ 몯 여희여 죽사리도 오랄쎠 ᄒᆞ노라) <u>아마도 福이 조ᅀᆞᄅᆞᄫᆡ니 아니 심거 몯ᄒᆞᆯ 꺼시라</u>(迦葉佛時 汝亦爲佛 於此地中起立精舍 而此蟻子亦在中生 乃至今日 九十一劫 受一種身不得解脫 生死長遠 <u>唯福爲要 不可不種</u>)<석상 6:38a>

---

34) 이는 이현희(1985: 233)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접미사 '-라'는 '-러'와 모음조화짝으로 분간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방향이나 방법 정도라 할 수 있다.

35) 이때, '어떻게든'의 경우 당위의 양태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듯하다. 아래와 같은 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 다믄 ᄒᆞᆫ 앗이 뎌런 모딘 ᄠᅳ들 머그니 <u>아ᄆᆞ례나</u> 고티게 호리라 ᄒᆞ고(吾唯有一弟。忽生邪見恐永迷沒 我<u>當方宜</u>除其惡念 卽還宮內)"<석상 24:27a>의 경우 '마땅히, 반드시' 정도의 의무 양태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에 대해 '아ᄆᆞ례나'로 언해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36) 이 구성에 대해 이상훈(2019: 200)에서는 '아ᄆᆞ려'에 '이나'가 통합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아ᄆᆞ려'는 15세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ᄆᆞ(아모)'에 접미사 '-례'와 '이나'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 바 있다. 물론 '아ᄆᆞ려'의 경우도 접미사 '-려'가 통합한 것이 아니라 '아ᄆᆞ리ᄒᆞ야'에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희(1985: 18-19)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37)의 마지막 문장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개미 이야기의 끝에 등장하는 것으로 '福'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의 '아마도'의 의미 기능으로는 '추측' 정도가 제시되어 온 듯하다.[37] 그러나 원문의 '唯'에 대응한다는 점, 이전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적 내용을 한정, 강조하여 말하는 맥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직, 단지' 정도로 의미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anyway'류 표현의 유형론적 특징을 기술한 König(1985: 278)를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nyway'류 표현은 1) 양보, 2) 조건적 양보, 3) 한정, 4) 이전 주제로의 회귀,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중 조건적 양보와 한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38]

(38) ㄱ. I don't want to invite Fred. He won't/wouldn't come <u>anyway.</u> (조건적 양보) [König(1985: 278)의 예]

ㄴ. Natural language expressions tend to have simple, stable and unitary senses in many cases <u>anyway</u>. (한정) [König(1985: 278)의 예]

(38ㄱ)은 조건적 양보의 예로 화자는 초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Fred가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때의 'anyway'는 (초대의) 사건을 자유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 (38ㄴ)은 한정의 용법이다. 이때의 'anyway'은 선행 담화를 자유 선택의 대상으로 삼아 그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장의 의미가 한정되고 강조의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37)의 '아마도'의 경우도 그 내부 구성을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아ᄆᆞ(모)'와 '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자유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 담화와의 관여성을 부정함으로서 한정의 의미를

37) 역주서인 허웅(1991), '아모' 기원형 어형 연구인 이상훈(2019: 203) 등에서 간단히 제시된 바 있다.

38) 'anyway'류 표현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편(universal) 혹은 자유선택(free choice) 양화사를 포함하고 다른 요소로는 일반적인(general), 비명세적인(non-specific) 명사(noun) 또는 대명사(pronoun)를 포함하는 것들로 독일어의 'aufjeden Fall, in jedem Fall, auf alle Fälle, jeden falls, wie auch immer', 프랑스어의 'en tout cas, de toute façon', 이집트-아랍어의 'ala hull hal 터키어의 herhalde' 등이 있다.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다.

3. 3. 2. '현마'

다음으로는 '현마', '현' 등의 경우로 '-어도, -고도, -ㄴ둘'과 공기하는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39]

(38) ㄱ. 이 ᄆᆞᅀᆞᆷ 體ᄂᆞᆫ 微妙ᄒᆞ야 相 업서 이슈미 ᄃᆞ외디 아니ᄒᆞ며 **현마 ᄡᅥ도** 업수미 ᄃᆞ외디 아니ᄒᆞᄂᆞ니라(此之心體 如肇師云 微妙無相不可為有 用之彌勤不可為無) <월석 9:21b>

ㄴ. 하ᄂᆞᆯ히 **현마** 즐겁**고도** 福이 다ᄋᆞ면 도라 ᄂᆞ려 ᄆᆞᄎᆞ맨 受苦ᄅᆞᄫᆡ 길ᄒᆞ로 가ᄂᆞ니 <석상 3:34a>

ㄷ. **현마** 어린**ᄃᆞᆯ** 주구ᄆᆡ 저픈 고ᄃᆞᆯ 모ᄅᆞᆯ 것 아니어니와 아비 주구믈 몯 ᄎᆞ마 ᄒᆞ노이다(囚雖蒙弱 豈不知死可畏 不忍見父極刑 所以殉身不測) <삼강 孝23>

ㄹ. 石壁에 ᄆᆞᄅᆞᆯ 올이샤 도ᄌᆞᄀᆞᆯ 다 자ᄇᆞ시니 **현** 번 ᄡᅱ운**ᄃᆞᆯ** ᄂᆞ미 오ᄅᆞ리잇가(片箭一發 島夷驚畏 何敵之堅 而兵不碎) <용가 49下>

(38ㄱ)은 '현마'와 '-어도'가 (38ㄴ)은 '현마'와 '-고도'가 공기하였다. 자유 선택의 대상은 각각 쓰는 것의 횟수, 즐거움의 정도에 해당한다. (38ㄷ)의 경우 '현마'와 '-ㄴ둘'이 사용되었으며 자유 선택의 대상은 '어린 것'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38ㄹ)의 경우 '현 번 ᄡᅱ운둘'으로 나타나 뛰는 횟수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된다.

요컨대 15세기 한국어에서도 자유 선택사 양보가 발견된다. 우리는 '아모, 아ᄆᆞ란, 아ᄆᆞ례나, 현마' 등에 첨가 초점사나 '-나$_2$', '-ㄴ둘'과 같은 양보 표현이 공기하는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아모(아ᄆᆞ)'계열 비한정사들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16세기 이후의 언간 자료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39) '현마'에 대한 논의는 이상훈(2012)를 참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15세기 한국어의 '현마'는 "얼마", "아무리", "끝내, 절대로"의 네 가지 의미로 실현되었으며 현대 한국어 '설마'에 해당하는 의미는 16세기 들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중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아무리"의 의미다.

우연적 공백이 아닐까 싶다.

3.4. 조건-의문형 양보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주요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나,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조건적 양보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ㄴ들'에 대해 살펴본다.

'-ㄴ들'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적 양보 표현과 바꿔쓰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래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동일한 원문에 대해 '-ㄴ들'이 '-어도'로 바뀌어 언해된 경우가 존재한다.[40] 둘째, 『月印釋譜』, 『釋譜詳節』에서 양보부사 '비록'과 공기하는 연결어미는 '-어도, -나$_2$, -ㄴ들, -거니와, -ᄲᅮᆫ뎡' 외에는 없다.[41] 셋째, 비한정사와 복합으로 자유 선택사 양보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했다(3.3절 참조).

우리는 '-ㄴ들'을 조건에서 발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건문의 주절에 의문형이 온 경우를 교량으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먼저 '-ㄴ들'의 특징을 살핀 뒤, 내부 구조와 역사적 변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후기중세 한국어의 'ㄴ들' 구성은 두 가지 정도로 사용된다. 하나는 명사구 보문 구성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것, 다른 하나는 양보의 연결어미다.[42] 우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연결어미 '-ㄴ들'은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 모두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절에 수사 의문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후행절 사이에 후행절 성립에 관여하는 절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 듯하다.[43] 이러한 특징들은

---

40) "當時로 사라이신들 주구메셔 다ᄅᆞ리잇가 <석상 24:28ㄴ>", "비록 命이 긋디 아니ᄒᆞ야도 주그니와 다ᄅᆞ디 아니커니 <월석 25:133ㄴ>" 대응되는 한문 원문은 "雖未命絕與死何異"으로 보인다.

41) 비록 智慧 ᄇᆞᆯᄀᆞ신들 世間애 므스기 有益ᄒᆞ료(雖有薄拘句 於世何所益) <석상 24:39ㄱ>

42) 이금영(2019: 92)에 따르면 15세기의 '-ㄴ들'의 용례는 455개로 명사구 보문 구성은 317건, 연결어미는 138건으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43) 주절에 수사의문이 오는 경향과 관계하여 선·후행절 사이에 'C절'이 삽입될 수

후대형인 현대 한국어 '-ㄴ들'에도 평행하게 나타난다.[44]

아래 (39)는 '-ㄴ들'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문이다.

(39) ㄱ. 東都에 보내어시늘 하리로 **말이ᄉᆞᄇᆞᆫ들(A)** 이 곧 뎌 고대 後△날 다ᄅᆞ리잇가 (not-B) (遣彼東都 沮以讒說 於此於彼 寧殊後日) <용가 26上>

ㄴ. (기대) 참소로 말리면(A), 훗날의 일이 다를 것이다(B).

(39ㄱ)은 '하리로 말이숩-'에 '-ㄴ들'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후행절은 수사의문으로 '훗날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기대는 (39ㄴ)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두 명제의 관여성을 부정해 참소로 말리는 것과 관계없이 훗날의 일이 달리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태종이 형의 참소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임금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다. 이때, 훗날의 일이 달라진 것에 관여적인 명제(C)는 명세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의미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참소로 말리면(A)	→	훗날의 일이 다를 것이다(B).
? (C)	→	**훗날의 일이 다르지 않다(not-B).**

(40)는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이다.

(40) ㄱ. 오직 아바닚 病이 됴ᄒᆞ실씨언뎡 모ᄆᆞᆯ 百千 디위 **ᄇᆞ료민들(A)** 므스기 어려ᄇᆞ료(not-B) (但使父王病得損者 假使捨百千身 亦不爲難 況我今日此穢身也) <석상 11:20a>

ㄴ. (기대) 몸을 백천 번 버리는 것이면(A) 어렵다(B).

ㄷ. ᄒᆞᆫ 번 그 道ᄅᆞᆯ 일흐면 비록 **뉘으츤들(A)** 어루 미츠리여(not-B) (一失其道ᄒᆞ면 雖悔ㄴ들 可追아) <내훈 서:8a>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44) 현대 한국어의 '-던들'의 경우 반사실적 가정에 사용되는 연결어미로 16세기 언간 자료에서부터 발견된다(이지영 1999ㄱ, 2002). 이에 '-던들'은 우리의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ㄹ. (기대) 뉘우치면(A) 좋을 수 있다(B).

ㅁ. 비록 며느릐 천량을 因ᄒᆞ야 뼈 가ᄉᆞ며로ᄆᆞᆯ 닐위며 며느릐 有勢ᄅᆞᆯ 브터 뼈 貴호ᄆᆞᆯ **取ᄒᆞᆫᄃᆞᆯ(A)** 眞實ㅅ 丈夫의 ᄠᅳᆮ과 긔운과ᄅᆞᆯ 뒷ᄂᆞᆫ 사ᄅᆞ민댄(C) 能히 붓그러오미 업스리여(not-B)(借使因婦財ᄒᆞ야 以致富ᄒᆞ며 依婦勢ᄒᆞ야 以取貴ᄒᆞᆫᄃᆞᆯ 苟有丈夫之志氣者ㄴ대 能無愧乎아) <내훈 1:82a>

ㅂ. (기대) 며느리의 유세를 의지해 귀하게 되면(A) 부끄럽다(not-B).

(40ㄱ)은 인욕태자(忍辱太子) 보시행의 한 부분으로, 부왕의 병을 고치는 데에 눈동자와 골수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한 발화이다. 실제로 몸을 백천 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겠다. (40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며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45]

몸을 백천 번 버리는 것이면(A)	→	어렵다(B)
아버님의 병이 낫는다면 (C)	→	**어렵지 않다(not-B).**

(40ㄷ)과 (40ㅁ)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로 (40ㄹ), (40ㅂ)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둘 다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다.[46]

앞서 언급했듯 반사실적 가정(Counterfactual)을 표현하는 '-던ᄃᆞᆯ'은 15세기에는 문증되지 않는다. 다만, 선행절에서 사실과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예들은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41)과 같다.

(41) ㄱ. 하ᄂᆞᆯ히 ᄀᆞᆯ히이시니 누비즁 **아닌ᄃᆞᆯ(A)** 海東黎民을 니ᄌᆞ시리잇가(not-B) (天方擇矣 匪百衲師 海東黎民 其肯忘斯) <용가 21下>

---

45) 동일한 내용에 대해 『月印釋譜』에서는 '-어도'가 나타났으며 의문형으로 종결되지도 않았다. "오직 아바닚 病이 됴ᄒᆞ실시언뎡 모ᄆᆞᆯ 百千 디위 **ᄇᆞ려도** 어렵디 아니ᄒᆞ니 ᄒᆞᄆᆞᆯ며 이 더러ᄇᆞᆫ 모미ᄯᆞ녀"<월석 21:216b>

46) 유사한 구성이 『釋譜詳節』에서도 나타난다. "王子ㅅ 命이 닐웻 부니로소니 아ᄆᆞ례나 ᄆᆞᅀᆞᆷ ᄀᆞ장 노라ᅀᅡ ᄒᆞ리이다 주근 後에ᅀᅡ **뉘으츤ᄃᆞᆯ(A)** 미츠리여(not-B)" <석상 24:28a> 이때의 '-ㄴᄃᆞᆯ'은 단순 조건으로 보고 해석해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언급하겠으나 의문형-조건문의 경우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ㄴ. (기대) 누비중이 아니었더라면(A), 하늘이 백성을 잊었을 것이다(B).

ㄷ. 굴허에 ᄆᆞᆯ 디내샤 도ᄌᆞ기 다 도라가니 半길 **노뭔돌(A)** 년기 디나리잇가(not-B) (深巷過馬 賊皆回去 雖半身高 誰得能度) <용가 48上>

ㄹ. (기대) 반 길 높이면(A), 누가 지나갈 수 있다(B)

(41ㄱ)의 경우 기대는 (41ㄴ)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배경고사는 익조의 것으로 꿈에 누비중이 나와 도조를 가질 것을 점지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지가 있었다는 것은 작자의 배경지식(backgound)에서 사실이다. 그러나 선행절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점지해준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반사실(counter-factual)적 가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방책을 살펴보면 연결어미나 선어말어미 등이 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부정 표현 '아니'가 결합해 사실에 대척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1ㄷ)의 경우는 후행절이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정도성(scale)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금태조가 구덩이에 떨어졌으나 한길이나 되는 높이를 뛰어오르니 아무도 쫓지 못했다는 배경에서 서술된 것이다. 즉, 사실은 '한 길'임을 알고 있으나 사실에 반하는 '반 길'로 표현해 금태조의 훌륭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척도적) 어휘로 반사실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47]

마지막으로 주절에 수사의문이 등장하지 않은 예문들을 보도록 한다.

(42) ㄱ. 元良ᄋᆞᆯ 무우리라 垂象ᄋᆞ로 하ᅀᆞᄫᆞ니 **庸君이신돌(A)** 天性은 ᄇᆞᆯᄀᆞ시니(not-B) (欲搖元良 讚用妖星 雖是庸君 天性則明) <용가 71上>

ㄴ. (기대) 용군이면(A) 천성도 밝지 않다(B).

ㄷ. 尼樓는 賢ᄒᆞᆯᄊᆡ 내 **나아간돌(A)** 아바님이 나ᄅᆞᆯ 올타 ᄒᆞ시니(not-B) <월곡 5a>[48]

ㄹ. (기대) 집을 나가면(A) 아버지는 옳다고 하지 않는다(B).

ㅁ. 내 비록 몯 **그른돌(A)** 내 諸天ᄃᆞᆯ히 어루 그르리라(not-B)(我雖自不能得解脫

47) 어휘적으로라도 반사실성이 표현될 수 있던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적 양보가 조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8) 동일한 예문이 <월석 1:41a>에도 실려있다.

我諸天足能解之) <월석 4:22b>

ㅂ. (기대) 내가 못 끄르면(A) 제천들이 능히 끄를 수 있다(B).

(42ㄱ)의 경우, 천성이 밝다는 것은 용군(庸君)에게는 기대되지 않을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49] 이에 (42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여 용군인 것과 비관여적으로 천성만은 밝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ㄷ)의 경우 고마왕(鼓摩王)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왕비의 참소로 아들 니루(尼樓)를 내보냈으나 오히려 큰 나라를 세우자 왕이 니루를 칭찬하였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42ㄹ)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해 사실적 양보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2ㅁ)은 사실적 양보로 마왕이 목의 주검을 떼지 못해 제천들에게 가며 한 말이다. 본인이 끄를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제천들이 끄를 수 있을 것임을 단언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문학인 (42ㄱ)과 (42ㄷ)의 경우 동일하게 평서형의 '-니'가 결합하였고 대화문인 (42ㅁ)의 경우 평서형의 '-다'가 결합하여 후행절에 항상 수사 의문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ㄴ들'은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모두 쓰일 수 있다.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던들'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일부 어휘적 수단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경우 주절에 수사 의문이 등장하나, 평서문도 일부 발견되었다.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다른 문장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아 후행절에 관여적인 것으로 전제되는 절(C)이 등장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절이 수사 의문으로 실현되는 것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50]

'-ㄴ들'의 내부 구조와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때, 중요하게 언급될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명사구 보문 구성과 조건적 양보 사이에 단순 조건이 교량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 조건에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한 과정에 대한 것이다.

---

49) 乃如暗主庸君則不知此理 無所畏忌 此其所以天祿永終也 至於如商紂者<孤山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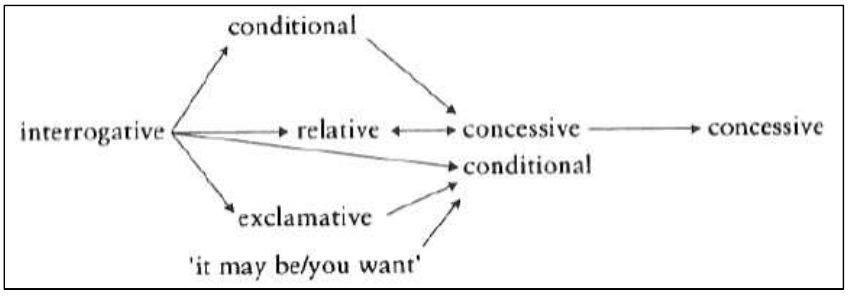
50) 이외에 '오라 혼들', '가라 혼들', '中土心得다 혼들' 등 인용의 형식이 자주 보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지영(2002)에서는 현대국어 반사실적 가정 '-던들'의 기원으로 인용의 형식을 제안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정재영(1996: 79)를 참고하면 '-ㄴ둘'은 동명사 어미 '-ㄴ'에 형식명사 'ᄃᆞ', 그리고 목적격 조사 'ㄹ'이 결합한 것이 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이러한 구성은 'ㄱㅅㄷ/ㄱㅅㄷ' 정도로 표기되었으며 주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후기중세에는 양보의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17-18세기 이후 명사구 보문 구성은 소멸하여 현대 한국어에서는 양보에 전용(專用)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ㄴ둘'의 발달 양상

어미	내부 구조	발달 양상
-ㄴ둘	[[[-ㄴ]#ᄃᆞ]+ㄹ]	NP+목적격 조사 > ___?___ 연결 > 양보 연결

이때, 빈칸을 남긴 까닭은 단순한 'NP+목적격 조사' 구성에서 복합적(complexity) 의미 범주인 양보로 바로 문법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1] <그림 3>과 같은 유형론의 일반적인 변화 경향에 따르면 교량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Haspelmath & König(1998)에서 제시한 양보의 발달 방향

우리는 특히 조건과 조건적 양보 두 범주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51) König(2006: 821)에 양보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후대에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린아이가 가장 늦게 습득', '문어 형식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는 경향'에 의해 증명된다. 더하여 앞서 살핀 양보의 세 형식은 모두 기본적으로 복합적이었다.

(2.3절 참고). 조건적 양보를 조건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Haspelmath & König 1998: 554), 조건 연결사와 첨가 초점사 결합시키거나 조건문의 연접을 통해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Haspelmath & König 1998: 620).[52]

실제로 이러한 양상은 '-ㄴ들'이 조건으로 사용되거나 조건의 연결어미와 다시쓰기된 예가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어 증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3)는 이전 시기인 석독구결의 예이고 (44), (45)은 각각 15세기 이후 문헌인 『박통사』와 『노걸대』의 서로 다른 언해본이다.

(43) {於}戒ㆍ 及ㅌ 學ㆍノ仝ラ十 常 順行ソヒ尸入乙 一切 如來尸 偁美ソ示ヨ尸 所リヒ彳ト(於戒及學常順行 一切如來所) [戒니 및 學이니 하는 것에 대해 항상 順行하면 一切 如來의 偁美하시는 바일 것이며] <화엄 10:13>

(44) ㄱ. 이제 ᄀᆞᄉᆞᆯ 후를 기들워 슈보ᄒᆞᆫ들 므스 거시 저프리오(如今待秋後 整治怕甚麼) <번박 9b>

ㄴ. 이제 秋後ᄅᆞᆯ 기ᄃᆞ려 整治ᄒᆞ면 므서시 저프리오(如今待秋后 整治怕甚麼) <박통사 상10a>

(45) ㄱ. 우리 아ᄆᆞ란 밧븐 일 업거니 므스므려 일 녀리오 하ᄂᆞᆯ ᄇᆞᆰ거든 기들워 날회여 간들 므스기 저프리오(咱們又沒甚麼忙勾當 要甚麼早行) <번노 상30b>

ㄴ. 우리 ᄯᅩ 아므란 밧븐 일이 업스니 엇지 반ᄃᆞ시 일 가리오 하ᄂᆞᆯ이 ᄇᆞᆰ기ᄅᆞᆯ 기ᄃᆞ려 날회여 가면 므서시 저프리오(咱們又沒甚麼忙勾當 何心要早行) <노신 상38b>

(43)은 석독구결에서 '-尸入乙'이 연결어미로 사용된 예 중 하나이다. 이때의 의미는 조건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44), (45)는 이금영(2019: 84)에서 제시한 동일 저본에 대한 서로 다른 번역을 볼 수 있는 자료로 (44ㄱ), (45ㄱ)의 '-ㄴ들'이 (44ㄴ), (45ㄴ)에서는 '-면'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표 6]을

52)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영어의 'even+if', 프랑스어의 'si+même', 레즈기어(Lezgian)의 '-t'a+-ni', 츄바시어(Chuvash)의 '-san+ta', 일본어의 '-te+-mo' 등을 제시하였다.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7] '-ㄴ둘'의 발달 양상

어미	내부 구조	발달 양상
-ㄴ둘	[[[-ㄴ]#ᄃ]+ᄋᆯ]	NP+목적격 조사 > 조건 연결 > 조건적 양보 연결

다음으로는 조건에서 조건적 양보로 의미 변화를 겪는 과정을 추적해 보도록 한다. 다른 연결어미들과 비교했을 때, '-ㄴ둘'과 '-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절에 의문문을 요구하는 특수한 문장 유형 제약에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제약은 역사적인 발달과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제약을 조건적 양보로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건과 조건적 양보는 인접한 범주로, 조건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한다. 그중 조건문의 주절이 의문문의 형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ucrot 1972: 171; König 1986: 238). 예를 보도록 한다.

(46) Will you take the car if the roads are icy? [Ducrot(1972: 171)의 예]

(46)은 단순 조건문의 형식을 보이나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문이다. 단순 조건문이라면 '도로가 얼어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런 경우에 '차를 탈 것인지' 묻는 문장이 된다. '도로가 얼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차를 타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혹은 Atlas & Levinson(1981)의 정보성의 원칙(principle of informativeness)을 고려한다면, 화청자가 이미 아는 정보를 묻고 답할 이유가 없다. 더 정보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도로가 얼어있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들을 상정하여 그런 경우들과 관계없이 차를 탈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처럼 단순 조건문의 주절에 의문문이 온다면 조건적 양보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현대 한국어의 예에도 적용이 가능할 듯하다.

(47) 가끔 딸이 사는 걸 보러 오는 어머니는 구석구석 깔끔한 것보다 구석구석에 서린 썰렁함, 무의미함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노인네답게 그 탓을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으로 돌리곤 했다. 이것아, 그까짓 화분 (아무리) 잘 가꾸면 뭘 하냐? 정작 인(人)화초가 빠진 걸, 그러면서 달여온 보약을 냉장고 속에 가지런히 넣어주고 갈 적도 있었다. (세종)

(47)의 경우 현대 한국어의 예문이다. 조건 연결어미 '-면'이 사용되어 단순 조건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화분을 잘 가꾸는 상황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화분을 잘 가꿔도 집이 썰렁하지 않아지지 않음을 표현한 것으로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의문형 종결어미가 포함된 조건문은 복수의 선행절 명제들과 관계없이 후행절 명제가 성립하는 것인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ㄴ들'의 통시적 발달에도 이러한 현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ㄴ들'은 본래 조건에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 주절에 의문문이 오는 '특수한 제약'이 있다. 이러한 '특수한 제약'은 조건문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맥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절에 의문문이 온 경우를 교량으로 조건적 양보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수한 제약'은 그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44), (45)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ㄴ들'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포함된 단순 조건문으로 다시쓰기 된 예이다. 이 예를 통해 의문형 종결어미가 포함된 단순 조건문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ㄴ들'은 'NP+목적격 조사' 구성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조건의 연결어미로 발달하였고, 다시 양보 연결어미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때, 일반적으로 주절에 의문문을 요구하는 '-ㄴ들, -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건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주절에 의문절이 오는 경우를 교량으로 조건적 양보로 의미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53]

53) 'NP+목적격 조사'구성에서 '조건'의 연결어미로 발달하는 과정은 문제로 남는다.

4. 사실적 양보

제4장에서는 사실적 양보 표현에 대해 다룬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적 양보와는 달리, 사실적 양보는 한 가지 표현 방식만 확인된다. 양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A와 not-B가 모두 사실임을 단언함으로써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표현들을 찾아 분류하고 동기를 설명하는 연구가 행해져 왔다(König 1985, 1988, 2006). 우리의 경우도 사용되는 표현을 찾아 분류 및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중세 한국어의 사실적 양보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이미 다루어 제4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배경 제시 연결의 두 절이 서로 양립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정되는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4.1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세 번째는 맥락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화용론적 대조를 보이는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4.2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4.1. 배경 제시 표현의 양보적 쓰임

현대 한국어 배경 제시 연결어미 중 일부는 사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주된 의미 기능이 양보로 변화했거나 변화하고 있는 표현도 존재한다('-거늘', '-ㄴ데' 등). 중세 한국어에서도 배경 제시 연결어미가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1] 본 절에서는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배경 제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한다.[2]

---

1)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안병희·이광호 1990, 장요한 2010 등)에서 '-오ᄃᆡ', '-거ᄂᆞᆯ', '-건마ᄅᆞᆫ'과 같이 배경 제시 연결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을 양보로도 기술해온 바 있다.

2)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개별 연결어미가 배경 제시에서 양보로의 의미 변화를 보이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기술하는 논의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배경 제시는 '화자가 선행절에서 후행절의 사태를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후행절 사이에 의미·화용론적 인과, 추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만을 이른다(이은경 1996: 206).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 ㄱ. 고개를 넘으면 길가에 폐가가 하나 **나오는데,** 훔친 물건들을 그 집 헛간에 다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윤평현(1999: 607)의 예]
ㄴ. 자정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아직 안 오셔서 걱정이다. [윤평현(1999: 606)의 예]
ㄷ. 대든다고 창수가 영희의 뺨을 **때렸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윤평현(1999: 606)의 예]

(1)의 예문들은 모두 두 절 사이에 의미·화용론적 인과, 추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ㄱ)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1ㄴ)은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1ㄷ)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경 제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선·후행절 사이에 특정한 의미·화용론적 인과, 추론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배경 제시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접속 관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3] 아래 (2)를 보도록 한다.

(2) ㄱ. 돌이는 **가는데,** 순이는 가지 않는다. [윤평현(1999: 619)의 예]
ㄴ.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고단하지 않으신가요? [윤평현(1999: 618)의 예]
ㄷ.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운이 따라주었는지 시험에 붙었어요. [윤평현(1999: 619)의 예]

---

3) 물론, 넓은 의미의 배경 제시로 파악할 수는 있다. 넓은 의미의 배경 제시는 선·후행절의 관계를 단순히 전경과 후경의 관계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접속 관계를 배경 제시 관계라 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된다.

(2)의 경우 선·후행절 사이에 특정한 의미·화용론적 인과, 추론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ㄱ)은 대조, (2ㄴ)은 인과, (2ㄷ)은 사실적 양보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배경 제시 표현은 배경 제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속 범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듯하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2ㄷ)과 같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집중할 것이다.

배경 제시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도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다. 배경 제시와 사실적 양보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이에 맥락에 의해 차이점이 해소된다면, 배경 제시 표현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배경 제시 관계에서 두 명제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적 양보도 동일하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선·후행절 명제가 양립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적절한 문맥에 의해 이러한 관계가 갖춰질 경우, 배경 제시 표현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2ㄷ)의 경우도 선행절은 후행절 성립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명제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과 '시험에 붙음' 사이에는 양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경 제시에서 두 절이 양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고 그것이 부정되어 모두 단언되는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4]

우리는 앞서 제2장 기본적 논의에서 유형론적으로 동시 발생, 공존(Remarkable co-occurrence/co-existence)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 발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배경 제시 표현도 두 절의 동시 발생, 공존을 표현하는 것으로 맥락이 갖추어질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유형에 속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유형의 표현은 맥락적 추론에 의해 양보로 해석되다가 점차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한다(König 1985, 1988, 2006).[5] 한국어에도 배경 제시

---

4) 배경 제시 연결어미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양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도 여럿 진행된 바 있다. 몇 가지를 제시하면 남미정(2004)에서는 '-ㄱㄷ'에 대해, 김지오(2012)에서는 '-ㄱㅗ/ㅏㅗ'에 대해 배경 제시를 기본으로 하되, 역접이나 설명, 혹은 근거 등의 의미가 발견된다고 한 바 있다.

5)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2장 각주 12)에 이미 제시해 둔 바 있다.

표현 중 통시적으로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한 경우가 발견된다. 15세기에 배경 제시의 의미로 흔히 쓰이던 '-거늘'의 경우 주된 의미가 양보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려대한국어사전> 참조). 추가로 제2장 기본적 논의에서는 사실적 요소(factual)에서 사실적 양보로 발달하는 유형도 살펴본 바 있다.[6] '-거늘'에 기원적으로 '확인법'으로 볼 수 있을 선어말어미 '-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지금부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에서 배경 제시 연결어미로 기술되어 온 '-거늘', '-ㄱㄹ', '-오ᄃᆡ', '-ㅎㅏㅁ/-ㅎㄱㅁ', '-건마ᄅᆞᆫ', '-니', '-ㄱㅡ/ㅣ', '-ㅏㅡ/ㅣ'가 양보 의미로 실현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1.1. '-거늘'. '-ㄱㄹ'

'-거늘'은 이현희(1994), 장요한(2010)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배경 제시를 기본 의미로 가지되 근거, 대조, 양보 등의 의미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은 이현희(1994: 71)에서 제시한 예이다.

(3) ㄱ. 그저긔 夫人이 나모 아래 <u>잇거시ᄂᆞᆯ</u> 네 우므리 나니 <월석 2:42a>
ㄴ. ᄀᆞᄅᆞ매 ᄇᆡ <u>업거ᄂᆞᆯ</u> 얼우시고 ᄯᅩ 노기시니 <용가 20上>
ㄷ. 尊者ᄂᆞᆫ 양ᄌᆡ 端正ᄒᆞ고 ᄉᆞᆯ히 <u>보ᄃᆞ랍거시ᄂᆞᆯ</u> 나ᄂᆞᆫ 양ᄌᆡ 덧굿고 ᄉᆞᆯ히 셰요이다 <석상 24:34b-35a>
ㄹ. <u>말이ᄉᆞᆸ거ᄂᆞᆯ</u> 가샤 <용가 58上>

(3ㄱ)은 배경 제시로 "계셨는데", (3ㄴ)은 원인으로 "없었으므로", (3ㄷ)은 대조로 "보드라우시지만", (3ㄹ)은 양보로 "말렸는데도"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받아들여 양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거늘'은 선·후행절에 양립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제가

6) 독일어 'zwar'(it is true), 일본어 'no ni'(fact-essive), 캄보디아어(Cambodian)의 'dbɣt'(because/although), 'dbɣt-tae'(only/but), 'immanel'(is-let be-in fact) 등.

올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4) ㄱ. **말이숩거늘(A)** 가샤(not-B) 깃 ᄀᆞ새 軍馬 두시고 네 사ᄅᆞᆷ ᄃᆞ리샤 셕슬 치자 ᄇᆞ시니(止之亦進 路畔留兵 逐率四人 按轡而行) <용가 58上>

ㄴ. (기대) (가지 말라고) 말리면(A) 가지 않는다(B).

ㄷ. 尊者ㅣ 닐오ᄃᆡ 쥬의겐 花鬘ᄋᆞᆯ 아니 엿ᄂᆞᆫ **거시어늘(A)** 네 연ᄌᆞ니(not-B) (尊者言如比丘不應著花鬘而汝著之) <월석 4:21b>

ㄹ. (기대) 중에게 화만을 얹지 않는 법이면(A) 얹지 않아야 한다(B).

(4ㄱ)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후행절 사이에 화용론적 추론 관계가 존재한다. '말리다'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상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대되지만, 이를 부정해 양보로 해석된다. 실제로 신하의 권유를 무시하고 당태종은 나아갔으므로 사실적 양보라고 할 수 있다.

가지 말라고 말리면	**(A)**	→	가지 않는다(B).
?	(C)	→	**간다(not-B).**

(4ㄷ)의 경우도 선행절에서는 후행절 사건의 바탕이 되는 일종의 규칙이 제시되었다. 이에 (4ㄹ)과 같은 기대가 상정되나, 이를 부정해 중에게 화만을 얹지 않는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화만을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왕 파순(波旬)이 우바국다(優婆鞠多)에게 화만(花鬘)을 씌운 후에 발화된 내용으로 사실적 양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보의 '-거늘'은 '-ㄹ디어늘', '-리어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5)는 이현희(1994: 72)에서 제시한 예이다.

(5) ㄱ. 또 色聲을 여희디 아니ᄒᆞ야 부텻 神通力을 **보ᄉᆞᆸ디어늘(A)** 닐오ᄃᆡ 相ᄋᆞ로 뻐 보디 몯ᄒᆞ리라(not-B) ᄒᆞ니 이런ᄃᆞ로 또 錯이니라(亦不離色聲ᄒᆞ야 見佛神通力이어ᄂᆞᆯ 而云不以相觀이라 ᄒᆞ니 所以亦錯이니라) <금삼 4:59a>

ㄴ. (기대) 부처의 신통력을 볼 것이면(A) 볼 수 있다(B).

ㄷ. 그 부톄 本來 道場애 안ᄌᆞ샤 魔軍 허르시고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ᄒᆞ마 得ᄒᆞ시리어늘(A) 諸佛法이 現ᄒᆞ야 알ᄑᆡ 잇디 아니터니(not-B)(其佛이 本坐道場ᄒᆞ샤 破魔軍已ᄒᆞ시고 垂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어시ᄂᆞᆯ 而諸佛法이 不現在前ᄒᆞ더니) <법화 3:91b>

ㄹ. (기대) 부처가 이미 삼보리를 얻으실 것이면(A) 모든 불법이 현하여 앞에 있어야 한다(B).

(5ㄱ), (5ㄷ)의 경우도 선행절에서 후행절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대의 부정이 나타난다. 각각 (5ㄴ), (5ㄹ)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겠다. '-ㄹ디어늘', '-리어늘'도 양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거늘'과 같은 사실적 양보 표현들은 중 일부는 선행절의 단언적 기술에 대해 후행절에서 예외를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특기할 만하다.[7]

(6) ㄱ. 大海ㅅ 므를 쇠 자고개 몯 담듯 ᄒᆞ야 부텻 智海ᄅᆞᆯ 녀느 사ᄅᆞ미 디니리 **업거늘(A)** 오직 阿難 尊者ㅣ ᄒᆞᆫ 번 듣ᄌᆞᆸ고 다 受持ᄒᆞ야 乃終내 니저 일티 아니ᄒᆞᆯ씨(not-B) (如大海之水 牛跡所不容 如是佛智海 餘人不能持 唯有阿難尊 一聞悉受持 終無忘失時) <월석 25:113b-114a>

ㄴ. 그저긔 夜叉王ᄃᆞᆯ히 圍繞ᄒᆞᅀᆞᄫᆞ며 一切 天人이 다 모다 讚歎ᄒᆞᅀᆞᆸ고 닐오ᄃᆡ 부톄 어셔 ᄃᆞ외샤 衆生ᄋᆞᆯ 濟渡ᄒᆞ쇼셔 **ᄒᆞ거늘(A)** 오직 魔王ᄭᅩᆺ 제 座애 便安

---

7) 이는 수정 양보(Rectifying Concessiv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정 양보는 주절의 단언적 기술을 양보절에서 일부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양보를 말한다(Mizuno 2008: 10).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e is very intelligent, although some of the things that he says are a bit silly. [Mizuno(2008: 10)의 예]

주절에서는 그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후행 양보절에서는 일부 예외적 상황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선행절의 단언적 기술을 후행절에서 예외를 들어 약화시키는 것은 유사하나, 수정 양보는 주절이 약화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수정 양보를 단언적 기술의 절과 예외적 기술의 절의 복합으로 넓게 정의한다면 제시한 구문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히 몯 안자 시름ᄒᆞ야 ᄒᆞ더라(not-B) (諸夜叉王圍繞守護 一切天人讚歎種智 速成佛道 早轉法輪 度脫衆生 惟有魔王不安本座) <월석 2:42b-43a>

(6ㄱ)의 경우 선행절에서 부처의 지해(智海)를 보통 사람이 지닐 수 없음이 제시되었으나 후행절에서는 오직 아난(阿難)만은 이를 해냈음이 나타났다. (6ㄴ)의 경우 선행절에서는 모두가 부처께 제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후행절에서는 마왕만이 이를 걱정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선행절에서 제시된 일반 명제를 통해, 다른 모든 경우에도 그러한 일반 명제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후행절에서 예외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서 그러한 기대를 부정하고, 선행절 명제와 비관여적으로 후행절 명제가 성립함을 표현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구문도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더하여, 이들 구문에는 후행절에 부사 '오직'이나 'ᅀᅡ', '곳' 등 한정의 요소가 공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문 저본에서도 '唯, 只' 등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 단순화하면 "A {거늘/거니와/건마른 .. }, (오직) B" 정도로 표상할 수 있겠다.[8]

요컨대 후기중세 한국어의 '-거늘'은 기본적으로는 배경 제시의 의미 기능을 가지나, 선·후행절 명제가 양립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8) 이와 유사한 구문으로 주로 '況'에 대한 언해로 나타나는 "A{거늘/거니와/건마른 .. }, ᄒᆞ물며 B이ᄯᆞ녀" 형식의 비교 구문을 제시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현희(1982: 55)에서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선행절에서는 일반적인 진술이 제시된다는 점을 수정 양보와 동일하다. 그러나 수정 양보는 후행절에서 예외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구문은 그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수사 의문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施主ㅣ 오직 衆生의게 一切 즐거ᄫᆞᆫ 것만 주어도 功德이 그지 업스리어늘 ᄒᆞ물며 阿羅漢果ᄅᆞᆯ 得게 호미ᄯᆞ니잇가(若是施主 但施眾生一切樂具 功德無量 何況令得阿羅漢果) <월석 17:49a>

위 예문의 경우 미륵보살(彌勒菩薩)의 발화로 선행절에서는 중생에게 즐거운 것만 주어도 공덕이 그지없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다시 뒤에서는 중생이 그것보다 더 좋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는 내용을 제시되었다. 즉, 선행절의 명제가 참이라면 후행절은 더 참일 가능성이 높은 명제가 나타난 것이다.

추가로 중요하게 고려될 점은 선어말어미 '-거-'의 존재다. 이용(1997, 2000). 황선엽(2002) 등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 '-거늘'은 동명사 어미 '-ㄴ'에 목적격조사 'ㄹ'이 결합한 구성이 연결어미로 변화한 후, 다시 선어말어미 '-거-'가 통합한 형태인 '-거늘'이 하나의 연결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선어말어미 '-거-'의 기능은 확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서법 범주 '확인법'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사실을 단언하는 표현이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존재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거늘'의 선대형이라 할 수 있는 전기중세 한국어의 '-ㅣ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황선엽(2002: 179). 남미정(2004: 174-177)을 참고하면, '-ㅣㄹ'은 배경 제시를 기본 의미로 가지되, 문맥에 따라 원인, 양보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는 (7)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7) ㄱ. 其 會ㅌ 方廣ㅣ <u>九百五十里ㅐㅣㄹ</u> 大衆ㅐ 僉然ㅎ 而ㅠ 坐ㅅㅌㅅㄴㅣ(其會方廣九百五十里大衆僉然而坐)[그 會의 사방 넓이가 九百五十里였는데 大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구인 02:08-09>

ㄴ. 衆生ㅣ 迷惑ㅅㅈㅎ 邪敎ㄹ 稟ㅅㅏㅣㅅㅠ {於}惡見ㅈㅓ 住ㅅㅈ 衆ㅣ 苦ㄹ <u>受ㅏㅣㄹ</u> 其ㅋ {爲}ㅈ 方便ㄹㅠ 妙法ㄹ 說ㅈ 悉ㅈ 得ㅈㅎ 眞實諦ㄹ 解ㅅ{令}ㅐㅎㅣㅁ(衆生迷惑稟邪敎 住於惡見受衆苦 爲其方便說妙法 悉令得解眞實諦)[衆生은 迷惑하여서 邪敎를 받는 까닭으로 惡見에 머물러 많은 苦를 받거늘 그를 위해 方便으로 妙法을 일러 다 능히 眞實諦를 알게 하되] <화엄 20:06-7>

ㄷ. 彼 諸ㅣ 功德ㅣ 量ㅈㅎㅎ可ㅌㅅㅣ <u>不ㅊㅣㄹ</u> 我ㅣ 今ㅅㅣ 力ㄹ 隨ㅎ 少分ㅋ ㅿㄹ 說ㅎㅇㅁ 猶ㅅㅣ 大海ㅈㅌ 一ㅣ 滴ㅎㅌ 水 如ㅊㅅㅣㄹㅅㅁㄹㅎㅎㅌㅣ(彼諸功德<u>不</u>可量 我今隨力說少分 猶如大海一滴水)[저 모든 功德은 헤아릴 수 없거늘 나는 지금 힘을 좇아 일부분을 이르기를 비유하면 大海의 한 방울 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화엄 09:02-03>

(7ㄱ)은 배경 제시, (7ㄴ)은 원인, (7ㄷ)의 경우 양보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ㅣㄹ'은 선·후행절에 양립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제가 올 경우 사실적 양

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8) ㄱ. 彼 諸ㄱ 功德ㄱ 量ㄱ ㄱ可ㄴㅅㄱ **不ㄴㄱㄹ(A)** 我ㄱ 今ㅅㄱ 力ㄹ 隨ㄱ(C) 少分ㅌㅎㄹ 說ㄱㄷㅁ(not-B) 猶ㅅㄱ 大海ㄱㄴ 一ㄱ 滴ㄱㄴ 水 如ㅊㅅㄱㄹㅅ ㅁㄹㄱㄱㄴㅣ(彼諸功德不可量 我今隨力說少分 猶如大海一滴水)[저 모든 功德은 헤아릴 수 없거늘 나는 지금 힘을 좇아 일부분을 이르기를 비유하면 大海의 한 방울 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화엄 09:02-03>

ㄴ. (기대) 모든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면(A), 말하지 않는다(B).

ㄷ. 法界ㄱ 分別 無ㄴㅁㄱ 是 故ㅡ 異ㅅㄱ 乘 **無ㄴㅁㄱㄹ(A)** 衆生ㄹ 度ㅅ{爲}ㅅㅅㄷㅏㅅㅡ 故ㅣ(C) 分別ㅅㄱ 三乘ㄹ 說ㄷㅁㄱㅐㄱㄴㅣㅅㅂㅅㄷㅣ(not-B)(法界無分別 是故無異乘 爲度衆生故 分別說三乘)[法界는 分別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다른 乘 없거늘, 衆生을 濟度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分別하여 三乘을 說하셨습니다. 하셨다.] <금광 13:16-17>

ㄹ. (기대) 다른 乘이 없으면(A), 분별하여 三乘을 설하지 않는다(B).

ㅁ. 或ㄱ 獄卒ㄱㅓ 問ㅓㄷㅜ 衆生ㅐ 苦ㄹ 受ㅏㄱㄱㅅㄱ 甚ㄱ **悲念ㅣㄴ 可ㄴㅅㄱㄹ(A)** 而ㄱ 汝ㄱ 常ㅐ 酷毒ㄹ 懷ㄴㅅㄱ 慈愍ㅣㅎㄴ 心ㄴ 無ㄴㅓㅣㅅㅁㅓㄱ(not-B)(或問獄卒 衆生受苦甚可悲念 而汝常懷酷毒無慈愍心)[누구는 옥졸에게 묻기를,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심히 슬퍼함 직하거늘 너는 항상 심한 독을 품어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 하니] <자비 21:02-04>

ㅂ. (기대) 중생이 괴로움 받는 것이 슬퍼함 직하면(A), 독을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B).

(8ㄱ)의 선행절에서는 후행절의 배경이 되는 ‘공덕(功德)을 헤아릴 수 없음’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선·후행절 명제 사이에 (8ㄴ)과 같은 기대가 상정되며 그러한 기대를 부정해 헤아릴 수 없어도 일부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에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8ㄷ)의 경우도 선행절에서는 ‘乘’와 그에 대한 정보가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기대로 (8ㄹ)이 상정되며 그러한 기대를 부정해, 삼승(三乘)을 설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양보로 볼 수 있다.[9] 이때 ‘衆生을 濟度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가 C절로 등장

9) 이 두 예문은 상당히 투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이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乘이 없으면	**(A)**	→	三乘을 설하지 않는다(B).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시면(C)		→	三乘을 설한다**(not-B)**.

마지막으로 (8ㅁ)의 경우도 선행절에서는 후행절의 배경이 되는 명제가 제시되었고 (8ㅂ)과 같은 기대가 상정된다. 이것이 부정되어 양보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추가로 앞서 '-거늘'에서 살핀 수정 양보 구문이 구결 문헌에서도 발견되어 제시한다.

(9) ㄱ. 三賢ㅣ 十聖ㅣ ㅅ今ㄱ 果報ㅋㅓ **住ㅅㄴㄱㄹ(A)** 唯ㅎ 佛ㅂㄴㄷㅏ 一人ㅂㄴㅣ 淨土ㅋㅓ 居ㅅㄴㄱㅂㅁ(not-B)(三賢十聖 住果報 唯佛一人 居淨土) [三賢이니 十聖이니 하는 이는 果報에 住하시거늘 오직 佛이실 一人만이 淨土에 居하시니라.] <구인 11:06>

ㄴ. 一切 衆生ㄱ {暫}ㅣ 火ㅌ 報ㅋㅓ **住ㅅㅁㄱㄹ(A)** 金剛原ㅋㅓ 登ㅅㅎㅎㄴㄱㅂㅣ 淨土ㅋㅓ 居ㅅㄴㄱㅋㅎㅌㅣ(not-B)(一切衆生 暫住報 登金剛原 居淨土) [一切 衆生은 잠시 報에 住하거늘 金剛原에 登하신 이어야 淨土에 居하실 것이다.] <구인 11:07>

(9ㄱ)의 선행절에서는 다른 대상들이 과보(果報)에 머문다는 것을 언급하고 후행절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대상 중 오직 일인(一人)만이 정토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9ㄴ)의 경우도 동일하게 선행절에서는 모든 중생이 잠시 보(報)에 머문다는 것을 언급하고 후행절에서는 오직 금강원에 오르신 이만 정토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을 양보문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선행절에서 제시된 일반 명제로 인해 생기는 기대가 후행절에서 제시된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결어미 '-ㄱㄹ'도 배경 제시로 사용되되,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ㄱㄹ'에 대한 남은 문제는 'NP+목적격조사' 구성이 어떻게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Haspelmath & König(1998)에서 재인용한 Visser(1963-1973)에는 조건적 양보에 사용된 접속사는 많은 경우 목적절을 도입하는 보문소(complementizers)로 확인된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4.1.2. ,'-오ᄃᆡ', '-ㅎㅏㅁ/ㅎㅣㅁ'

'-오ᄃᆡ'는 이현희(1994), 장요한(2010)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배경 제시를 주된 의미로 가지되 발견, 역접 및 의미 단위를 완결짓는 용법을 보인다. (11)은 이현희(1994: 69)에서 제시한 예이다.

(10) ㄱ. 그럴씨 六根을 **닐오ᄃᆡ** 賊媒라 ᄒᆞ니 <월석 2:21-2b>
ㄴ. 내 **보ᄃᆡ** 이 閻浮衆生이 발 들며 念 뮈유매 罪 아니니 업스니 <월석 21:102a>
ㄷ. 이ᄃᆞᆯᄒᆞᆫ 일후미 숨기고져 **호ᄃᆡ** 더욱 나토미라 <능엄 6:95b>

(10ㄱ)은 배경 제시(전제)로, (10ㄴ)은 발견으로 "보니까", (10ㄷ)은 역접 "이들은 이름이 숨기고자 하지만 더욱 나타나게 함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받아들여 양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오ᄃᆡ'는 선·후행절에 양립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제가 올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에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11) ㄱ. 置陣이 ᄂᆞᆷ과 다ᄅᆞ샤 **아ᅀᆞ보ᄃᆡ(A)** 나ᅀᅡ오니(not-B) 믈러가던덴 목숨 ᄆᆞᄎᆞ리 잇가(置陣異他 知亦進當 如其退避 性命奚戕) <용가 51下>
ㄴ. (기대) (陣이) 남과 다른 것을 알면(A), 나아가지 않는다(B).
ㄷ. (어둘 ᄉᆞᆯ가니와) 잇 양ᄋᆞ로 數百 디위 **어즈리ᅀᆞ보ᄃᆡ(A)** 如來 어엿비 너기샤(C) ᄒᆞᆫ 번도 아니 구지즈시니(not-B) (略而之乃至數百觸惱 如來慈愍乃至未以一惡言而見輕毁) <월석 4:28a>
ㄹ. (기대) 어지럽히면(A) 꾸짖는다(B).

(11ㄱ)의 경우 선행절은 사건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앞선 <용가 51

上>의 내용은 군용이 다른 것을 알고 물러갔으며 나아갔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10] 이에 진(陣)이 다른 것을 알아챘다면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대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들은 군영이 다름을 알아챘으면서도 나아가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양보로 파악할 수 있다.

(陣이) 남과 다른 것을 알면	**(A)**	→	나아가지 않는다(B).
?	(C)	→	**나아간다(not-B).**

(11ㄷ)은 마왕 파순(波旬)의 발화다. (11ㄹ)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해 양보라 할 수 있다. 이때 파순이 악하게 행동해도 그냥 두었던 까닭으로 '여래가 불쌍히 여기시어'(C)가 명세되었다.

이외에 조건적 양보로 보이는 예문도 발견되어 제시한다.

(12) ㄱ. 王이 ᄐᆞ시면 天下ᄅᆞᆯ ᄒᆞᆺ 內예 다 **도라오샤ᄃᆡ(A)** 그 象이 ᄀᆞᆺ디 아니ᄒᆞ며 (not-B) ᄆᆞ를 걷나샤도 ᄆᆞ리 뮈디 아니ᄒᆞ고 바리 젓디 아니ᄒᆞᄂᆞ니라 <월석 1:28a>

ㄴ. (기대) 천하를 하루 내에 다 돌아오면(A) 코끼리가 지친다(B).

(12ㄱ)은 상보(象寶)에 대해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으로, (12ㄴ)과 같은 기대를 부정한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오ᄃᆡ'가 사용되었는데도 왕이 코끼리를 타고 천하를 하루 안에 돌아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12ㄱ)이 지시하는 사태가 개별 사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 설명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아래의 현대 한국어의 예를 보도록 한다.

(13) ㄱ. 철수는 늦게 **자더라도/자지만** 일찍 일어난다.

ㄴ. 왕이 타시면 **(항상)** 천하를 하루에 다 돌고 **오시지만/오실지라도**, 코끼리가 지치지 않는다.

(13ㄱ)의 경우 철수의 일반적인 습관에 대한 진술로, 개별 사태가 아닌 것으로 이

10) 軍容이 녜와 다ᄅᆞ샤 아ᄉᆞᆸ고 믈러가니 나ᅀᅡ오던덴 목숨 기트리잇가 <용가 51上>

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한국어에서는 복수 사태의 경우, 사실적 양보 표지와 조건적 양보 표지가 모두 올 수 있다. 이는 (12ㄱ)에 대한 현대어역인 (13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ㄴ)의 경우도 복수 사태로 '-지만'과 '-ㄹ지라도'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12ㄱ)의 예를 조건적 양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오ᄃᆡ'가 조건적 양보 표지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1]

다음으로, '-오ᄃᆡ'의 선대형으로는 석독구결에서 찾을 수 있는 '-ㄱㄱㅁ'와 '-ㄱㄱ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석독구결의 '-ㄱㄱㅁ', '-ㄱㄱㅁ'에 대해서는 이용(2000: 183), 황선엽(2002: 195)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기능이나 의미상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ㄱㄱㅁ'와 '-ㄱㄱㅁ'는 후기중세 한국어 연결어미 '-오ᄃᆡ'의 선대형으로 배경 제시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12] 가장 전형적인 예는 (1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4) ㄱ. 若 妙福端嚴身乙 獲ㅌㄱㅅㄱ 則 身ㅣ 晃耀ノㄱㅁ 金山 如ㅊㅅㅌㅎㅎ(若獲妙福端嚴身 則身晃耀如金山)[만약 妙한 福스런 단정하고 엄숙한 몸을 얻으면 곧 몸이 빛나되 金山 같을 것이며] <화엄 12:20>

ㄴ. 其 說法ㅅㄱㅎㅌ 時ㅣㅜㄱ 廣長舌乙 以ㅋ 妙音聲乙 出ノㄱㅁ 十方ㅌ 一切世界ㅋㅜ 充滿ㅎㅅㄱㅋ(其說法時 以廣長舌 出妙音聲 充滿十方一切世界)[그 설법할 때에는 광장설을 써 묘음성을 내되 시방의 일체 세계에 충만히 하여] <화소 25:16-17>

(14ㄱ)은 '-ㄱㄱㅁ'의 예로, 선행절에서는 후행절 사건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14ㄴ)은 '-ㄱㄱㅁ'의 예로 선행절에서는 후행절의 언급 대

11) 이외에 '王이 ᄐᆞ시면'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ᄃᆡ'도 조건적 해석을 받는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아도, '-오ᄃᆡ'가 일부 맥락에서 조건적 해석을 받는 것뿐이지, '-오ᄃᆡ' 자체를 조건적 양보 표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 이용(2000: 185)에서는 '설명'이라는 의미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는 후행하는 문장이 앞 문장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15세기 '-오ᄃᆡ'도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졌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상정한 배경 제시의 기능 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 묘음성(妙音聲)이 먼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을 배경 제시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결어미가 양보로 해석되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ㅋㄱㅁ'의 경우 양보로 볼만한 예를 찾기 어려워, '-ㅋㅇㅁ'의 예만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ㄱ. 微妙秘密ㅅㅌㅌ{之} 藏ㄹ **修行ㅇㅇㅁ(A)** 足 未ㅎㅅㅌㄱㄱ(not-B) 無明ㅂ 因 {爲}ㅂㅇㅅㄹㅅㅈㅁ 是ㄱ 十地ㅌ 障ㅡㅇㅈㅎ(微妙秘密之藏修行 未足無明爲因 是十地障)[微妙하고 秘密스러운 藏을 修行하되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는 것이라, 이를 十地의 障이라 하며] <금광 08:07-08>

ㄴ. (기대)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장을 수행하면(A), 만족한다(not-B).

ㄷ. {是}ㅂ 念ㄹ 作ㅇ 已ㅈㅅㅁㅎㄱ 悉ㅈ 皆ㅌ **施與ㅇㅇㅁ(A)** 心ㅈㅜ 悔恨 無ㅂㅅㅜㅎ(not-B)(作是念已 悉皆施與 心無悔恨)[이 생각을 함을 이미 하고서는 다 모두 베풀어 주되 마음에 후회 없이 하며,] <화소 12:18>

ㄹ. (기대) 모두 베풀면(A), 마음에 회한이 있다(B).

먼저, (15)의 선행절은 모두 후행절 사건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5ㄱ)의 경우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장을 수행하면 만족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여 장을 수행해도 만족하지 못함을 표현해 양보로 해석할 수 있다.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장을 수행하면 (A)		→	만족한다(B).
?	(C)	→	**만족하지 않는다(not-B).**

(15ㄷ)의 경우 보살에게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면 회한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여 선·후행절은 모두 비관여적으로 참이 되어 양보로 볼 수 있다. 이때, 앞서 나온 생각 '나는 이제는 영원히 탐욕과 애정을 버리고자, 이 일체 반드시 이별할 것으로써 중생의 원을 채우리라'[13]는 후행절의 '회한이 없는 것'의 까닭이 될 수 있

13) 一切 恩愛ㄱ 會[恨]ㅅㄱㅅㅁㅎㄱ 當ㅎ 別離ㅇㅈㄱㅣ; 而ㄱ {於}衆生ㅋㅜㄱ 饒益ㅇㅇ 所ㅈ 無ㅌㅊㅈㅈㅌㅣ 我ㄱ 今ㅅㄱ 永ㅊ 貪愛ㄹ 捨ㅅ{爲欲}ㅅ {此}ㅂ 一切 必ㅎ 離散ㅅㅊㅎㅌ 物ㅌㄹ 以ㅈㅎ 衆生ㅋ 願ㄹ 滿ㅅㅂㅋㅈㅈㅌㅣㅅㅜㅎ ['모든 은혜와 애정도 만나나 (만남을) 하고서는 반드시 이별할 것이지만, 중생에게는

다.

요컨대 후기중세 한국어의 '-오ᄃᆡ'와 석독구결의 '-ㅇㄱㅅ'의 경우도 배경 제시의 의미 기능을 가지되, 기대가 부정되는 맥락에서는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3. '-건마른'

'-건마른'은 박용찬(1996), 이래호(2005) 등에 따르면 기본 의미가 배경 제시(전제)이며 이에서 파생된 대조나 양보의 의미도 가지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도 '-건만, -건마는' 등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표준>의 다음과 같은 풀이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건마는':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앞 절의 사태가 이미 어떠하니 뒤 절의 사태는 이러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기대가 어그러지는 데 대한 실망의 느낌이 비친다. ¶ 바람이 불건마는 더위는 여전하다. 그는 다 컸건마는 철이 없다.

후기중세 한국어의 '-건마른'은 현대 한국어와 동일하게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16) ㄱ. 믈 깊고 빈 **업건마른(A)** 하ᄂᆞᆯ히 命ᄒᆞ실ᄊᆡ(C) 믈 톤 자히 건너시니이다(not-B) (江之深矣 雖無舟矣 天之命矣 乘馬截流) <용가 34上>

ㄴ. (기대) 물 깊고 배 없으면(A), 말탄 채로 건널 수 없다(B)

ㄷ. 그ᄢᅵ 大臣이 太子ㅣ 고ᄃᆞᆯ **아란마른(A)** 夫人ᄋᆞᆯ 므ᅀᅵ여(C) 내야 닐오ᄆᆞᆯ 몯ᄒᆞ야(not-B) 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브터 王ᄭᅴ 닐오ᄃᆡ 밧긔 ᄒᆞᆫ 쇼겨이 琴을 잘 노ᄂᆞ이다 (時有大臣 識是太子亦知夫人所爲 不敢以問 乃因餘人啟王 外有一盲人能彈琴

이롭게 할 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는 영원히 탐욕과 애정을 버리고자, 이 일체 반드시 이별할 것으로써 중생의 원을 채우리라.' 하며,] <화소 12:15-18>

備六十四伎變弄殊絕 不可不聞) <석상 24:52a>

ㄹ. (기대) 대신이 태자인 것을 알면(A) 말한다(B).

ㅁ. 一切 衆生이 佛知見 ᄀᆞᆺ디 아니ᄒᆞ니 **업건마ᄅᆞᆫ(A)** 오직 여러 아로미 업슬 ᄯᆞᄅᆞ민 ᄃᆞᆯ(not-B) 足히 알리로다(足知一切衆生이 莫不具佛知見컨마ᄅᆞᆫ 只欠開悟耳로다) <법화 4:168b>

ㅂ. (기대) 불지견을 갖추지 않은 이가 없으면(A) 열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있다(B).

(16ㄱ)에는 금태조가 요나라를 치러 갈 때, 강물에 가로막혀 건너지 못할 때, 하늘이 도와 말을 탄 채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배경 이야기가 있다. 문면에 드러난 두 명제를 통해 '물이 깊고 배가 없으면(A), 말을 탄 채로 건널 수 없다(B)'와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조건적 관계를 부정(건널 수 있다)함으로서 두 명제가 비관여적임이 표현되어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말을 탄 채로 건널 수 있는 까닭은 '하늘의 명 때문임'(C)이 제시되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화자의 지식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적 양보라고 할 수 있다.[14]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

---

14) 이외에 일부 조건적 양보라고 주장할 만한 예문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문들은 대부분 양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菩薩이 너기샤ᄃᆡ 兜率天으로셔 胎生 아니ᄒᆞ야 卽時예 正覺ᄋᆞᆯ 일우련마ᄅᆞᆫ ᄂᆞ미 疑心호ᄃᆡ 부텨는 本來 變化ㅣ디비 사ᄅᆞ미 몯ᄒᆞᆯ 이리라 ᄒᆞ야 法 듣ᄃᆞᆯ 아니ᄒᆞ리라 ᄒᆞ샤 胎生ᄒᆞ시며(菩薩欲不由胞胎一頓成佛 為防人疑恐是變化 不受法故現受胎生) <월석 2:36b>

ㄴ. 오히려 思想호ᄃᆡ 朝廷에 나사가면 머릿 터럭마니나 社稷ᄋᆞᆯ 돕ᄉᆞ오련마ᄅᆞᆫ 얼구리 이제 이 ᄀᆞᆮᄒᆞ니 나사가거나 믈러오거나 호ᄆᆞᆯ 길 녀ᄃᆞᆫ뇨매 ᄇᆞ리과라(尙想趍朝廷 毫髮裨社稷 形骸今若是 進退委行色) <두시초 6:53a>

(ㄱ)은 보살의 생각일뿐더러 선어말어미 '-리-'가 들어가 있다. (ㄴ)도 동일하게 '-리-'가 발견되며 '思想'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인식양태-추측 정도로 생각된다. 즉, 사실이 아닌 명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조건적 양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화자의 인식 상에서는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실적 양보라 할 수도 있겠다. 중세 한국어 자료의 경우, 양태와 관계된 예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각주로만 제시해 둔다.

물 깊고 배 없으면(A)	→	말탄 채로 건널 수 없다(B).
하늘이 명하시면 (C)	→	**말탄 채로 건널 수 있다(not-B).**

(16ㄷ)은 이래호(2005: 211)의 예로 (16ㄹ)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때 C 절로 부인을 무서워하기 때문임이 제시되었다. (16ㅁ)은 용궁의 용들이 묘법을 한 번만 듣고도 보살이 되었다는 내용 뒤에 나온 것이다. (16ㅂ)과 같이 불지견을 가지고 있으면 깨달아 알 것임이 기대로 상정된다. 이를 부정해 양보문으로 볼 수 있겠다. (16ㅁ)의 경우 '-거늘' 부분에서 제시한 특수한 구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절에서 제시된 내용의 일부가 후행절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오직'도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조사로 볼 수 있는 '마른'이 양보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른'은 대부분의 경우 종결어미에 결합해 후행하는 문장과 접속하는 기능을 보인다. 아래 예를 보도록 한다.

(17) ㄱ. 對答호ᄃᆡ 그듸 마리 眞實로 올타커니와 오직 世尊이 이에 와 滅度ᄒᆞ시니 우리나라해셔 供養ᄒᆞᅀᆞᆸ디ᄇᆡ 그듸내 ᄀᆞᆺ비ᅀᅡ **오도다마른(A)** 舍利ᅀᅡ 몯 어드리라(not-B) ᄒᆞ야ᄂᆞᆯ(時諸末羅報香姓曰 誠如君言 但爲世尊 垂降此土於茲滅度 國內士民自當供養 遠勞諸君分 舍利分不可得) <석상 23:53b>

ㄴ. (기대) 힘들게 왔으면(A)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B)

ㄷ. 부텻 勢力이ᅀᅡ 어드리 그지ᄒᆞ료 나ᄅᆞᆯ 소교려 ᄒᆞ샬뗴ᅀᅡ 므슷 이ᄅᆞᆯ **몯ᄒᆞ시료마른(A)** 큰 慈悲心ᄋᆞ로 나ᄅᆞᆯ 어엿비 너기샤(C) 내그에 셜ᄫᆞᆫ 이ᄅᆞᆯ 아니ᄒᆞ시닷다(not-B)(佛之勢力何可度量 佛之勢力何可度量 若欲加惱於我何事不能 大悲憐愍故不加惱於我) <월석 4:25a>

ㄹ. (기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A) 괴로운 일을 한다(B)

(17ㄱ)의 경우 평서형 종결어미에, (17ㄷ)는 의문형 종결어미에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17ㄴ)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한 양보문으로 볼 수 있다. 후자는 마왕이 여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는 발화로 (17ㄹ)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역시 이를 부정해 양보라 볼 수 있다. 이때 '큰 慈悲心

ᄋᆞ로 나ᄅᆞᆯ 어엿비 너기샤'가 C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건마른'은 선어말어미 '-거-'와 동명사 어미 '-ㄴ', 그리고 보조사로 보이는 '마른'으로 분석할 수 있다(박용찬 1996, 황선엽 2002). 먼저 '-거늘'과 같이 '-거-'가 발견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선·후행절이 모두 사실인 사실적 양보로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른'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본고의 논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15]

4.1.4. '-니'

'-니'는 이현희(1994)에 따르면 배경 제시(전제)와 발견을 주된 의미로 가지되 가벼운 근거나 이유, 양보나 대립의 의미를 문맥 상황에 따라 보이기도 한다. (18)은 이현희(1994: 62)에서 제시한 예이다.

(18) ㄱ. 子息ᄃᆞᆯ히 後에 다ᄅᆞᆫ 藥을 먹고 ᄡᅡ해 **그우더니** 이ᄲᅴ 아비 도라오니 <월석 7:16b>
ㄴ. 이 늘그ᄂᆡ 이 마ᄅᆞᆫ 사ᄅᆞ미 알엣고 … **ᄒᆞ니 이런 ᄃᆞ로** 大慧 이 마ᄅᆞᆯ 드러 닐오ᄃᆡ <금삼 2:1b>
ㄷ. 艱難ᄒᆞᆫ 저긘 治體ㅣ 便安히 호미 **貴ᄒᆞ니** 어즈러우믈 우리 敢히 取ᄒᆞ리아 <두시초 8:4>

(18ㄱ)은 배경 제시(전제)로, (18ㄴ)은 가벼운 근거나 이유, (18ㄷ)은 양보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아래에서 양보문에 사용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결어미 '-니'는 선·후행절에 양립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제가 올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19) ㄱ.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A) 다 몰라보ᄉᆞᆸ더니(not-B) 小瞿曇이라 ᄒᆞ더라(菩薩乞食還其國界 舉國吏民無能識者 謂爲小瞿曇菩薩) <월석 1:5b-6a>

15) '마른'은 현대 한국어의 '만'의 선대형이 되며 근대 한국어 시기 '-디ᄇᆡ'에서 발달한 '-지'와 결합해 대조의 연결어미 '-지만'이 되었다. 이러한 '-지만'으로의 발달은 이지영(2007)에서 다룬 바 있다.

ㄴ. (기대) 이전 왕이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면(A) 사람들이 알아본다(not-B).

(19ㄱ)의 선행절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19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여 이전 왕임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음이 표현되었다.

이전 왕이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면	**(A)**	→	사람들이 알아본다(B).
?	(C)	→	**사람들이 몰라본다(not-B).**

위와 같이 '-니'가 사용된 문장도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니'는 종결어미적 속성이 강해, 선행절과 후행절로 파악되는 두 절을 서로 다른 문장의 연쇄 정도로 파악할 수도 있다. 만약 서로 다른 문장으로 파악한다면, 양보문으로 다룰 수는 없을 듯하며, 텍스트 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4.1.5. '-ㄱㅡ/ㅣ', '-ㄹㅡ/ㅣ'

전기중세 한국어 연결어미 '-ㄱㅡ/ㅣ', '-ㄹㅡ/ㅣ'의 의미 기능은 김지오(2012)를 참고할 수 있다. 배경 상황 제시를 기원으로 하되, 설명·부연, 대립 또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 바 있다. 이는 (2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 ㄱ. 是 時ㅓ 大自在梵王ㄱ {於}大會ㅌ <u>中ㅋㅓㅅㅓㅎㅡㄱㅡ</u> 座ㄹ 從ㅌ 而ㅁ 起ㅡ下 偏ㅋ 右肩ㄹ 袒ㅎ 右膝ㄹ 地ㅋㅓ 著ㅅㅋ 合掌恭敬ㅅㅂㅋㅎ 頂ㅁ 佛足ㄹ 禮ㅅㅂㅁ 而ㅁ 佛 白 言(是時大自在梵王 於大會中從座 而起偏袒右肩右膝著地 合掌恭敬 頂佛足而禮 白佛言)[이때 大自在梵王은 大會 가운데에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벗어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合掌恭敬하여서 정수리로 부처의 발에 예수하고,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시기를,] <금광 13:18-20>

ㄴ. 一ㅓㄱ 常ㅐ 方便ㅁ 善法ㄹ 修ㅅㅎㅌ <u>所作ㅐㄱㅡ</u> 謂ㄱ 我ㄱ {於}諸 法ㅋㅓ 常ㅐ 方便ㅁ 修ㅅㄱㅅㄹ 依止 {爲}ㅣㄱㅅㅁ 故ㅅ 當ㅅ 能ㅎ 隨ㅅ 樂ㄹ 愛味ㅅㅎㅌ 一切 心識ㄹ 制伏ㅅㅎ 又 能ㅎ 實 如ㅊ 苦性ㄹ 覺了ㅅㅎㅅㅊㅐㄱㅐ

ㅋㅌㅣㅅㄱ矣ㄱ(一常方便 修善法所作 謂我於諸法常方便修爲依止故 當能制伏隨愛味樂 一切心識 又能如實 覺了苦性)[첫째는 항상 방편으로 선법을 닦을 때의 할 일이니, 즉 "나는 모든 법에 대해 항상 방편으로 닦는 것을 의지로 삼은 까닭으로, 반드시 능히 좇아 즐거움을 애미하는 일체의 심식(心識)을 굴복시키고, 또 능히 실상과 같이 괴로움의 본성[苦性]을 깨닫고 할 것이다" 할 것이며,] <유가 08:13-16>

ㄷ. {此}ㅣ 轉輪位ㅋㅜ 王ㄱ 處ㅅㅁㄱㄱㅡㅁ 已ㅋ 久ㅊㅎㅁㅁㄱㅣ 我ㄱ 曾ㅎㅋㅀ 得ㄱ 未ㅣㅅㅌㅁㄷㄱㅣ(此轉輪位 王處已久 我未曾得)[이 轉輪位에 왕은 處하시되 이미 오래되셨으나, 나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화소 11:18-19>

ㄹ. 又 {於}正信ㅅㅌㅌ 長者ㅡ 居士ㅡ 婆羅門ㅡ 等ㅅㄱㄱㅜ 種種ㅌ 利養恭敬ㄷ 獲得ㅅㄱㅡ 而ㄱ 此 利養恭敬ㄷ 依ㅋ 而ㅠ 貪着ㄷ 生ㅣㄱ 不ㅁㅅㄱ(又於正信長者 居士 婆羅門等 獲得種種利養恭敬 而不依此 利養恭敬 而生貪着)[또 바로 믿는 장자니 거사니 바라문이니 하는 이들에게 갖가지 이양과 공경을 획득하지만, 이 이양과 공경을 의지하여 탐착을 내지 않으며,] <유가 18:23-19:03>

(20ㄱ)의 경우 배경 제시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선행절에서 제시된 시간적 배경 속에서 후행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0ㄴ)은 설명·부연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선행절에서 '常修善法所作'을 제시하고 후행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ㄷ)은 대립으로 '왕'과 '나', '오래되다'와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가 대립되어 제시되었다. (20ㄹ)은 전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양보로 보았다. 김지오(2012)의 이러한 분류를 수용하여 우리의 분석 방법론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ㄱㅡ/ㅣ', '-ㄱㅡ/ㅣ'는 선·후행절에 양립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제가 올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21) ㄱ. 謂ㄱ 我ㄱ 是 如ㅊㅅㄱ 事ㄷ 求ㅅ{爲}ㅅㄱㅅㅡ 故ㅇ 誓ㅎ 下劣ㅅㄱ 形相ㅡ 威儀ㅡ 及ㅌ 資身ㅌ 具ㅡㅇㄱㄷ 受ㅅㄹ 誓ㅎ 禁戒ㄷ 受ㅅㄹ 誓ㅎ 精勤ㅎ 常ㅣ 善法ㄷ 修ㅇㄱㅅㄷ 受ㄹㅅㅋㅇㄱㄱㅡ(A) 而ㄱ 我ㄱ 今ㅂ{者} {於}四種苦ㅋㅜ 何ㄱ 等ㅅㄱㄷ {爲}脫ㅅㅋㅇㄱㄱㅣㅋㅌㅁ(not-B)(謂我爲求如是事故,

誓受下劣形相威儀及資身具 誓受禁戒 誓受精勤常修善法 而我今者 於四種苦爲脫何等)[즉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구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맹세코 하열한 모습이니, 위의니, 몸을 돕는 도구니 하는 것을 받고, 맹세코 금하는 계율을 받고, 맹세코 부지런히 항상 선법을 닦는 것을 받고 하였는데(/하였으나), 나는 지금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어떤 것들을 벗어나 있는 것인가?] <유가 18:10-14>

ㄴ. (기대) 하열한 모습이니 위의니 ... 선법을 닦는 것을 받고 하면(A)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B).

ㄷ. 又 {於}正信ッ ㅌ ㅌ 長者ㅗ 居士ㅗ 婆羅門ㅗ 等ッ ㄱ ㄹ ㅓ 種種ㅌ 利養恭敬ㄷ 獲得ッ ㄱ ㅗ(A) 而ㄱ 此 利養恭敬ㄷ 依ㄹ 而ㅠ 貪着ㄷ 生リ ㄱ 不ㅎッ ㅎ(not-B)(又於正信長者 居士 婆羅門等 獲得種種利養恭敬 而不依此 利養恭敬 而生貪着)[또 바로 믿는 장자니 거사니 바라문이니 하는 이들에게 갖가지 이양과 공경을 획득하지만, 이 이양과 공경을 의지하여 탐착을 내지 않으며] <유가 18:23-19:03>

ㄹ. (기대) 갖가지 이양과 공경을 획득하면(A) 탐착을 낸다(B).

(21ㄱ)은 사실적 양보로 보인다. 선행절에서는 지금껏 '나'가 한 일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 '四中苦'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21ㄴ)과 같이 기대를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후행절에 수사의문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하열한 모습이니 ... 하면 (A)	→	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B).
? (C)	→	**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not-B).**

(21ㄷ)의 경우는 김지오(2012: 221-233)의 예로 삼마지(三摩地) 원만(圓滿)을 증득한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이에 실제 일어난 개별 사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건적 양보인지 사실적 양보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16] (21ㄹ)과 같이 기대를 기술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해 양보문으로 판단할 수 있

16) 다만 이런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사실적 양보 표지를, 예외적 상황이라면 조건적 양보 표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적 양보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겠다.[17]

이처럼 연결어미 '-ㄱㅗ/ㅈ', '-ㄱㅗ/ㅈ'도 배경 제시로 사용되되, 특정 맥락에서는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내부 구조나 문법화 양상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18]

4.2. 대조 표현의 양보적 쓰임

4.2절에서는 대조 표현의 양보적 쓰임에 대해 다룬다. 대조는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접속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윤평현 1989: 59). Lakoff(1971: 129)에 따르면 영어의 'but'은 대조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기대의 부정(양보)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22) ㄱ. John is tall <u>but</u> Bill is short.

---

17) 추가로 구결에 1건밖에 나타나지 않는 (어미로 추정되는) '-ㅌㅗ'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ㄱ. <u>左邊ㅗ 右邊ㅗノ仝ナソラ 地獄ラナ **墮 應ヒソホリソヒㅗ(A)** (菩)薩力乙 (以)故ノ(C)</u> <u>還ノ 得ラホ(not-B)</u> 不墮ソラ 損傷ノ尸 無{有}ソる 痛(惱) 無{有}ヒソるソトノ刂入乙 菩薩 悉 見ナヵヒリ [左邊이니 右邊이니 하는 곳에서 마땅히 地獄에 떨어져야 하는데 菩薩力으로써 도리어 능히 떨어지지 않아 損傷됨 없고 痛惱함 없고 한 것을 菩薩은 다 본다.] <금광0 6:13-06:15>

ㄴ. (기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면(A), 떨어진다(B).

(ㄱ)의 'ㅌㅗ'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기대를 (ㄴ)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還ノ'와 같이 '도리어'라 할 수 있는 요소도 등장해 양보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맥락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尸ㅗ'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 유일례에 가까운 'ㅌㅗ'가 나타나 문제가 되어 왔다(황선엽 외 2009: 198). 이에 대해서는 석독구결 '尸'의 음가가 단순히 'ㄹ'이 아니라 'ㄹㅅ', 'ㄹㅎ' 정도로 볼 수 있다는 황선엽(2000) 등의 논의와 의존명사 'ㅅ'가 포함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요소들을 'ㄹㅅ+X'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최성규(2021)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 'ㅌㅗ'를 '-尸ㅗ'의 한 이형태로 파악할 여지가 있겠다.

18) 이외에 유사한 구성 및 기능을 보이는 '-ㄱㅜ', '-尸ㅜ'에 대해서는 6장에서 간단히 다루도록 한다.

ㄴ. John is tall <u>but</u> he is no good at basketball. [Lakoff(1971: 129)의 예]

(22ㄱ)의 경우 'tall'과 'short' 사이의 명시적인 반의관계를 찾을 수 있으나 (22ㄴ)은 그렇지 않다. 기대의 부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나$_2$, -지만'과 같은 대조의 연결어미도 양보로 사용될 수 있다. 이은경(1996: 203-204)에서는 '주어가 다르고 서술어가 반의 관계인 경우', '주어가 다르고 다른 요소가 대조되며 서술어는 동일한 경우', '주어는 동일하나 다른 요소가 대조되며 서술어가 반의 관계인 경우' 세 가지를 의미론적 대조로, 맥락의 도움을 받아 기대의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화용론적 대조로 구분한 바 있다. 우리는 이 화용론적 대조를 사실적 양보로 다룬다. 예를 살펴보겠다.

(23) ㄱ. 철수는 <u>크지만</u> 영희는 작다.
ㄴ. 철수는 <u>가난하지만</u> 꿋꿋하다. [이은경(1996: 203-204)의 예]
ㄷ. (기대) 가난하면 꿋꿋하지 못하다.

(23ㄱ)에는 '크다-작다'의 명시적인 반의관계가 보인다. 이런 경우를 의미론적 대조라 할 수 있다. 반면, (23ㄴ)의 '가난한 것-꿋꿋한 것'의 관계는 의미론적 반의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용론적 해석에 의존하여 (23ㄷ)과 같은 기대를 상정해 설명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 이처럼 대조의 연결어미가 기대의 부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 사실적 양보로 파악할 수 있다.

대조의 경우 부가(addition)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2.2.2항에서 살핀 동시 발생 유형과 관계될 수 있을 듯하다. 추가로, 현대 한국어의 화용론적 대조에 대한 선행연구의 중요한 언급을 제시해 둔다. 두 절의 관계가 통사적으로 대등하지 못하고(최재희 1989), 내용만으로는 대조되는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척도 함축을 보이지 않고, 항상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가진다(이은경 1996).

지금부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에서 대조 연결어미로 기술되어 온 '-나$_2$', '-ㅈ$_2$', '-거니와'가 양보 의미로 실현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 2. 1. '-나$_2$', '-ㅋ$_2$'

후기중세 한국어의 연결어미 '-나$_2$'는 대조나 양보의 의미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것이다(허웅 1975, 안병희·이광호 1990 등). 이 항에서는 '-나$_2$'의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 조건적 양보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19]

먼저 (24)는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로 볼 수 있는 예이다.

(24) ㄱ. 東征에 功이 몯 **이나(A)** 所掠을 다 노ᄒᆞ샤(C) 歡呼之聲이 道上애 ᄀᆞᄃᆞᆨᄒᆞ니(not-B) (東征無功 盡放所掠 歡呼之聲 道上洋溢) <용가 41上>

ㄴ. (기대) 정벌이 못 이루어지면(A),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지 않는다(B).

ㄷ. 諸王妃와 公主와를 주시고 니ᄅᆞ샤ᄃᆡ 富貴예 나기런 모로매 蠶桑이 쉽디 아니호ᄆᆞᆯ 아ᄅᆞ디니 이 비록 무기 **ᄇᆞ릴 거시나(A)** 民間애 이션 오히려 어두미 어려우니(C) 그럴ᄉᆡ ᄡᅧ여 너를 뵈노니(not-B) 아디 몯호미 몯ᄒᆞ리라 ᄒᆞ더시다(以賜諸王妃와 公主ᄒᆞ시고 謂曰ᄒᆞ샤ᄃᆡ 生長富貴ᄒᆞ얀 當知蠶桑之不易니 此雖荒頹棄遺ㅣ나 在民間ᄒᆞ얀 猶爲難得이니 故로 織以示汝ᄒᆞ노니 不可不知也ㅣ라ᄒᆞ더시다) <내훈 2하:51b-52a>

ㄹ. (기대) 실 토막이 버릴 것이면(A) 짜서 보이지 않는다(B).

(24ㄱ)는 당태종이 동방 정벌을 완수하지는 못했으나 포로를 풀어주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배경 이야기가 있어 사실적 양보라 할 수 있다. 기대는 (24ㄴ)과 같이 상정할 수 있으며 환호하는 소리가 가득한 까닭으로 노략한 것(所掠)을 다 놓았다는 것(C)이 명세되어 있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19) 15세기 대조와 양보로 기술되어 온 '-나$_2$'의 의미 기능은 의미론적 대조, 화용론적 대조, 조건적 양보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이중 의미론적 대조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는 그 빈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月印釋譜』와 『釋譜詳節』에서는 의미론적 대조의 용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접속 범주들은 원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론적 대조는 대조의 중심부에, 화용론적 대조는 주변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더 중심적인 대조인 의미론적 대조의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동방 정벌에 공이 못 이루어지면(A)	→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지 않다(B).	
노략한 바를 놓으시면 (C)	→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다(not-B).**	

(24ㄷ)도 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다. 왕비와 공주들에게 하는 발화로 선행절에서 실 토막이 버릴만한 것임을 제시하여 (24ㄹ)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대를 부정해 짜게 해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때, '민간에서는 얻기 어려우므로'를 'C'절로 볼 수 있다.[20]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 양보의 의미 기능은 문헌 별로 다른 분포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釋譜詳節』에서는 '-나$_2$'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확인되지 않으나 『月印釋譜』에는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21] 특히 (25)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예문이 '비록 ... -어도'에서 '비록 ... -나$_2$'로 수정된 경우도 존재한다.

(25) ㄱ. 비록 無漏智慧를 得디 **몯ᄒᆞ야도(A)** 意根ᄋᆡ 淸淨호미 이러ᄒᆞᆯᄊᆡ(C) 이 사ᄅᆞᄆᆡ ᄉᆞ랑ᄒᆞ며 혜아리며 니르는 마리 다 부텻 法이라 아니 眞實ᄒᆞ니 업스며 또 先佛ㅅ 經 中에 니ᄅᆞ샨 배리라(not-B) <석상 19:25a>

ㄴ. 비록 無漏智慧를 得디 **몯ᄒᆞ나(A)** 意根이 淸淨호미 이 ᄀᆞᆮᄒᆞᆯᄊᆡ(C) 이 사ᄅᆞᄆᆡ ᄉᆞ랑ᄒᆞ야 혜아리며 말 닐오미 다 佛法이라 眞實티 아니ᄒᆞᆫ ᄃᆡ 업스며 또 몬젓 부텻 經 中에 니ᄅᆞ샨 배라(not-B) <월석 17:74a>[22]

(25)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언해로 파악되는 것이다. (25ㄱ)의 "몯ᄒᆞ야도"는 (25ㄴ)에서 "몯ᄒᆞ나"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釋譜詳節』에서 수정을 거쳐 『月印釋譜』를 만든바, 문체 정비의 대상에 사실적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수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23]

---

20) 물론 '실 토막이 버릴 것이면(A) 얻기 쉽다(B).'와 같이 기대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21) 투식에 가까운 '그러나'를 제외하고, 약 33건 발견할 수 있었다.
22) 원문은 "雖未得無漏智慧 而其意根 淸淨如此 是人有所思惟 籌量 言說 皆是佛法 無不真實 亦是先佛經中所說" 정도로 볼 수 있다.
23) 두 문헌 사이의 간격이 반세기도 안된다는 점과 비슷한 시기 문헌인 『龍飛御天歌』에도 '-나$_2$'가 대조로 사용된 예가 11건 정도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짧은 시간 내에 주로 쓰이는 연결어미가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문

다음으로 조건적 양보의 경우다. 현대 한국어의 '-나$_2$'는 대조와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고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나$_2$'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예문들도 일부 발견된다(박진호 2012: 487).

(26) ㄱ. 父母ㅣ 비록 **업스시나(A)** 쟝ᄎᆞ 善을 ᄒᆞᆯ 저긔 父母ᄭᅴ 됴ᄒᆞᆫ 일훔 긷툐ᄆᆞᆯ ᄉᆞ랑ᄒᆞ야 모로매 果斷히 ᄒᆞ며(not-B) 쟝ᄎᆞ 不善을 ᄒᆞᆯ 저긔 父母ᄭᅴ 붓그러우며 辱ᄃᆞ왼 일 긷틸가 ᄉᆞ랑ᄒᆞ야 모로매 果斷히 마롤디니라(not-B)(父母ㅣ 雖沒ᄒᆞ시나 將爲善ᄒᆞᆯᄉᆡ 思貽父母令名ᄒᆞ야 必果ᄒᆞ며 將爲不善ᄒᆞᆯᄉᆡ 思貽父母羞辱ᄒᆞ야 必不果ㅣ니라) <내훈 1:58a>

ㄴ. (기대) 부모가 없으면(A) 부모를 생각해 선한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B)

ㄷ. ᄒᆞ다가 飮食을 머그라 커시든 비록 즐기디 **아니ᄒᆞ나(A)** 모로매 맛보아 기드리며(not-B) 오ᄉᆞᆯ 주거시든 비록 닙곳디 **아니ᄒᆞ나(A)** 모로매 니버 기드리며(not-B)(若飮食之어시든 雖不耆나 必嘗而待ᄒᆞ며 加之衣服이어시든 雖不欲이나 必服而待ᄒᆞ며) <내훈 1:51a>

ㄹ. (기대) 즐기지 않는 음식이면(A) 맛보지 않는다(B).

(26ㄱ)은 양보문으로 (26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없는 것을 사실이라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를 가정하여 후행절이 사태가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

부모가 없으면(A)	→	부모를 생각해 선한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B).
? (C)	→	**부모를 생각해 선한 일을 과감하게 한다(not-B).**

(26ㄷ)도 양보문으로 (26ㄹ)과 같이 기대를 기술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음식을 즐기지 않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 표현 'ᄒᆞ다가'가 나타났으며 어미 '-거든'도 조건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조건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건적 양보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예문이다.

이러한 예들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_2$'의 쓰임이 매우 어색해 현대 한국어의 '-나$_2$'의 기능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조 연결사가 조건적 양보까지

헌의 문체가 달랐다고 할 수 있겠다.

포괄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며, 한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아직 알기 어렵다.[24]

다만, 위와 같은 예들을 두고 15세기의 '-나$_2$'가 조건적 양보 표현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까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는 15세기 전체에서 '-나$_2$'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예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조건 표현의 영향권 안에 있어 조건적 양보로의 실현이 순수하게 '-나$_2$'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15세기 가장 중요한 두 문헌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서는 '-나$_2$'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겠다.

이때, 합리적인 기술을 위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현대 한국어의 '-고도'를 참고할 수 있을 듯하다. 현대 한국어의 '-고도'는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분류되는 것이다(서정섭 1991, 박진희 2011, 이순욱 2017 등). 그러나 다른 사실적 양보 표현('-나$_2$, -지만' 등)과는 다르게, 조건 표현의 영향권 내부에 있는 경우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ㄱ. 天子ㅣ 간ᄒᆞᄂᆞᆫ 신하 닐굽 사ᄅᆞᆷ을 두면 **비록 道ㅣ 업스나** 그 天下를 일티 아니ᄒᆞ고(天子ㅣ 有爭臣七人이면 雖無道ㅣ나 不失其天下ᄒᆞ고) <소학 2:71a> [박진호(2012: 487)의 예]

ㄴ. 천자가 간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면 **비록 도가 {없고도/*없으나/*없지만}** 그 천하를 잃지 않고

ㄷ. 만약 徭役의 이중 부담이 문제였다면, 그것은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도/*않으나/*않지만}**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 [이순욱(2017: 33)의 예]

(27ㄱ)은 16세기의 예로 조건의 영향권 안에서 '-나$_2$'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예이다. 이를 번역한 (27ㄴ)의 경우 '-고도'는 가능하나 '-나$_2$'나 '-지만'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7ㄷ)과 같은 현대 말뭉치 자료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24) 이에 기원적으로 '-나$_2$'가 조건성을 띨 수 있는 어떤 요소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항의 말미에서 다시 다룬다.

25) 비록 '-나$_2$'가 조건적 양보로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고도'의 기술을 참조하여 잠정적으로는 '-나$_2$'도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된다고 기술할 수 있겠다.

이외에 '-ㄹ디나'와 같은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28) ㄱ. 鄭公이 비록 시러곰 **도라올디나(A)** 늙고 病커니(C) 길흘 일티 아니ᄒᆞ려 (not-B) (鄭公縱得歸 老病不失路) <두시초 21:38a>

ㄴ. (기대) 다시 돌아오면(A) 길을 잃지 않는다(B)

(28ㄱ)은 당시 좌천되어 있던 정건(鄭虔)에 대한 내용이다. 선행절에서는 그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28ㄴ)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나$_2$'의 선대형인 석독구결의 '-ㅁ$_2$'에 대해 살펴본다. '然ㅅㅁ'의 예를 제외하면 역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들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이들은 후기중세 한국어와 같이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사실적 양보의 예를 살펴보겠다.

(29) ㄱ. 十六 大國王ㅣ 意ㅋㅓ 國土乙 護ノ今ヒ 因緣乙 問白{欲}ㅅㅅニトㅋㄱㅅ乙 [火] 知白ㅋㅁㅋㄱ：**ㅅㄱㅁ(A)** 吾ㄱ 今ㅅㄱ 先ㅋ 諸ㄱ 菩薩 {爲}ㅋㅎ 佛果乙 護ノ今ヒ 因緣： 十地ヒ 行乙 護ノ今ヒ 因緣：ノ乙 說白ㅋㅎヒㅣ (not-B) (知十六大國王意欲問護國土因緣 吾今先為諸菩薩 說護佛果因緣 護十地行因緣)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구역 03:17-19>

ㄴ. (기대) 설하기 원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A) 그것을 설한다(B).

(29ㄱ)은 부처님의 발화로 사실적 양보로 해석된다. 이때 기대는 (29ㄴ)과 같이 상

25) '-고도'의 이러한 특수한 성격은 본래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로 의미 변화를 겪은바, 그러한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닌가 싶다. 같은 관점에서, 15세기의 '-나$_2$'도 본래 다른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적 양보로 변화했고, 일부 예에 이전 시기의 기능이 남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정할 수 있으나, 이를 부정하여 다른 것을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ㄱㄱ'는 '-ㄱ$_2$'의 중철 표기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설하기 원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A)	→	그것을 설한다(B).
? (C)	→	**그것을 설하지 않는다(not-B).**

다음은 조건적 양보로 보이는 예이다.

(30) ㄱ. 佛子ㅋ 云何ㅌㅅㄱㄹ 菩薩ㄱ 分減施ㅎㅣㅇㅁㅁ{爲}ㅅㄴㅈㄱㅅㄱ {此}ㅣ 菩薩ㄱ 稟性ㅣㄱ 仁慈ㅣㅁ 好ㅎ 惠施ㄹ 行ㅅㅁㄴㄱ(C) 若ㅌ 美ㅅㅌㅌ 味ㄹ **得ㅋㄱ(A)** 專ㅁ 自ㅋㅠ 受ㄱ 不ㅅㅋㅎ 要ㅎ 衆生ㅋㅓ 與ㅅㄱ(not-B) 然ㅌㅅㄱㄹ ㅠㅌ 後ㅣㅓㅋ 方ㅌ 食ㅅㄴㅎ(佛子 云何爲菩薩分減施 此菩薩稟性仁慈 好行惠施 若得美味 不專自受 要與衆生 然後方食)[불자야, 어떠한 것을 보살의 分減施라 하는가 하면 이 보살은 타고난 仁慈이라서 즐겨 惠施를 行하니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 오로지 스스로 받지 않고서 필히 중생에게 주고는 그리한 것으로부터 후에야 비로소 먹으며,] <화소 09:09-12>

ㄴ. (기대)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A) 스스로 받는다(B).

ㄷ. 尸羅ㄹ 犯ㅅㄱㅣ **有ㅌㅊㄱ(A)** 而ㄱ 輕擧 不ㅈㅅㅎ(not-B) (有犯尸羅而不輕擧)[시라를 범한 바가 있어도 가벼이 들추지 않고] <유가 17:12-13>

ㄹ. (기대) (누군가) 시라를 범함이 있으면(A) 들춰낸다(B).

(30ㄱ)의 경우 맛있는 음식을 얻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다. (30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해 음식을 혼자만 먹지 않고 중생에게 먼저 준다고 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A)	→	스스로 받는다(B).
? (C)	→	**스스로 받지 않는다(not-B).**

(30ㄷ)도 시라를 범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다. (30ㄹ)과 같이 기대를 기술할 수 있으나 기대가 부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추가로, (30)의 예문에는 모두 선어말어미 '-ㅊ(ㅋ)-'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접의 '-거나'로 보기는 어렵다. 이접이라면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둘 이상의 항이 존재해야 하는데

(30)의 선행절의 표면에는 하나의 항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세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거나'가 양보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황선엽 2002: 124).

이처럼 석독구결의 '-ㅋ$_2$'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모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ㅋ$_2$'를 적극적으로 조건적 양보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석독구결의 '-ㅋ$_2$'의 예가 소수에 해당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10여 건)과, 15세기 '-나$_2$' 기술과의 연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기술과는 별개로 '-나$_2$', '-ㅋ$_2$'가 현대와 달리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나$_2$, -ㅋ$_2$'가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바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나$_2$'의 기본적 의미 기능은 대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 의미를 대조라 한다면 '-나$_2$'가 조건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적 표현이 조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현대 한국어와 달리 중세 한국어의 '-ㅋ$_2$, -나$_2$'의 기본적 의미 기능이 대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의 '-ㅋ$_2$, -나$_2$'의 의미 기능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미 기능의 통시적 분포이고 다른 하나는 범언어적 의미 변화의 방향성이다.

먼저 의미 기능의 통시적 분포다. 이를 더욱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나$_2$'의 의미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_2$'는 양보 외에 대조로도 기술되어 온 것이다. 이때, 대조는 다시 의미론적 대조,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로 분류될 수 있다. 본고에서 확인한 의미 기능의 분포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1) ㄱ. **전기 중세**: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나 의미론적 대조로는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26]

ㄴ. **1 5 세기:** 사실적 양보의 예가 주로 발견되었고 조건적 양보와 의미론적 대조로도 사용되는 예도 발견되었다.

ㄷ. **현　　대:** 의미론적 대조와 사실적 양보로 주로 사용되고 조건적 양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31)을 단순화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나$_2$'의 의미 기능의 통시적 발달

	의미론적 대조	화용론적 대조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
전기중세(석독구결)		■	■
후기중세(15C)	▨	■	▨
현　　대	■	■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석독구결 문헌에서 '-ㅋ$_2$'가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제4장 각주 19)에 제시했듯, 15세기에도 '-나$_2$'가 의미론적 대조로 해석되는 예문은 매우 소수에 해당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두 문헌 『月印釋譜』와 『釋譜詳節』에서는 의미론적 대조의 용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은 '-거니와, -건마른' 등이었다. 이러한 분포로 살펴보았을 때, '-나$_2$, -ㅋ$_2$'의 의미 기능은 대조보다는 양보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화용론적 대조보다는 의미론적 대조가 더 중심에 가까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ㅋ$_2$, -나$_2$'가 확고한 대조 표현이라면 더 원형적인 속성을 가지는 의미론적 대조의 예가 충분히 발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 그러한 예는 매우 드물다.[27] 이에, 중세 한국어의 '-나$_2$'는 전형적인 대조 표현이 아니었으며, 다른 어떤 의미 기능에서 대조로 발달하는 과정에 놓여 있

26) 물론 석독구결의 예가 10여 건에 불과하므로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자의 과문일 수 있으나,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27) 실제로 현대 한국어에서 '-나$_2$'는 의미론적 대조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 제기의 시초가 된 의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도 사용되거나 발달되는 경우는 많다. 반대로 사실적 양보 표현이 조건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Haspelmath & König 1998: 592). '-나$_2$'의 경우 전기중세와 15세기 한국어에서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언어적 의미 변화의 방향성으로 본다면, 사실적 양보에서 조건적 양보의 기능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의 기능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세 한국어의 '-나$_2$', '-ㅎ$_2$'는 전형적인 대조 표현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현대로 오면서 전형적인 대조 표현으로 의미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특히 조건적 양보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_2$'는 기원적으로 조건성을 띨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의미 변화 혹은 분화를 겪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28] 이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대조로 기술되는 표현이 어떻게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아직 가설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차자표기 자료 및 근대 시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29]

지금까지 '-나$_2$', '-ㅎ$_2$'의 양보적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기중세의 '-나$_2$'는 주로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로 해석되나,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선대형이라 할 수 있을 석독구결의 '-ㅎ$_2$'의 경우도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렇듯 단순 대조 표현으로 기술되어 온 '-나$_2$', '-ㅎ$_2$'가 사실적 양보는 물론 조건적 양보로도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은 아직 알 수

28) 이접 표현도 조건적 양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3.2절 참조), 양보에 쓰인 '-ㅎ$_1$, -나$_1$'도 이접 표현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을 하나의 가설로 제시해 볼 수 있겠다.

29) 본고는 양보문 전반에 대한 연구로, '-나$_2$'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다. 예를 모두 살피긴 했으나, 구체적인 비율을 정리해 표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추후에 다른 지면에서 더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없다. 다만, 발달의 방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나$_2$', '-ㅋ$_2$'가 기원적으로는 대조 표현이 아니었고 조건성을 띨 수 있는 어떤 요소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4. 2. 2. '-거니와'

15세기의 '-거니와'는 대부분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30]

(32) ㄱ. 비록 理ᄉᆞ **ᄇᆞᆰ거니와(A)** 뉘 能히 證ᄒᆞ뇨(not-B)(雖然理則明矣 孰能證耶) <월석 17:72a>

ㄴ. (기대) 이치가 밝으면(A) 증험할 수 있다(B).

(32ㄱ)은 '묘각'의 경우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나타내지 못할 것이 없으나 이를 증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32ㄴ)과 같은 기대가 부정되어 선행절 명제와 관계없이 후행절이 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치가 밝으면(A)	→	능히 증험할 수 있다(B).
? (C)	→	**능히 증험할 수 없다(not-B).**

이때, '-거니와'의 내부에도 선어말어미 '-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거늘, -건마ᄅᆞᆫ'과 같이 '강한 긍정-단언(emphatic affirmation)'에서 발달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

---

30) 『釋譜詳節』과 『月印釋譜』를 통틀어 '비록'과 공기하는 연결어미는 '-어도', '-고도', '-나$_2$', '-ㄴ들', '-거니와', '-ㄹ샨뎡' 밖에 없다. 다만, '-ㄴ들'은 2건, '-거니와'는 1건, '-ㄹ샨뎡'은 2건 정도로 매우 소수였다.

5. 보충 표현과 양보

제5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양보로 해석될 수 있는 보충 표현('-디ᄇᆡ'와 '-ㄴ뎡' 류 표현)을 살펴본다. 이때의 보충 표현이란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선행절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어미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토마토는 채소지 과일이 아니다"의 '-지'를 예로 들 수 있겠다(최상진·임채훈 2009: 298).[1)]

이들을 제3장이나 제4장에 귀속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해 다루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이들 표현이 가진 개별 의미들을 모두 살펴보고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내부 구조가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발달 유형을 특정해 제시하기 어렵다. 셋째로는 제3장의 조건적 양보 표현은 중화의 맥락에서 사실적 양보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보충 표현의 경우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의 특징이 명확히 구분되어 동일하게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이들 표현을 묶어 제5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충 표현의 의미 기능들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보로 해석되는 개별 표현의 예를 살펴보며 각각의 특이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끝으로 동시대 내지는 이전 시기의 문헌인 음독구결과 이전 시기 문헌인 자토석독구결에서도 보충 표현에 대응하는 표현이 발견되어 살펴보겠다.

5.1. 보충 표현의 의미 기능

의미 기능을 정리하기에 앞서 해당하는 표현들을 제시하고 그 형태를 분류해둘

1) 물론 인용한 논의에서는 '부연'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국어사 논의인 장요한(2014)의 '보충'이라는 메타언어를 선택하였다. 이들 보충 혹은 부연이라는 의미 범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5.1절의 첫머리에서 다루도록 한다.

필요가 있다. 후기중세 한국어의 보충 표현에는 '-디ᄇᆡ'와 '-ㄴ뎡'류 표현이 있다. '-디ᄇᆡ'는 대부분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나, 'ᄒᆞᆼ'이 소실된 후에는 '디위, 디외, 디웨'로도 나타난다. 내부에 '-ㄴ뎡'을 포함한 표현에는 '-건뎡', '-ㄹ샨뎡', '-ㄹ쌋니언뎡', '만뎡', '-란ᄃᆡ만뎡', '-ㄹ션뎡', '-ㄹ디언뎡' 등이 있다. 이때, '만뎡'을 제외한 '-ㄴ뎡'류 연결어미는 선어말어미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이들은 기본 유형('-건뎡'), 형식명사와 계사 어간에 결합한 유형('-ㄹ씨언뎡/ㄹ시언뎡, -ㄹ션뎡', '-ㄹ디언뎡'), 의존명사와 계사 어간에 결합한 유형('-ㄹ샨뎡, -ㄹ쌋니언뎡')과 기타 유형('만뎡, -란ᄃᆡ만뎡')[3]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의미 기능에 대한 중요한 선행 연구 몇 가지를 검토하겠다. 먼저는 총체적 논의다. 허웅(1975)에서는 이들을 불구법(양보법)으로 다루되, 특별히 '앞 긍정(강조) 뒤 부정'으로 기술하였다. 고영근(1987/2010)에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양보함을 보이는 것'의 범주 안에 넣어 기술하였으며 다른 어미들과 특별히 구분해 기술하지는 않았다. 안병희·이광호(1990)에서는 '-ㄴ뎡'류 표현은 양보 표현으로 기술하였으나, '-디ᄇᆡ'는 허웅(1975)와 같이 긍정 대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후행절에 부정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정리하면, 보충 표현은 '앞 긍정(강조) 뒤 부정'이나 '양보'로 기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로는 서정섭(1991)과 최상진·임채훈(2009)을 제시할 수 있다. 서정섭(1991)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ㄹ망정, -ㄹ지언정'을 '강한 양보'

---

2) '-건뎡'의 '거'는 고영근(1987/2010: 145-154)에서 제시한 불연속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타동사 어간에 결합한 어형인 '涅槃 나토건뎡'<법화 5:105a>, 비타동사 어간에 결합한 어형인 '소리 업수미언뎡' <능엄 4:125b>, 선어말어미 '-시-'가 '건뎡'을 가르고 들어간 '命이어신뎡' <법화 5:126a>을 참고할 수 있다.

3) '-란ᄃᆡ만뎡'은 '-란ᄃᆡ'에 '만뎡'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만뎡'은 '덛만뎡'<월석 8:8b>, '주긇만뎡'<월석 25:32b>과 같이 명사 뒤에도 올 수 있고 관형형 뒤에도 올 수 있다. 다른 어형들의 분석을 참조해 'ㄴ뎡'을 소거하면 '만' 혹은 '마' 정도를 상정할 수 있는데, 둘 모두 의존명사이거나 의존명사에서 기원한 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후기중세 한국어에는 유사한 의미기능을 보이는 '만, 샨, ᄯᆞᄅᆞᆷ'이 존재하는데, 이중 '샨'도 계사를 매개로 '-ㄴ뎡'에 결합하고 'ᄯᆞᄅᆞᆷ'도 'ᄯᆞᄅᆞ미언뎡'<법화 3:58b>과 같이 계사를 매개로 '-ㄴ뎡'에 결합하는 예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에 '만뎡'에서도 의존명사를 분석해낼 가능성이 있다.

로 분류하였으며 명제 내용이 '가능 세계의 것'인 경우와 '실제 세계의 것'인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최상진·임채훈(2009)에서는 '-디비'의 후대형인 '-지'의 기본 의미를 '부연'으로 기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선행절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어미. 후행절과 선행절은 동일한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후행절은 선행절을 다른 측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연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최상진·임채훈 2009: 298).

이는 총체적 논의들에서 제시된 '앞 긍정(강조) 뒤 부정'과 상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사 논의를 살펴보면 박용찬(1996)과 장요한(2014)을 살펴볼 수 있다. 박용찬(1996)은 보충 표현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나, '-디비'가 대조와 양보의 의미를 가지며 '-건뎡'와 대체되어 쓰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있다. 본고에서 보충 용법이라 제시한 것을 대조로 명명하고 있기는 하나,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장요한(2014)에서는 '-ㄴ뎡'류 표현만을 한정하여 다루었다. '-ㄴ뎡'류 표현을 선행 담화 내용을 근거로 선행절은 어떤 명제를 '단정'하고 후행절은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일부는 '양보'나 '조건'으로도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계승하여 본고에서는 '-ㄴ뎡'류 표현과 '-디비'를 묶어 이들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인 보충 용법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양보로 실현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명해 보도록 한다. 아래에서 세부적인 세 기능 '보충', '사실적 양보', '(한정) 조건적 양보'에 대해 살펴본 뒤 5.1절의 말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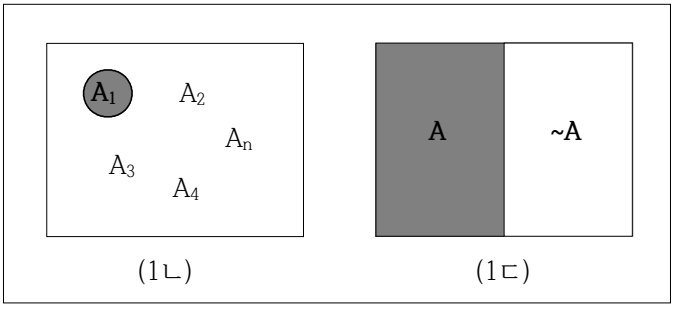
5.1.1. 보충

'보충'은 선행절에서는 어떤 명제를 단언하고 그 대안 집합에 속하는 명제를 후행

절에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화하면 <A{-디비, -ㄴ뎡}, not-A'>의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4] 아래 현대 한국어 예문을 통해 보충 구문의 실현 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1) ㄱ. 이것은 쌀이다(A).
ㄴ. 이것은 **쌀이지(A)**, {보리/찹쌀/기장/ ... }이 아니다(not-A').
ㄷ. 이것은 **쌀이지(A)**, 쌀이 아닌 것이 아니다(not-A').

(1ㄱ)은 한정적 진술로 화자는 눈앞의 어떤 대상을 '쌀'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이것'을 '쌀'이라 한정한 것은 동등한 대안 집합을 모두 부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령 화자가 곡식을 보고 있다면, '쌀' 자리에는 {보리, 찹쌀, 기장 ...} 정도의 대안적 집합의 구성원 중 하나가 올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것'을 '쌀'이라고 한정함으로서 다른 대안 집합의 구성원들은 모두 부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ㄴ), (1ㄷ)의 선행절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쌀'로 한정하고 있다. 동시에 (1ㄴ)은 후행절에서 여집합 중 하나를 부정하였고 (1ㄷ)은 선행절 명제의 부정을 재부정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보충 용법 (1ㄴ), (1ㄷ)의 단순화

4) 물론 후행절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듯하다. 최상진·임채훈(2009: 304)에서는 '-지'의 후행절에 이중 부정, 수사 의문, 의미 해석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평행하게 중세의 '-디비'와 '-ㄴ뎡'의 후행절 유형을 통사적 세분하여 기술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ㄴ)의 경우 '쌀'은 A_1에, 그 외에 가능한 대안 집합을 {A_2, A_3, A_4, ... A_n}에 해당한다. 즉, A_1만 긍정되고 나머지 집합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부정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1ㄷ)의 경우 'A'는 명제 '이것은 쌀이다'에 해당한다. 즉, A만 긍정되고 나머지 ~A는 부정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채색된 부분을 발화하면 채색되지 않은 부분의 부정은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정보적인 발화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최상진·임채훈(2009: 303)에서는 이들 후행절은 선행절과 동일한 내용을 지시하는 절을 통해 선행절의 내용을 강조 혹은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보충'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장요한(2014: 243, 246)에서 제시한 '-ㄴ뎡'류 표현의 예와 본고에서 추가한 '-디빙'의 예이다.

(2) ㄱ. 眚은 곧 見이 **잇부미언뎡(A)** 비치 지수미 아니니(not-A')(眚은 卽見의 勞ㅣ언뎡 非色이 所造ㅣ니) <능엄 2:88a>

ㄴ. 이제 내 仔細히 호니 그 소릿 勢를 **取홀쁘니언뎡(A)** 字 사교물 取티 아니ᄒᆞ노니(not-A') 이 반ᄃᆞ기 이 金石 等中엣 소릿 양이라(今에 率愚ㅣ詳之호니 取其聲勢언뎡 不取訓字ᄒᆞ노니) <원각 下2-1:47b>

ㄷ. 大洲 밧긔 千八百 大國에 다 繒帛이 이쇼ᄃᆡ 絲綿이 다 겨지븨 이베셔 **나디비(A)** 누웨 이베셔 난 거시 아니니(not-A') <월석 25:44a>

(2ㄱ)의 경우 '眚'은 가린 것, 눈병 정도로 볼 수 있어서 '눈병은 곧 [보는 것의 피곤함]이지 [빛이 지은 것]이 아니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선행절 명제에서 '눈병'이 '보는 것의 피곤함'이라는 것이 이미 단언되었다. 이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안 집합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부정된다. 그럼에도 잉여적으로 후행절에서 이 대안 집합의 일부인 '빛이 지은 것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2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의 선·후행절은 모두 '굉(鍠)'자의 특성을 지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자는 소리와 새김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즉, '소리의 세를 취한다'와 '글자의 새김을 취한다'는 서로 대안 집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때, (2ㄴ)에서는 '소리의 세를 취한다'를 긍정하고 여집합인 '글

자의 새김을 취한다'는 부정하였다. 논리적으로 전자를 긍정하는 것은 후자의 부정을 함의할 수밖에 없어 후자의 부정은 잉여적인 정보가 된다. 그럼에도 (2ㄴ)에서는 후행절이 언어화되었다.

(2ㄷ)은 '사면(絲綿)이 여자의 입에서 난 것이지 누에의 입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선행절에서 사면이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단언되었다. 이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안 집합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부정된다. 그럼에도 후행절에서는 그 대안 집합에 속하는 '누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보충' 용법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후행절 명제를 교환할 수 없는 비대칭 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행절 명제와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명제는 대안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셋째, 선행절 명제로부터 후행절 명제의 진리치를 추론할 수 있으며 선행절 명제가 참이면 후행절 명제는 항상 거짓이 되는 모순 함의 관계에 있다. 장요한(2014: 247), 최상진·임채훈(2009: 295)에서 보충 용법의 경우 '다시 말해, 즉' 등을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러한 특성들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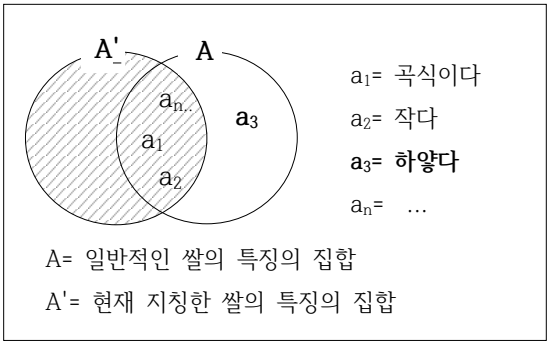
5.1.2. 사실적 양보

현대 한국어의 보충 표현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후기 중세 한국어의 보충 표현은 사실적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다. 먼저 현대 한국어의 예를 보도록 한다.

(3) ㄱ. 이것은 **{쌀이지/*쌀이지만}(A)**, {보리/찹쌀/기장/ ... }이 아니다(not-A').
ㄴ. 이것은 **{쌀이지/*쌀이지만}(A)**, 쌀이 아닌 것이 아니다(not-A').
ㄷ. 이것은 **{*쌀이지/쌀이지만}(A)**, 하얗지 않다(not-B).

(3ㄱ), (3ㄴ)은 보충 용법으로 보충 표현 '-지'는 허용되나 사실적 양보 표현 '-지만'이 오면 비문이 된다. 이 경우 선·후행절은 대안적인 관계에 해당한다. (3ㄷ)은

사실적 양보의 예로, 선·후행절이 대안적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선행절로부터 후행절의 진리치를 추론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만'은 허용되나 '-지'는 비문이 된다. (3ㄷ)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사실적 양보 (3ㄷ)의 단순화

일반적인 쌀의 특징의 집합을 A, 현재 살피고 있는 쌀의 특징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_n는 그 구성원으로 개별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3ㄷ)은 일반적으로 쌀의 특징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a_3가 현재 살피고 있는 대상의 특징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기대의 부정에 해당해 양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보충 표현이 (3ㄷ)과 같은 사실적 양보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ㄷ)은 장요한(2014)에서 제시한 양보의 예이고 (4ㄱ), (4ㅁ)은 본고에서 추가한 예이다.

(4) ㄱ. 곧 方便으로 涅槃 **나토건뎡(A)** 實은 滅度 아니ᄒᆞ노라(not-B) <법화 5:105a>
ㄴ. (기대) 열반을 나타내시면(A) 멸도한 것이다(B).
ㄷ. 如來 그듸 나라해 와 **滅度ᄒᆞ실씀뎡(A)** 實엔 우리ᄃᆞᆯ토 울워ᄉᆞᆸ논 젼ᄎᆞ로(C) 舍利 얻ᄌᆞ바다가 塔 일어 供養ᄒᆞᅀᆞ보려 ᄒᆞ야(not-B) 머리셔 오소이다 <석상 23:53a>
ㄹ. (기대) 여래가 다른 나라에서 멸도하면(A) 사리를 얻어 공양할 수 없다(B).

ㅁ. 이 ᄀᆞᆮᄒᆞᆫ 大士ㅣ 慈悲願으로 大鬼王 모ᄆᆞᆯ **現ᄒᆞ디비(A)** 實엔 鬼 아니라 (not-B) 이 後에 一百七十 劫 디나 부톄 ᄃᆞ외야 <석상 21:129a>

ㅂ. (기대) 대귀왕 몸을 현하면(A) 귀신이다(B).

(4ㄱ)의 경우 '열반을 나타내는 것'과 '멸도하는 것'은 모순 함의 관계에 있는 대안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열반을 나타내면 멸도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열반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기대와 달리 멸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는 부사어 '實은'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實은'은 "앞에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일어난 내용을 뒤에 말할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말."<고려대 한국어사전>로 현대와 중세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따라서, 기대의 부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4ㄷ)에서도 '사리를 얻어 탑을 세워 공양한다'는 '여래가 그대의 나라에 와서 멸도하는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선행절을 통해 후행절의 진리치를 추론할 수 없다. 더 나아가 (4ㄹ)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어 사실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겠다.

(4ㅁ)의 경우도 '귀신이 아닌 것'은 '대귀 왕 몸을 현하는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선행절을 통해 후행절의 진리치를 추론할 수 없다. (4ㅂ)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한 양보문으로 볼 수 있다. 이때도 선행절의 사실을 인정하나 후행절에서는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4ㅁ)과 같은 '-디비'의 경우, 현대 한국어의 '-지'로 번역했을 때, 매우 어색하다는 점이다. (3ㄷ)과 같이 '-지만'을 이용하는 경우 자연스럽다. 이는 '-지만'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5.2절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이처럼 보충 표현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적 양보로 실현될 수 없으나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사실적 양보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이들 용법의 표면

5) 4.1.1항에서 수정 양보와 유사한 특수 구문을 하나 언급한 바 있다. 보충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많은 경우가 그러한 특수 구문에 속할 수 있는 듯하다.

적 형식은 “앞 긍정 뒤 부정”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보충 용법에는 기대의 부정이 나타나지 않고 사실적 양보에는 기대의 부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보충 표현의 선·후행절은 대안적인 관계에 있다면, 수정 양보의 선·후행절은 대안적 관계라 할 수 없으며, 이에 선행절을 통해 후행절의 진리치를 추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충 용법과는 다르게 ‘다시 말해서’를 사이에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이것은 쌀이다. 다시 말해 하얗지 않다).

5.1.3. 조건적 양보

다음으로는 조건적 양보를 살펴보겠다. 보충 표현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 대부분 선·후행절이 대안적 관계에 해당하며 선행절은 극단값으로 나타난다. 아래 현대 한국어의 예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5) ㄱ. (?차라리) 돈이 많아도(A) 너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not-B).
ㄴ. (기대) 돈이 많으면(A) 너에게 돈을 준다(B).
ㄷ. (차라리) 기부를 하지(/할 뿐)(B') 너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not-B).
ㄹ. (기대) 기부를 할 상황이면(B') 너에게 돈을 준다(B)

(5ㄱ)은 일반적인 조건적 양보의 예이고 (5ㄷ)은 보충 표현의 조건적 양보의 예이다. (5ㄱ)의 선·후행절은 대안 집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5ㄷ)의 ‘기부를 하는 것’과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은 대안 집합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안적 상황을 지시하는 부사 ‘차라리’의 공기를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 (5ㄱ)의 경우 ‘차라리’의 공기가 어색하나 (5ㄷ)은 자연스럽다.

이때, (5ㄷ)과 같은 문장이 양보로 해석되는 까닭은 ‘기부를 하는 상황’이 극단값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가장 일어날 확률이 적은 기부를 할 정도라면, 후행절에 너에게 돈을 주는 상황도 만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정된다(5ㄹ). 그러나 이를 부정해 가장 일어날 일이 적은 ‘기부를 하는 상황’에서도 너에게는 돈을 주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선·후행절 명제가 대안적 관계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명제들의 실현을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 전제된다고도 할 수 있다. 가령, '기부를 하는 것'(B')과 '너에게 주는 것'(B)은 '돈이 많이 주어지는 상황'(A)을 가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A는 언어화될 수도, 언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경우는 A가 언어화된 문장이다.

(6) 돈이 많아도/많으면(A), (차라리) 기부를 하지(B'), 너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not-B).
(연쇄1) 돈이 많으면(A) 너에게 돈을 준다(B).
(연쇄2) 돈이 많으면(A) 기부를 한다(B').

(6)에는 두 가지 연쇄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A, B>, 다른 하나는 <A, B'>이다. 이때, (연쇄1)에 해당하는 <A, B>는 부정되었고 (연쇄2)에 해당하는 <A, B'>은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후기중세 한국어의 보충 표현이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는 항상 선·후행절이 대안적인 관계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ㄹ샨뎡, -ㄹ쌰니언뎡, 만뎡'과 '-디빙' 등이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었다. 아래의 '-ㄴ뎡'류 표현의 예는 장요한(2014)에서 양보로 제시한 것이고 '-디빙'는 본고의 예이다.

(7) ㄱ. (世尊하 우리도 ᄯᅩ 法華經 讀誦 受持ᄒᆞ릴 擁護ᄒᆞ야 그 衰患ᄋᆞᆯ 더러 ᄒᆞ다가 法師의 뎌ᄅᆞᆫ 딜 여ᅀᅥ 求ᄒᆞ리 이셔도 便을 得디 몯게 코져 ᄒᆞ노이다 코 즉재 佛前에 呪ᄅᆞᆯ 닐오ᄃᆡ) 출히 내 머리 우희 오ᄅᆞᆯ 샨뎡(B') 法師ᄅᆞᆯ 어즈리디 말며(not-B)(寧上我頭上 莫惱於法師) <석상 21:29b>
ㄴ. (기대) 내 머리에 오를 상황이면(B'), 법사를 어지럽혀라(B).
ㄷ. 善友ㅣ 이제 바ᄅᆞ래 드러가 몯 도라왯ᄂᆞ니 네 엇데 빌머긇 것바ᅀᅵ 겨지비 ᄃᆞ외요려 ᄒᆞᄂᆞᆫ다 그 ᄯᅳ리 닐오ᄃᆡ 비록 그러코도(A) 주글샨뎡(B') 갈아 나디 아니호리이다(not-B)(善友今者 入海未還 汝今云何爲乞人作婦 女言 雖爾 乃至捨命 終不捨離) <월석 22:55b>

ㄹ. (기대) 죽을 상황이면(B') 버리고 떠난다(B).

ㅁ. 남지ᄂᆞᆫ 逃亡ᄒᆞ고 崔氏ᄂᆞᆫ 자펴 겨집 사모려 커늘 崔氏 닐오ᄃᆡ 나ᄂᆞᆫ 士大夫ㅅ ᄯᆞ리오 僕射ㅅ 겨지비로니(C) 오ᄂᆞᆯ **죽디비(B')** 현마 도ᄌᆞᄀᆡ 겨집 아니 ᄃᆞ외요리라(not-B) ᄒᆞ야ᄂᆞᆯ(僅以身免 崔爲賊所拘 請以爲妻 崔曰 我士大夫女 爲僕射子妻 今日破亡 自可卽死 終不爲賊婦) <삼강 烈13>

ㅂ. (기대) 죽을 상황이면(B') 도적의 아내가 된다(B).

(7ㄱ)는 나찰녀가 부처님 앞에 와서 법화경을 외우는 이를 해하려는 이를 쫓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맥락에서 나온 문장이다. 이에 '법사의 단점을 엿보아 찾으려는 이가 있으면'을 A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B'은 극단값(내 머리에 오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7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해 양보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7ㄷ)은 맹인(예문에서는 '거지')에게 시집가는 공주의 발화다. (6)의 현대 한국어의 예와 더 정확한 일치를 보여준다. 'A, B', B'가 모두 등장했으며 A에는 '비록 ... 도'가 사용되었다.[6] 이 경우도 '죽는 것'(B')과 '버리고 떠나는 것'(B)은 대안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죽는 것'은 극단값에 해당한다.

(7ㅁ)은 '-디비'가 사용된 예로, (7ㄷ)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최씨가 도적에게 잡혀 아내 되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도적이 아내 삼으려 겁박하면'를 A로 상정할 수 있겠다. B와 B'은 이에 대한 선택지들로 B'은 가장 극단적인 '죽는 것'에 해당한다. 이를 긍정하고 B를 부정하여 양보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디비'가 한정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는 (7ㅁ)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7]

끝으로 이들 세 가지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6) 한국어의 '乃至'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어대사전>에 따르면, 한문의 '乃至'는 '심지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乃至'는 '寧'과 유사한 의미라 할 수 있다고 한다.

7) 예가 적기 때문에 '-디비'가 한정 조건적 양보로 쓰일 수 있는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대 한국어와의 연속성을 고려해볼 때, 현대 한국어의 '-지'는 특수한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기중세의 '-디비'도 가능했을 수 있다. 실제로 (7ㅁ)은 '-지'로 현대어역해도 자연스럽다.

용법은 모두 “앞 긍정, 뒤 부정”이라는 형식적 공통점을 보인다.[8] 그러나 보충 용법은 기대 부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시 사실적 양보는 조건적 양보와 기대의 부정이 나타나는 양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선·후행절이 대안 집합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들은 한문 원문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보충과 사실적 양보는 ‘(只) ... {勿, 不, 無 ...}’의 형식에 대해 언해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특수한 조건적 양보는 대부분 한문의 ‘寧 ... {勿, 不, 莫 ...}’에 대한 언해로 나타난다. 이때, ‘寧’은 흔히 ‘출히, 출ᄒᆞ리’ 등으로 언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부사는 조건적 양보에만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조건적 양보에만 ‘차라리’가 공기하는 현상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보충 표현의 의미 기능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 긍정, 뒤 부정”의 형식	기대 부정	대안적 관계
보 충	▨		▨
사 실 적 양 보	▨	▨	
(특수한) 조건적 양보	▨	▨	▨

요컨대 보충 표현은 그동안 “앞 긍정, 후 부정”으로 기술되어 왔으나 이들을 적어도 세 가지 의미 기능 ‘보충’, ‘사실적 양보’, ‘특수한 조건적 양보’로 세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ㄹ씨언뎡/ㄹ시언뎡, -ㄹ션뎡’의 경우 ‘양보’가 아닌 ‘조건’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 우리의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다).[9] 내부 구조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형론적인 발달 유형을 특정하기는 어렵다.[10]

---

8) 앞 부정 뒤 긍정이거나 뒤에 부정 대신 수사의문이 오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9) 太子ㅣ 닐오ᄃᆡ 그듸 냇 말 ᄀᆞᆮ디 아니호니 오직 아바닚 病이 <u>됴ᄒᆞ실씨언뎡</u> 모ᄆᆞᆯ 百千 디위 ᄇᆞ료민ᄃᆞᆯ 므스기 어려ᄇᆞ료 <석상 11:20a>

10) 대조의 특수한 용법에서 발달한 유형에 속할 수도 있고 선행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후행절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양보의 발달 유형 중 ‘눈에 띄는 공존/동시 발생(Remarkable co-occurrence/co-existence)’ 내지는 ‘사실적 요소(factual)’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거-’의 경우 화자의 주관적 믿음에 근거하여 사태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이는 확인법 선어말

5.2. 개별 표현의 실현 양상

다음으로는 개별 표현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건뎡'의 예이다.[11] 사실적 양보와 보충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8) ㄱ. 녯 聖人냇 보라ᄆᆞᆯ 보미 **맛당컨뎡(A)** 모ᄃᆡ 杜撰을 마롫디니 아란다(not-A') (宜觀先聖標格이언뎡 切忌杜撰이니 會麼아) <몽산 20a>

ㄴ. (聖人ㅅ 神奇ᄒᆞ신 智慧 方便 法門이 能히 ᄒᆞᆯ를 길우샤 ᄒᆞᆫ 劫 ᄆᆡᆼᄀᆞᄅᆞ시며 能히 ᄒᆞᆫ 겁 조리샤 ᄒᆞᆯ를 ᄆᆡᆼᄀᆞᄅᆞ시ᄂᆞ니 道ᄂᆞᆫ 올마 變호미 업거늘 ᄠᅳ디 ᄲᅡᄅᆞ며 오람 이슈미 ᄭᅮᆷ ᄭᅮᆯ 사ᄅᆞ미 ᄒᆞᆫ 時를 옮디 아니ᄒᆞ야셔 ᄭᅮ메 한 ᄒᆡ를 디나ᄃᆞᆺᄒᆞ니 ᄲᅡᄅᆞ며 오란 ᄠᅳ디 처섬 一定 업도다) 그럴씨 聖人이 機를 對ᄒᆞ샤 延促을 **뵈시건뎡(A)** 本來 延促 업스니라(not-B) <법화 5:88b>

ㄷ. (기대) 성인이 기의 연촉을 보이면(A) 실제로 기의 연촉이 있는 것이다(B).

(8ㄱ)의 경우 보충 용법으로 보인다. 선행절에서는 옛 성인들의 표지(標格)를 볼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후행절에서는 옛 성인들의 표지와 대안적 관계에 있는 두찬(杜撰)을 보지 말라고 했다. 이에 선행절 명제로부터 후행절 명제의 진리치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옛 성인들의 표지를 봄이 마땅하면, 두찬을 본다'와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도 없다. 이에 보충 용법이라 할 수 있다.[12] (8ㄴ)의 경우 사실적

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건마ᄅᆞᆫ, -거늘' 등 양보로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 제시' 연결어미에 '-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동궤로 선행절의 사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ㄴ뎌'에서 'ㅇ'을 분석할 수 있다면 안병희·이광호(1990)에서 제시한 강세 보조조사 'ㅇ'으로 보아 강조사로서 선행절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외에 초점사만을 다룬 논의인 König(1991a)에서는 제외 초점사가 '강조사'로서 양보 구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바 있어 'ᄲᅮᆫ, ᄯᅳᆯᄆᆞ' 등의 공기도 설명할 수 있다.

11) 『釋譜詳節』나 『月印釋譜』에서는 '-건뎡'의 예는 찾을 수 없었다. 문헌에 따라 나타나는 '-ㄴ뎡'류 표현이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12) 장윤희(2011), 『蒙山法語諺解』 역주서에는 '-건뎡'이 양보로 해석되어 독특하다는 언급이 있다. '두찬'도 '옛 성인들의 표지'에 포함된다면 양보로 볼 수 있

양보이다. 기대로는 성인이 機에 늘이고 줄임을 보인다면 실제로 늘이고 줄어듬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기대를 부정하여 그 연촉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이는 '本來'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근본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표현된 것이다.

(9)는 '-ㄹ디언뎡'의 예이다.[13] '-ㄹ디언뎡'은 보충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대부분 능력, 의무 양태로 해석되었다. 항상 선어말어미 '-오-'와 공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9) ㄱ. 반ᄃᆞ기 ᄒᆞ다가 素 차바ᄂᆞᆯ 能히 모ᄌᆡ ᄂᆞ리오디 몯ᄒᆞ야 오라아 시드러 病이 일가 저프닌 어루 고깃 汁과 脯肉과 젓과 시혹 고기 아니 하니로 ᄡᅥ 그 <u>滋味ᄅᆞᆯ 도올디언뎡(A)</u> ᄒᆞᆫ 飮啖과 盛ᄒᆞᆫ 차바ᄂᆞᆯ 겯ᄀᆞᆺ 머그며 사ᄅᆞᆷ과 다ᄆᆞᆺ 이바디ᄒᆞ며 즐겨호미 可티 아니ᄒᆞ니(not-A') (必若素食을 不能下咽ᄒᆞ야 久而羸憊ᄒᆞ야 恐成疾者ᄂᆞᆫ 可以肉汁及脯醢와 或肉少許로 助其滋味언뎡 不可恣食珍羞盛饌ᄒᆞ며 及與人燕樂이니) <내훈 1:70a-70b>

ㄴ. 識體ᄂᆞᆫ 기프니 반ᄃᆞ기 微細히 기피 <u>ᄉᆞ랑홇디언뎡(A)</u> 멀터이 데뿌미 몯ᄒᆞ리니(not-A') 보ᄆᆞᆯ 眞實을 得ᄒᆞ면 本來ㅅ 如來藏ᄋᆞᆯ 알리라(識體ᄂᆞᆫ 深潛ᄒᆞ니 當微細沈思ㅣ언뎡 不可麤浮ㅣ니 觀得其眞ᄒᆞ면 則悟其本如來藏矣리라) <능엄 3:106a>

(9ㄱ)은 상을 당했을 때,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나온 예문이다. '병든 이는 고기로써 입맛을 도움'이 가능함이 단언되고 그 대안이 되는 '고기로써 마음껏 먹고 잔치하며 즐기는 것'의 가능 여부는 부정하고 있다. 이에 "병든 이는 고기로써 입맛을 도울 수 있지만 고기로써 마음껏 먹고 잔치하며 즐길 수 없다"로 해석되어 보충 용법이자 능력·의무 양태 정도로 볼 수 있다.[14] (9ㄴ)은 식체(識體)에 대한 내용으로, '미세하게 깊이 생각해야 함'이 단언되고 후행절에서는 '거칠게 들

다. 그러나 두찬은 "전거가 불확실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시문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13) '-건뎡'처럼 『釋譜詳節』나 『月印釋譜』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었다.

14) 다만, '병든 이가 고기를 먹는 상황'을 상중에 고기를 먹는 상황 중에서 끝값에 해당한다고 보면 양보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표현되었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보충 용법이라 할 수 있다. 한문의 '當'과 '不可', 언해문의 '반ᄃᆞ기' 및 맥락을 고려할 때, 의무 양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ㄹ디니라'와 같이 유사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어미가 양태적 해석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15]

다음으로는 '-ㄹ샨뎡'과 '-ㄹ쌰니언뎡'이다. 형태는 유사하나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ㄹ샨뎡'은 『釋譜詳節』, 『月印釋譜』에 다수 출현하나 '-ㄹ쌰니언뎡'은 『月印釋譜』에 한 건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의미 기능에서는 사실적 양보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보충이나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16] 먼저 (10)은 사실적 양보의 예이다.

(10) ㄱ. 太子ㅣ 苦行 오래 ᄒᆞ샤 ᄉᆞᆯ히 **여위실 샨뎡(A)** 金色光은 더욱 빗나더시다(not-B)(坐道樹下形體00 **唯**有金色光明益顯) <석상 3:39b>
(기대) 살이 여위면(A) 금색광이 없다(B).

ㄴ. 웃 對答은 갓ᄀᆞᆯ오 이 對答은 正ᄒᆞ니 소리 生滅이 이**실 쌰니언뎡(A)** 듣ᄂᆞᆫ 性은 샹녜 잇ᄂᆞ니라(not-B)(上答은 爲倒ㅣ오 此答은 爲正이니 盖聲이 有生滅이언뎡 聞性은 常在ᄒᆞ니라) <능엄 4:127a>
(기대) 소리 생멸이 있으면(A) 듣는 성품도 생멸이 있다(B).

(10ㄱ)은 '-ㄹ샨뎡'의 예로 살이 여위면 일반적으로 금색광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기대는 금색광이 더욱 빛남이 후행절에 제시되어 부정되었다. 한문 원문에도 '唯'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10ㄴ)은 '-ㄹ쌰니언뎡'의 예다. 기대로는 '소리에 생멸이 있으면 듣는 성품에도 생멸이 있을 것'이 상정되나 후행절에서 성품은 항상 있는 것이라 하여 기대를 부정하였다.

---

15) 다음의 경우 '-ㄹ디언뎡'과 '-ㄹ디니라'가 호응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坐中에 힘 어두미 ᄆᆞᆺ 하니 坐ᄅᆞᆯ 法으로 **흖디언뎡(A)** 눈서블 바ᄅᆞ 보아 누늘 힘 뼈 뼈 몸과 ᄆᆞᅀᆞᆷ과ᄅᆞᆯ 긋눌로ᄆᆞᆯ 모ᄃᆡ **마롫디니라(~A')**(若於坐中에 得力이 最多ᄒᆞ니 坐宜得法이언뎡 不要瞠眉努目ᄒᆞ야 遏捺身心이니라)" <몽산 35a>

16) 이들 표현이 보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우리가 찾은 예는 이미 (2ㄴ)에서 본 바 있어 이 부분에서는 생략했다.

다음 (11)은 '-ㄹ샨뎡'과 '-ㄹ쌰니언뎡'의 조건적 양보의 예다. 맥락을 참고해 기대를 상정하였다.

(11) ㄱ. **출히 趙氏ㅅ 귓거시 ᄃᆞ욀샨뎡(B')** 다른 나랏 臣下 ᄃᆞ외디 아니호리라(not-B)(寧作趙氏鬼언뎡 不爲他邦臣호리라) <삼강 忠21>
(기대) 귀신이 될 상황이면(B')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된다(B).
(연쇄1) 적장이 항복을 권유하면(A)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된다(B).**
(연쇄2) 적장이 항복을 권유하면(A) **죽어 귀신이 된다(B').**

ㄴ. 二乘의 寂에 걸인 境界를 여희요미니 稱讚大乘經에 니ᄅᆞ샤ᄃᆡ **출하리 地獄애 이셔 百千劫을 디낼 쌰니언뎡(B')** ᄆᆞ춤내 二乘의 ᄆᆞᅀᆞᆷ 發티 아니호리라 ᄒᆞ시니라(not-B)(離二乘의 滯寂境界니 稱讚大衆經에 云ᄒᆞ샤ᄃᆡ 寧在地獄ᄒᆞ야 經百千劫이언뎡 終不發二乘之心이라 ᄒᆞ시니라) <원각 하3-1:82b>
(기대) 지옥에서 백천겁을 지낼 정도면(B') 이승의 마음을 일으킨다(B).
(연쇄1) 이승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A) **이승의 마음을 일으킨다(B).**
(연쇄2) 이승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A) **지옥에서 백천겁을 지낸다(B').**

(11ㄱ)의 경우 송나라 양방예(楊邦乂)가 금나라 장수에게 사로잡혀 옷깃에 쓴 말이다. 이에 A를 '적장이 항복을 권유하면'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귀신이 되는 것과 다른 나라 신하가 되는 것은 대안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신이 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값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11ㄴ)의 경우 二乘(聲聞과 緣覺)에 집착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聲聞緣覺 境界예 着디 아니ᄒᆞ며 <원각하3-1:82a>). 이에 A를 '이승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지옥에서 백천겁을 지내는 것과 이승의 마음 발하는 것은 대안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옥에서 백천겁을 지내는 것은 극단값이며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 이승에 집착하는 마음을 낼 것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러한 기대를 부정해 양보문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남은 '만뎡'과 '-란ᄃᆡ만뎡', '-ㄹ션뎡', '-ㄹ시언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17]

(12) ㄱ. 부톄 神足ᄋᆞᆯ 나토샤 宿命을 아라 지손 罪福ᄋᆞᆯ 다 念케 ᄒᆞ야시ᄂᆞᆯ 우리ᄃᆞᆯ히 모미 **주ᄀᆞᆷ만뎡(B')** 모딘 일 犯티 아니호리이다 ᄒᆞ야ᄂᆞᆯ(not-B)(佛現神足令識宿命 所作罪福普悉念之 我等寧沒身命 不敢犯惡) <월석 25:32b>

(기대) 죽을 상황이면(B') 모진 일을 범한다(B)

(연쇄1) 모진 일 범하고 싶으면(A) **모진 일 범한다(B).**

(연쇄2) 모진 일 범하고 싶으면(A) **죽는다(B').**

ㄴ. 고기 잡ᄂᆞᆫ ᄇᆡ 놀요ᄆᆞᆯ 보노라 ᄒᆞ야 白日이 올마 가ᄃᆞ록 **ᄒᆞ시란ᄃᆡ만뎡** 늘근 녀름짓ᄂᆞᆫ 노ᄆᆞᆫ ᄆᆞ슷 거시 이셔 서르 즐교ᄆᆞᆯ 다ᄒᆞ리오(看弄漁舟移白日 老農何有罄交懽) <두시초 22:7b>

ㄷ. 太子ㅣ 닐오ᄃᆡ 그듸냇 말 ᄀᆞᆮ디 아니호니 오직 아바ᄂᆞᆺ 病이 **됴ᄒᆞ실시언뎡** 모ᄆᆞᆯ 百千 디위 ᄇᆞ려도 어렵디 아니ᄒᆞ니 ᄒᆞᄆᆞᆯ며 이 더러ᄫᆞᆫ 모미ᄯᆞ녀(太子言不如諸臣所言也 但使父王病得損者 假使捨百千身 亦不爲難 況我今日此穢身也) <월석 21:216a>

ㄹ. 사ᄅᆞᆷ 주규미 ᄯᅩ 그지 이시며 나라ᄒᆞᆯ 셰욤도 스ᄉᆡ로 ᄀᆞᄉᆡ 잇ᄂᆞ니 眞實로 能히 侵勞ᄒᆞᄂᆞ닐 **制馭ᄒᆞᆯ션뎡** 엇뎨 해 주규메 이시리오(殺人亦有限 立國自有疆 苟能制侵陵 豈在多殺傷) <두시초 5:28a>

(12ㄱ)은 '만뎡'의 예로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겠다. 몸이 죽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예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ㄴ)은 고기 잡는 배를 보며 노는 인물과 늙은 농부가 대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란ᄃᆡ만뎡'을 분석하기 어렵다. (12ㄷ)과 (12ㄹ)는 각각 '-ㄹ션뎡'과 '-ㄹ시언뎡'의 예다. 이들은 양보가 아닌 조건으로 보아온 것이며 이들은 항상 후행절에 수사 의문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18]

마지막으로는 '-디ᄇᆡ'를 살펴보겠다. 보충 용법과 사실적 양보로 주로 사용되며

17) 이들 표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 앞으로 예문을 살펴 정교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겠다.

18) '-ㄹ씨언뎡'과 '-ㄹ션뎡'은 『釋譜詳節』와 『月印釋譜』, 『杜詩諺解』에만 등장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이 "됴케 ᄒᆞᆯ씨언뎡"<석상 24:50b>, "됴ᄒᆞᆯ션뎡"<월석 25:141b>으로 언해 되었다는 점을 보면 그 의미 차이는 크지 않은 듯하다.

특수한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예도 한 건 발견되었다.

(13) ㄱ. 흔 道人 辯才라 호리 닐오ᄃᆡ 先世옛 罪ᄂᆞᆫ 精神을 **좃디비(A)** 모매 븐디 아니ᄒᆞ니(not-A')(有道人辯才曰호ᄃᆡ 先身罪業은 隨逐精神ᄒᆞ야 不與身合ᄒᆞ니) <석상 20:12b>

ㄴ. 光明大梵ᄃᆞᆯ히 二禪 三千 王이니 오직 無量心을 더 닷가 果報ㅣ 어디러 王이 **ᄃᆞ외디비(A)** ᄀᆞᄉᆞᆷ아ᄂᆞᆫ ᄃᆡᆫ 업스니라(not-B) <월석 11:25b>

ㄷ. (기대) 왕이 되면(A), 주관하는 곳이 있다(B).

ㄹ. 남지ᄂᆞᆫ 逃亡ᄒᆞ고 崔氏ᄂᆞᆫ 자펴 겨집 사모려 커늘 崔氏 닐오ᄃᆡ 나ᄂᆞᆫ 士大夫ㅅ ᄯᆞ리오 僕射ㅅ 겨지비로니(C) 오ᄂᆞᆯ **죽디비(B')** 현마 도ᄌᆞᄀᆡ 겨집 아니 ᄃᆞ외요리라(not-B) ᄒᆞ야ᄂᆞᆯ(僅以身免 崔爲賊所拘 請以爲妻 崔曰 我士大夫女 爲僕射子妻 今日破亡 自可卽死 終不爲賊婦) <삼강 烈13>

ㅁ. (기대) 죽을 상황이면(B'), 도적의 아내가 된다(B).

(연쇄1) 도적이 겁박하면(A), 도적의 아내가 된다(B)

(연쇄2) 도적이 겁박하면(A), 죽는다(B')

(13ㄱ)은 보충 용법으로 보인다. '정신을 좇음'과 '몸을 좇음'은 대안 집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긍정하고 후자는 부정하고 있는데, 선행절을 토대로 후행절의 진리치를 알 수 있어 보충 용법이라 할 수 있겠다. (13ㄴ)은 사실적 양보로 보인다. '왕이 되는 것'과 '주관하는 곳이 있음'은 대안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왕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관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정된다. 이를 부정해 사실적 양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13ㄹ)은 앞서 살펴본 예로 특수한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는 예이다. '죽는 것'은 극단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디비'의 보충과 조건적 양보 용법은 현대 한국어의 후대형인 '-지'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나 사실적 양보의 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실적 양보의 용법은 '-지만'으로 현대어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이현희(1993: 68)를 참고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논의에서는 '-건마ᄅᆞᆫ'이 '-건마ᄂᆞᆫ'으로 형태가 변화했고 '-디비'에서 변화한 '-지'와 혼효되어

'-지마ᄂᆞᆫ'(>'-지마는', '-지만')을 형성했다고 한 바 있다. 즉, 현대 한국어 '-지만'은 기원적으로 '-디ᄇᆡ'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디ᄇᆡ'의 사실적 양보 용법은 횬효형 '-지마ᄂᆞᆫ'(-지만)이 담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보충과 특수한 조건적 양보는 여전히 '-지'에 남아 있다고 생각해봄 직하다.

유형별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뎡'은 보충, 사실적 양보로 사용되었고 '-ㄹ디언뎡'의 경우도 사실적 양보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능력, 의무 양태 의미를 보였다. '-ㄹ쓴뎡, -ㄹ쑤니언뎡'은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및 일부 보충)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만뎡'도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었다. '-ㄹ션뎡'과 '-ㄹ시언뎡'은 조건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디ᄇᆡ'의 경우 보충,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에 모두 사용되었다.

5.3. 보충 표현과 구결 문헌

다음으로는 보충 표현의 선대형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구결 문헌의 표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는 구결문헌에 등장하는 '-ㄱㄱ'과 '-ㄴ뎡'류 표현의 관련성에 대해 형태적 관련성과 의미 기능(혹은 구문)의 유사성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형태의 관련성은 '-ㄴ뎡'이 언해된 예문 중 원문에 음독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저본에 대해 음독 구결과 한글 구결 언해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할 수 있다.

(14) ㄱ. 사ᄅᆞ미 도ᄌᆞᆨ 되요미 다 주리며 치우메 나ᄂᆞ니 출하리 비러머거 목수믈 <u>둘쑤니언뎡</u> 졀도ᄒᆞ며 강도ᄒᆞ기ᄅᆞᆯ 말라 <경민편 16a-b>

ㄴ. 人之爲盜賊是 皆出於飢寒爲飛尼 <u>寧丐乞存命言丁</u> 勿爲偸竊强奪爲羅<경민편 16a-b>

(15) ㄱ. 이 ᄠᅳ드로 보건댄 알핏 드트리 제 어드울 <u>쑤니언뎡</u> 보미ᅀᅡ 엇뎨 덜리오 <능엄 1:100a>

ㄴ. 以是義로 觀컨댄 前塵이 <u>自暗이언뎡</u> 見이ᅀᅡ 何虧損ᄒᆞ리오 <능엄 1:100a>

ㄷ. 以是義 觀ㅅㄴㅗㅓ 前塵ㅅ <u>自暗ㅇㄱㄱ</u> 見 何虧損ㅅㅐㅋ <소곡능엄 1:14b>

(14)의 경우 16세기 문헌으로 언해문의 '언뎡'이 음독구결의 'ㅎㅜ'에 대응함을 볼 수 있다. (15)는 『楞嚴經』의 동일 부분에 대한 언해문, 한글 구결, 음독 구결이 자료이다. 이때도 음독구결에는 'ㄱㅜ'가 현토되어 있으나 한글 문헌에서는 'ㄴ뎡'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19] 이에 대해 구결에는 'ㅇ'을 표기할 수단인 없어, 'ㄴ뎡'을 'ㄱㅜ'로 표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20]

자토석독구결 문헌의 경우 동일한 저본을 공유하는 음독구결, 한글 문헌이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감탄, 종결어미, 연결어미, 나열 등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ㄱㅜ'은 존재한다. 이것과 음독구결에 존재하는 '-ㄱㅜ', 15세기 한국어의 '-ㄴ뎡'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의미 기능의 유사성이다. 앞서 살펴본 (14), (15)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한 현토, 언해이므로 동일한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동일한 저본을 공유하는 15세기 문헌이 없는 (16)의 석독구결의 예에서도 후기중세 한국어의 '-ㄴ뎡'이 나타나는 구문들과 동일한 의미 기능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16) ㄱ. [先下 說ノㄱ 所ヒ 相乙 如ハ 而ㅁ 正法乙 聽聞ノ尸ム] **[唯ハ** 涅槃乙 {以}ㅋ 而ㅁ 上首 {爲}ㅋ ㄹ 唯ハ 涅槃乙 求ソㄹ **唯ハ** 涅槃乙 緣ソㄹソㅋ 而ㅁ 法乙 **聽聞ソ尸矣リㄱㅜ]**(A) [他乙 引ソㅋ {於}己ㅋ乙 信ソ{令}リ{爲}ㅅソ尸

19) 추가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楞嚴經 원각사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글의 '올쌔니언뎡'과 'ㅗㅜ'가 모두 병기되어 있어 훌륭한 근거 자료가 된다.

20) 혹은 'ㄴ뎡'의 선대형이 'ㄴ뎌'였고 이에 대한 구결 표기 'ㄱㅜ'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不冬ソる　利養亠　恭敬亠　稱譽亠ノ尸乙　爲ソ色人ソ尸　不冬ソるソ尸矣丨](A')(如先所說相 而聽聞正法 唯以涅槃 而爲上首 唯求涅槃 唯緣涅槃 而聽聞法 不爲引他令信於己 不爲利養恭敬稱譽) [먼저 말한 바 상과 같이 정법을 자세히 듣되, 오직 열반으로써 으뜸[上首]을 삼고, 오직 열반을 구하고, 오직 열반을 연하고 하여 법을 자세히 듣는 **것이니(〉 것이지)**, 남을 이끌어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양(利養)이니 공경이니 칭찬[稱譽]이니 하는 것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유가 04:15-19>

ㄴ. [{此}リ 衆生乙 觀彳ㄱム] [乃彡 苦冫十 **至リ彳ヵ 可セソ丁リ丁丁**](A) [終ソ乃 肯彳丁丁 避リ 不矣ナ丁リ丨](not-B)(觀此衆生 乃可至苦 終不肯避) [이 중생을 보면 곧 **고통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니(〉 (심지어) 고통에 이를 수 있어도)**, 끝내 마땅히 여겨 피함이 없는 것이다.] <자비 21:17-18>

ㄷ. (기대) 고통에 이를 수 있으면(A) 돌이켜 피한다(B)

(16ㄱ)은 보충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열반을 으뜸으로 삼는 것', '열반을 구하는 것', '열반을 연하여 법을 자세히 듣는 것'을 긍정하고, 대안 집합으로 상정되는 '남을 이끌어 자기를 믿게 하려 하는 것', '이양, 공경, 칭찬을 위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唯ハ S丁丁] [S尸矣丨]"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16ㄴ)은 우두아방(牛頭阿傍)의 발화로 조건적 양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에 이를 수 있는 것'과 '마땅히 여겨 피하는 것'은 중생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로 대안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고통에 이르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16ㄷ)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가 부정되어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6ㄴ)은 기존의 <Sktot>번역에서는 순접으로 파악해온 것이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양보로 파악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다. 먼저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중생을 보되' 다음에는 중생의 '알고 있어도 끝내 피하지 않고 죄를 짓는 습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21] 한문

21) 이 부분의 <sktot>번역본을 제시해 둔다. '이러한 일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나는 죄인에게 조각만큼의 자비심도 없고, 일부러 초독(楚毒)을 더하는 것은 바라건대 그가 괴로운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수치인 것을 알고 하여 거듭

원문의 경우도 역경원에서는 '저 중생들은 고통을 달게 여기고 조금도 피할 생각이 없으니' 정도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sktot>식의 해석('고통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보다는 본고의 해석안('고통에 이를 수 있는 것이어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終ㅅㄱ'를 역접의 의미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결 문헌에서는 '然(ㅣ)ㅅㄱ'가 투식적으로 역접의 맥락에서 등장하는데, 위의 '終ㅅㄱ'에도 '-ㄱ$_2$'가 결합해 유사한 요소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에, '-ㄱㅜ'를 역접으로 해석하고 '-ㅎ 可ㅌ-'를 의무 양태가 아니라 가능 양태로 보아 '고통에 이를 수 있는 것임에도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정도의 양보 의미로 파악하는 편이 더 나은 듯하다.

추가로 (17)의 경우 내부에 의존명사가 포함된 유사한 구성 '-ㅇㅡㅣ'의 예들도 보충 용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17) ㄱ. [少ㅌㅅㄱ 方便ㄷ 以ㅋ 一切 法ㄷ 了ㅇㄱㅁ] [自然 **明達**ㅅㅏㅇㅡㅣ](A) [他ㄷ 由[三]ㅋ 悟ㄱ 不ㅅㅏㅎ](A') (以少方便 了一切法 自然明達 不由他悟) [조그마한 方便으로써 一切 法을 알되, 自然히 명확하게 아는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며] <화소 19:10-11>

ㄴ. [彼ㄹㅜ 施ㅅ{爲}ㅅㅅㄱㅅㅠ 故ㅊㅣ 而ㅠ 自ㄹㅠ {之}ㅂㄷ **食**ㅅㅏㅇㅡㅣ](A) [其 味ㅋㅜ 貪ㄱ 不ㅅㅏㅎ](A') (爲施彼故 而自食之 不貪其味)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그러므로(그 이유로만) 스스로 이것을 먹는 것이지 그 맛에 貪하지 않으며] <화소 09:16>

다시 도로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만/이니, 이 중생을 보면 곧 **고통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니(> (심지어) 고통에 이를 수 있어도)**, 끝내 마땅히 여겨 피함이 없는 것이다. 결코 선을 닦아서 열반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서 이미 이는 무지한 것이니,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구할 줄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 극심하여 인간 세상보다 더하다. (是 事ㄷ 以ㄱㅅㅠ 故ㅇ 我ㄱ {於}罪人ㄹㅜ 片ㅋㅌ 慈心ㄱ 無ㅌㅋ 故ㅌㅁㅌ 楚毒ㄷ 加ㅅㅏㅎㄱㅅㄱ 望ㅂㄱㅅㄱ 其 苦ㅂㄱㅅㄷ 知ㄹ 慚ㅎㄱㅅㄷ 知ㄹ 恥ㅎㄱㅅㄷ 知ㄹㅅㅋ 復 更ㅋ 還ㅊ 不ㅅㅁㅌㅇㄱㅅㅠ {此}ㅂ 衆生ㄷ 觀ㅎㄱㅁ 乃ㅈ 苦ㅋㅜ 至ㅂㅎㅎ 可ㅌㅅㄱㅂㄱㅜ 終ㅅㄱ 肯ㅎㄱㄱ 避ㅂ 不ㅊㅏㄱㅂㅣ 決ㅎ 善ㄷ 修ㅋㅎ 泥洹ㅋㅜ 往趣ㅅㄱ 不ㅁㅅㅏㄱㅂㅁ 既ㅈ 是ㄱ 無知ㅅㅌㅌ{之} 物ㅌㅂㅁㄱ 苦ㄷ 避ㅅㅁ 樂ㄷ 求ㅇㄱㅅㄷ 知ㄱ 不ㅁㅅㄱㅅㅠ 所以ㅊ 痛ㅇㄱㅊ 劇ㅅㅋ {於}人間ㅋㅜ 倍ㅣㅅㅁㅌㅏㅎㅣ)'<자비 21:15-20>

(17ㄱ)의 경우 보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연히 명확하게 아는 것’과 ‘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은 대안적인 관계로 후행절은 부정되고 있다. (17ㄴ)의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후행절을 ‘보시하시고자 하는 까닭’과 ‘그 맛에 탐하는 까닭’을 대안적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스스로 이것을 먹으면(A) 그 맛에 탐한다(B)’와 같은 기대를 상정해 사실적 양보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되었든 ‘-ᄉᆞᄋᆞ’에서도 후기중세의 ‘-ㄴ뎡’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찾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자토석독구결의 ‘-ㅣㅜ’와 음독구결의 ‘-ㅣㅜ/ᄒᆞㅜ’, 그리고 후기중세 한국어의 ‘-ㄴ뎡’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형태, 의미 기능의 유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때, 석독구결 ‘-ㅣㅜ’의 여러 용법 중 15세기의 ‘-ㄴ뎡’에 비견되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석독구결의 ‘-ㅣㅜ’의 의미 기능 중 일부는 15세기의 ‘-ㄴ뎌’로 승계되었고 일부는 ‘-ㄴ뎡’으로 승계되었다는 가설도 제안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러한 가설 아래에서는 독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결의 독법은 상당 부분 15세기에 기초해 있는바, ‘-ㅣㅜ’가 15세기의 ‘-ㄴ뎡’과 관련된다면, 그 독법도 ‘ㄴ뎌’가 아닌 ‘ㄴ뎡’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능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8) ㄱ. 석독구결 문헌의 ‘ㅜ’는 의미 기능에 따라 ‘뎌’로 읽히는 것과 ‘뎡’으로 읽히는 것이 존재했다.
ㄴ. 석독구결 문헌의 ‘ㅜ’는 항상 ‘뎡’으로 읽혔다.
ㄷ. 석독구결 문헌의 ‘ㅜ’는 항상 ‘뎌’로 읽혔다.

(18ㄱ)의 경우, 석독구결 시기에도 이들의 음이 달랐고, ‘ㅇ’을 표기할 수단이 없어 동일한 ‘-ㅣㅜ’로 표기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두 기능의 음이 달랐다면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오히려 모든 ‘ㅜ’가 (18ㄴ), (18ㄷ)처럼 ‘뎡’이나 ‘뎌’로 읽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후기중세로 오면서 어느 시기에 일부 용법에서는 ‘ㅇ’이 탈락했거나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규명이 어렵다. 이처럼 제시한 가설 중 어떤 것이 옳은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앞으로 석독구결뿐만 아니라 다른 차자 표기를 아울러 전수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디비’의 경우 구결에 대응되는 표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15세기 말 자료로 보이는 호림박물관본 『楞嚴經』에서는 ‘-디비’로 추정할 수 있는 ‘ㅕ為’가 발견됨을 지적할 수 있다.

(19) ㄱ. 世尊하 내 眞實文殊ㅣ디위 이 文殊ㅣ 업스니이다 <능엄 2:58a>
ㄴ. 世尊하 我ㅣ 眞文殊ㅣ디위 無是文殊ㅎ니이다 <능엄 2:58a>
ㄷ. 世尊下 我ㄴ 眞文殊ㄴㅕ為 無是文殊ㅅㅂㄴㅣ <호림능엄 02:15a>

(19)은 보충 구문으로 보이는 것이다. (19ㄱ)은 15세기 능엄경의 예로 ‘디위’가 나타났다. (19ㄴ)은 동일한 문헌에 기록된 한글 구결의 예로 동일하게 ‘디위’로 나타났다. (19ㄷ)은 음독구결로 ‘ㅕ為’는 ‘-디비’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전 시기의 동일 문헌에 대한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이러한 표기를 찾을 수 없었다.

끝으로 석독구결에서도 ‘-디비’로 볼 수 있을 만한 예가 발견되어 제시한다.

(20) ㄱ. 五欲ㆍ 及ㅌ 王位ㆍ 富饒ㆍ 自樂ㆍ 大名稱ㆍノ今乙 求ㅅㄱㅅㄱㅌㄱ 不矣ㅣ (A) 但ㅅ 永ㅊ 衆生ㄹ 苦乙 滅ㄱㄱ 世間乙 利益ㅅㄱㅅ{爲}ㅅ 而ㅁ 發心ㅅㄱ ㄱㅣㄱ(not-A') [五欲이니 및 王位니 부유함이니 自樂이니 큰 名稱이니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니 오직 영원히 衆生의 苦를 滅하며 世間을 利益하게 하고자 發心하는 것이며] <화엄 09:12-13>
ㄴ. (答彼經文義 欲現隨機設敎不同 非是欲明佛性多種也 此義中若破經文者) 或有如 佛性隱 闡提人隱 有豆亦(A) 善根人 無如好尸丁(not-A') 或 有如 佛性隱 善根人隱 有豆亦(A) 闡提人 無如好尸丁(not-A') 等云也[(대답하기를 그 경문의 뜻은 機에 따라 설교가 다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불성이 여러 종류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경문을 이해한다면,) “혹 있다 불성은(혹 불성이 있다고 함은) 闡提人은 있지만 善根人은 없다

함이며, 혹 있다 불성은(혹 불성이 있다고 함은) 善根人은 있지만 闡提人은 없다 함이다.” 등을 말한다.] <석교분기 3:29>

(20ㄱ)의 경우 ‘ᄎᆞㅣ’가 두 절을 잇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할 경우, 선행절에서는 ‘오욕, 왕위, 부유함, 자락, 명칭’ 등을 구하는 것을 부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후행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념들의 반대항인 ‘영원히 중생의 고통을 멸하고 세간을 이익하게 하고자 발심’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다. 즉, <A이지 not-A'> 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不ᄎᆞㅣ’는 ‘안디이’ 정도로 읽혀 온 것으로 보이는데, ‘붕’로 읽히는 구결자가 보고된 바 없다는 점에서 ‘디비’로 읽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0ㄴ)은 장윤희(2004: 65)에서 제시한 석독구결의 예로, ‘-豆亦’은 선행절 내용을 긍정하고 후행절 내용을 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5세기의 ‘-디비’와 유사하다고 언급된 것이다. 다만, 유일례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구조와 의미 기능을 가지는지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본 항에서는 15세기에 나타나는 보충 표현 ‘-ㄴ뎡, -디비’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구결 문헌의 예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아직 다양한 차자 표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몇 가지 문제 제기 정도만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지금까지 중세 한국어의 양보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1차적으로는 양보 표현의 목록을 정리하고 유형을 분류해 제시하였고, 2차적으로는 개별 양보 표현의 특징을 기술하고 각각의 실현 원리를 규명해 보려 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계 및 추후의 연구 과제에 관해 서술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양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양보에 대한 본고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양보는 '기대의 부정'과 '비관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시 사실성을 기준으로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분류할 수 있다. 조건적 양보의 경우 다수의 전제절에 대응하는 귀결절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범언어적으로는 주요한 세 가지 유형(첨가 초점사 양보, 대안 조건적 양보, 자유 선택사 양보)이 존재한다. 이는 현대 한국어는 물론 중세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조건절을 포함하는 의문문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ㄴ들', '-ㄴ둘'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사실적 양보는 양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명제가 모두 사실임을 단언하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사실적 양보는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도 해석되는 경우, 배경 제시나 대조 표현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 보충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끝으로 양보와 인접 범주들의 관계에 대해 살폈다. 사실적 양보와 대조가 공통점을 공유하고 조건적 양보와 조건이 공통점을 공유함을 확인하였고 중화의 맥락 몇 가지를 소개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조건적 양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첨가 초점사 양보, 대안 조건적 양보, 자유 선택사 양보, 조건-의문형 양보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첨가 초점사 양보로 볼 수 있는 표현으로는 '도, ㅋ, -어도, -고도, -ㅅ{雖}ㅏ'가 있었다. 현대 한국어 첨가 초점사 '도'는 단순 첨가와 척도적 기능을 갖는데, 비접속문에서는 척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접속문에서는

단순 첨가나 척도적인 경우 모두 양보로 해석될 수 있었다. 중세 한국어의 '도, ㅋ'에도 동일한 기능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도'의 경우 현대와 동일하게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로 모두 사용될 수 있었던 반면, '-고도'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나 후기중세에는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어도, -고도'는 '-어, -고'와 첨가 초점사 '도'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이때의 '-어, -고'는 조건적으로는 해석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첨가 초점사 '도'가 결합해 척도적 해석을 보이는 경우를 기점으로 조건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ㅅ{雖}ㅐ'의 경우 용례가 적었으나 대부분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것이었다. 한문 원문과 비교해 그 구조를 'Aㅅ雖ㅐ [{而ㄱ, 然ㅣㅋ, Ø} (C) not-B]'와 같이 단순화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구성요소인 'ㅐ'의 경우 초점사로 추정할 수 있으나 'ㅅ'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유형론에 비추어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대안 조건적 양보를 살펴보았다. 이 유형은 대안 집합의 나열을 통해 표현해 비관여성을 얻는 것이다. 이접의 '이(거)나, -나$_1$, -ㅋ$_1$'와 연접의 '-며', '-여', '-ㅡ(ㅣ)'가 이 유형에 속할 수 있음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자유 선택사 양보의 경우 선행절의 미명세된 부분에 어떤 대상이 와도 언제나 후행절이 성립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기중세 한국어의 경우 '아모'계열 비한정사에 이접 표현이나 초점사 '도' 등이 공기하는 경우와 '현마'에 '-도, -나$_2$, -ㄴ둘' 등이 공기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추가로, 후기중세에 단 한 건 나타나는 '아마도'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의미 기능이 나타난 것에 대해 'anyway'류 표현의 유형론에 기대어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건-의문형 양보로 '-ㄴ둘'을 제시할 수 있었다. '-ㄴ둘'은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모두 쓰일 수 있었으며 대부분 주절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온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 발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먼저, 'NP+목적격 조사' 구성에서 바로 양보의 연결어미로 발달된 것이 아니라 중간 층위로 조건의 의미 기능을 거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구결과 역학서류의 번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본래 조건이었다면, 어떻게 조건에서 조건적 양보로 발

달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우리는 '-ㄴ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의문형 종결어미를 요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유형론적으로 조건문의 주절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온 경우 함축에 의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역학서류에서는 동일한 저본에 대해 '-ㄴ둘'이 '-면'으로 수정되어 언해된 경우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조건문의 주절에 의문형이 온 경우를 교량으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한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실적 양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살펴보았고, 보충 표현은 제5장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배경 제시와 대조 표현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만을 다루었다. 배경 제시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서 두 절이 양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나, 그것이 부정되어 모두 단언되는 경우 사실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늘', '-ㄱㄷ', '-오ᄃᆡ', '-ㅎㅏㅁ/-ㅎㄱㅁ', '-건마른', '-니', '-ㄱㅡ/ㅣ', '-ㅏㅡ/ㅣ'가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대조로 기술되는 '-나$_2$', '-ㅭ$_2$', '-거니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나$_2$'는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후기중세의 '-나$_2$'는 주로 사실적 양보로 해석되었으나 일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전기중세의 '-ㅭ$_2$'의 경우 예가 매우 적으나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되는 예가 모두 발견되었다. 대조 연결사가 조건적 양보까지 포괄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며, 한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아직 알기 어렵다. 이때, 대안으로 '-나$_2$'가 중세 한국어 시기 전형적인 대조 표현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원형 이론의 측면에서 더 중심부에 가까운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된 경우가 중세 한국어 시기 매우 드물고, 주변부에 해당하는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더 많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나$_2$'가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되는데,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로의 발달은 확인되나 사실적 양보에서 조건적 양보로 발달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나'는 본래 조건성을 띨 수 있는 어떤 것에서 발달해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었고, 현대 한국어로 오면

서 더 본래적 기능인 조건적 양보는 잃고 사실적 양보와 (의미론적) 대조로 그 기능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었다. 이외에 『釋譜詳節』에서는 '-나$_2$'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적으나(투식에 가까운 '그러나' 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月印釋譜』에서는 '-나$_2$'의 사용이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해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보충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유형은 지금껏 내부 구조 및 의미 기능의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확연히 구분되어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보충은 선행절에서는 어떤 명제를 단언하고 그 대안 집합에 속하는 명제를 후행절에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보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ㄴ뎡'류 표현과 '-디비'가 있다. 우리는 이들이 두 가지 다른 특징을 지니는 양보로 평행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들을 묶어 의미 기능을 세분(보충,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하고 각각의 기능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세 가지 의미 기능은 공통적으로 "앞 긍정, 뒤 부정"의 형식을 보인다. 그러나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는 기대의 부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시 보충과 조건적 양보는 선행절 명제와 후행절 명제가 대안적인 관계에 있는데 반해 사실적 양보는 대안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개별 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끝으로는 구결 문헌에서 '-ㄴ뎡'류 표현이나 '-디비'로 볼 여지가 있는 예문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었다.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양보로 해석되는 표현의 목록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나누어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개별 표현의 의미 기능이나 통사적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기 어려웠다. 개별 표현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중세 한국어의 경우 자토석독구결만을 다루었다. 다른 차자표기 자료들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가 선결된 후에는 다른 시기의 양보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종래에는 양보의 문법사가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고영근(1981/201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집문당.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Ⅱ』, 집문당.

김지오(2008), 두보 시 언해에 관한 비교 연구, 『국어사연구』8, 국어사학회, 7~40.

김지오(2012). 釋讀口訣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 『동악어문학』58, 217~242.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43, 구결학회, 55~87.

남경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겿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22, 국어사학회, 199~250.

남미정(2004), 접속어미 '-ㅣㄷ'에 대한 一考察: 분포와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57-189.

남윤진(1989), 十五世紀 國語의 接續語尾에 대한 硏究: {-아}, {-고}, {-며}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풍현(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253~336.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남풍현(2000),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구결연구』6, 구결학회, 11~40.

류병률(2013),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마원걸(2020), 부사 유(猶)의 새김에 대하여: 오히려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213~257.

마원걸(2021), '약간(若干)'의 어휘사, 국어사학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문현수(2020), 진본화엄경 권20의 미해독 구결점에 대한 해독 시도, 『민족문화연구』 87, 39~66.
박승윤(2007), 양보와 조건, 『담화와 인지』 14, 담화인지언어학회, 63~83.
박용찬(1996), '마른', '건마른', '컨마른'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출판부, 161~190.
박용찬(2006), 15세기 국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119~141.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국어학회, 117~156.
박진호(1994), 현대국어 '만', '뿐', '따름'과 중세국어 '만', 'ᄲᅮᆫ', 'ᄯᅳᆯᄫᅮᆫ'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편, 『국어학논집』 2, 태학사, 135~143.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3), 중세국어 부사 파생 접미사 '-더/려/다/라'에 대하여, 『형태론』 5-1, 23~30.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
박진호(2009),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의 비대칭적 용법, 『한국언어문화』 38, 한국언어문화학회, 173~187.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국어학회, 459~520.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박진희(2011), 국어 절 접속의 의미 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서정섭(1986), 중세국어 대립·양보의 접속어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서태룡(1979), 국어 접속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어문학회, 75~98.
양정석(2017), 『주관적 판단의 문법 - 주관성형용사, 양상, 증거성』, 한국문화사.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평현(1999), 국어의 상황관계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17, 한국언어문학회, 603~625.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안병희(1992), 『國語史 硏究』, 문학과 지성사.
안병희(2009), 『國語史 文獻 硏究』, 신구문화사.
이건식(2017),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조건'과 '양보'의 부사와 보조사에 대하여, 『구결연구』 39, 구결학회, 129~168.
이금영(2019), 연결어미 '-ㄴ들' 구문의 통시적 고찰, 『어문연구』 101, 어문학연구회, 73~97.
이금영(2020), 근대 국어 '-도' 통합형 양보 관계 연결어미 연구, 『어문연구』 105, 어문학연구회, 5~33.
이금희(2017), 한국어 양보절 접속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하여: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8, 한민족어문학회, 117~147.
이기동(1977), 대조·양보의 접속어미의 의미연구(1), 『어학연구』 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29~137.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이래호(2005), 후기 중세국어의 '-거-' 통합형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이병기(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과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89~125.
이상훈(2011), 중세국어 양보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훈(2012), 중세한국어의 '현마',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295~319.
이상훈(2019), 중세어 '아모'에서 기원한 어형 연구,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187~209.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순욱(2017),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숭녕(1961/1981), 『개정증보판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 하여』, 을유문화사.
이승재(2007), 한국어 명명구문의 통시적 변화, 『관악어문연구』 35, 서울대학교출판부, 65~84.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31』, 태학사.
이은경(2015ㄱ), 배경·이유·조건·양보 접속문의 시제 표현,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145~171.
이은경(2015ㄴ), 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 기술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33~359.
이은경(2018),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 윤평현(2005)를 중심으로, 『형태론』 20, 형태론학회, 102~129.
이 용(1997), '-乙'에 대하여, 『구결연구』 2, 구결학회, 131-160.
이 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영(1999), 선어말어미 '-더-'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2002), 근대국어 이후 反事實的 假定 표현의 發達: '-더면', '-던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33~59.
이지영(2007), 連結語尾 "-지만"의 形成 過程에 대한 再考察, 『대동문화연구』 5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19~362.
이현희(1982), 國語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1985), ‘ᄒᆞ다’ 語詞의 성격에 대하여: 누러ᄒᆞ다류와 엇더ᄒᆞ다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221~245.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 191~227.
이현희(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77.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이현희(1995), ‘-ㅿ아’와 ‘-沙’, 『韓日語學論叢(南鶴李種徹先生 回甲紀念論叢)』, 국학자료원, 523~585.
이현희(1996), 중세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210~247.
이호권(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국어학총서 39』, 태학사.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8~130.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국어학회, 337~376.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151~174.
장요한(2010), 『15세기 국어 접속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총서 67』, 태학사.
장요한(2014), 국어 ‘-ㄴ뎡’류 접속어미의 통시적 연구: 중세국어 ‘-ㄴ뎡’ 접속어미의 문법을 중심으로, 『국어학』 72, 국어학회, 235~264.
장요한(2016), 국어 ‘-ㄴ뎡’류 접속어미의 통시적 연구(2): 중세국어 ‘만뎡’의 특징과 그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11~333.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장윤희(2011), 『몽산법어언해』, 채륜.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재영(1996),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국어학총서 23』, 태학사.

정재영(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33-56.
정재영(2006),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125-185.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 한국문화사.
최상진·임채훈(2009), 부연의 연결어미 '-지'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학』 42, 한국어학회, 291~316.
최성규(2021), 의존명사 'ㅅ' 다시 보기, 『구결연구』 46, 구결학회, 139~164.
최준호(2019),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함병호(2013),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07~147.
허 웅(1975), 『우리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황선엽(2000), 석독구결의 '尸'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어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55~280.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선엽·이전경·하귀녀·이용·박진호·김성주·장경준·서민욱·이지영·서형국(2009), 『석독구결사전』, 역락.

Atlas, J. D. & S. C. Levinson (1981), If-clefts, Informativeness, and Logical Form: Radical Pragmatics,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1-61.
Azar, M. (1997), Concession Relations as Argumentation, *Text* 17.3, 301-316.
Comrie, B. (1986), Conditionals: A Typology,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99.
Dixon, R. M. W. & A. Y. Aikhenvald (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A Cross-linguistic Ty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ucrot, O. (1972), *Dire et ne pas dire,* Paris: Hermann.

Haspelmath, M. (1993), *A Grammar of Lezgian*, Walter de Gruyter.

Haspelmath, M. & E. König (1998), Concessive Conditionals in the Languages of Europe,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563-640.

Karttunen, L. & S. Peters (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Syntax and Semantics* vol. 11: *Presuppos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König, E. (1985). Where do Concessives Come from? On the Development of Concessive Connectives, *Historical Semantics: Historical Word-Formation*, Walter de Gruyter.

König, E. (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s of contrast,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9-246.

König, E. (1988). Concessive Connectives and Concessive Sentences: Cross-linguistic Regularities and Pragmatic Principles,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Oxford: Blackwell, 145-166.

König, E. (1991a), Concessive Relations as the Dual of Causal Relations, *Semantic Universals and Universal Semantics*, Mouton de Gruyter, 190-209.

König, E. (1991b).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König, E. & P. Siemund. (2000), Causal and Concessive Clauses: Formal and Semantic Relations,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ton de Gruyter, 341-360.

König, E. (2006), Concessive Clause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Second edition),* Elsevier. 820-824.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Berlin: de Gruyter, 38-74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rt, Rinehart and Winston, 114-149.

Mizuno, Y. (2007), Although Clauses in English Discourse: A Functional Analysis, Ph, D. Thesis, Hokkaido University.

Portner, P. (2009), *Modality*. Oxford Surveys in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Ranger, G. (1997), An Enunciative Study of Rectifying Concessive Constructions: not that, except and only, *Anglophonia* 2, 107-127.

Rosch, E.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Rudolph, E. (1996), *Contrast Adversative and Concessive Relation and their expression in English, German, Spanish Portuguese on Sentences and Text Level*, Walter de Gruyter.

Sohn, Ho-Min. (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in Korean,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A Cross-linguistic Ty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85-317.

Sweetser, E. (1991),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sser, F. Th. (1963-1973) ,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Vols. 1-IIIb, Brill.

Xrakovskij, V. (2012), Concessive Constructions: Meaning, Syntax, and Typology, *Typology of Concessive Constructions*, LINCOM, 3-79.

ABSTRACT

A Study on Concessive sentences in Middle Korean

Lee, Hong-G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scribe concessive sentences in middle Korean, whose primary goal is to organize and classify the types of concessive expressions, and whose secondary goal i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ncessive expressions and identify the principles of each realization.

In Chapter 2, the basic concepts of concessives are summarized and types are classified in outline form. Concessives can be defined as 'denial of expectation' and 'irrelevance' and can be classified a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factual concessives' based on factuality. Conditional concessives can be reclassified into three main types and conditional-interrogative concessives. Factual concessives can be observed when conditional concessives are interpreted as factual concessives, background or contrast expressions are interpreted as concessives, and expatiation expressions are interpreted as factual concessives.

In Chapter 3, conditional concessives are investigated. First of all, focus particle concessives shall be made using additional focus particles. '도, ㅋ, -어도, -고도, -ㅅ{雖}ㅏ' may be said to belong to this group. Alternative conditional concessives are presented through a list of

alternative sets to obtain irrelevance. The disjunctive expressions '이(거)나, -나$_1$, -ㄱ$_1$' and the conjunctive expressions '-며, -여, -ㅭ(ㅣ)' may belong to this type. The free choice concessives are present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irrelevant expression and the indefinite. In the case of Late Middle Korean, there is interaction between the '아모' and disjunctive expressions or focus particle '도' and interaction between the '현마' and '-도, -나$_2$, -ㄴ둘'.

Conditional-interrogative concessives can be presented through '-ㄴ둘'. The '-ㄴ둘' could be used as both a factual concessive and concessive conditional and it could be characterized by an interrogative ending. For developmen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had gone through the semantic function of the condition in the middle layer, not directly developed from the formation of the 'NP + objective case' to the concessive expression. We also propose the possibility that the bridge developed into a conditional concession when interrogative endings were encountered in the conditional sentence's main clause.

In Chapter 4, factual concessive sentences created through background and contrast expressions are looked at. If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the two clauses will be incompatible in a sentence when the background is used, it can be interpreted as a factual concessive sentence. Specifically, we looked at '-거늘, -ㄱㄹ, -오ᄃᆡ, -ㅎㅏㅁ/-ㅎㄱㅁ, -건마ᄅᆞᆫ, -니, -ㄱㅭ/ㅣ, -ㅏㅭ/ㅣ'. In the case of contrasts, we looked at '-나$_2$, -ㄱ$_2$, -거니와'. In the Late Middle Ages, '-나$_2$' was mainly interpreted as a factual concessive, but was also interpreted as a concessive conditional. In the case of '-ㄱ$_2$' in the Early Middle ages, interpretation as both a factual concessive and concessive conditional is found. The fact that contrast conjunctions can cover concessive conditionals is an irregular phenomenon, and it is still hard to understand why this phenomenon occurs in Korean. As an alternative, it can be suggested that '-나$_2$' was not a typical contrast expression used during the Middle

Korean period.

In Chapter 5, expatiation expressions and concessives are looked at. Expatiation is the affirmation of a proposition in the preceding clause and the denial of a proposition belonging to the alternative set in the trailing clause. In Middle Korean, '-ㄴ뎡' and '-디뷔' are used as expatiation expressions. Their semantic functions can be subdivided into 'expatiation', 'factual concessive' and 'concessive conditional'. In addition,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ach function are described. In addition, the semantic functions of individual representations are looked at and examples found in 'Seokdokkugyol' are mentioned.

Chapter 6 summarizes the contents discussed in this paper, and concludes with the remaining tasks.

Key Words: concessive, concessive conditionals, factual concessives, irrelevance, focus particle, free choice, contrast, background, expatiation, Seokdokkugyol.

Student Nummer: 2019-27800